구속사, 맥을 잡아라!
목차

1부. 터 닦기 ..............................................3
   1. 구속사란 무엇인가?.................................................4
   구속(REDEEM, REDEMPTION)........................................16
   2. 왜 구속사를 배워야 하는가?......................................19
   샌디미니안주의(Sandymanianism)....................................38
   3. 구속사와 설교..........................................................44
   4. 구속사와 성령..........................................................56
   성도들의 영적 전쟁.......................................................65

2부. 도구들 ..............................................94
   1. 구속사의 기초 - (1) 구속사 시대구분...................................95
   2. 구속사의 기초 - (2) 구속사 약도.....................................113
   3. 구속사의 기초 - (3) 구속사 연결선..................................118
   4. 구속사의 기초 - (4) 구속의 단계.....................................165
   회심의 체험...............................................................172
   성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195

3부. 기둥 세우기 ......................................199
   1. 구속사의 일요일A : 창세기1 .......................................209
   2. 구속사의 월요일 : 창세기2 .......................................263
   3. 구속사의 화요일 : 출애굽기..........................................333
   4. 구속사의 수요일 : 사무엘상·하..................................394
5. 구속사의 목요일 : 에스라.......................................................................................................................... 479
6. 구속사의 금요일 : 복음서.......................................................................................................................... 513
7. 구속사의 토요일 : 사도행전...................................................................................................................... 546
8. 구속사의 일요일B : 요한계시록............................................................................................................. 582

4부. 울타리 치기.............................................................................................................................................. 628
   1. 백잠기통독 : 창출삼라 막행계 ............................................................................................................. 629
   2. 후속 통독 방법 소개....................................................................................................................... 673

5부. 구속사적 설교...................................................................................................................................... 678
   1. 꿈 꾸지 않은 요셉............................................................................................................................. 679
   2. 양복강 씨름의 의미.......................................................................................................................... 689
   3.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 702

저자 소개..................................................................................................................................................... 712
버터 닦기
1. 구속사란 무엇인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장에서는 ‘구속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 ‘자유를 박탈하다’가 아니라 ‘대가를 치렀다’

구속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용어를 강조하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신문이나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검찰에 구속(拘束)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다”는 의미의 구속이 아닙니다. 한 자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할 구(救), ‘살 속(贖)’자를 써서 ‘값을 주고 구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폴뤼트로시스 (ἀπολύτρωσις)’를 사용합니다. ‘아폴뤼트로시스’는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로마시대에는 노예

‘구속’이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값’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 중에서도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냥 ‘구원’과 ‘값을 지불한 구원’이 사소한 차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때로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잘못된 복음주의(‘복음주의’와 다른)의 영향으로 인기 없는 세일 상품 같은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구속' 즉 '값을 지불한 구원'이라는 말은 곧이어 "왜 값을 지불해야 했으며, 그 값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문을 불러 일으키면서 복음의 세계로 한 걸음 다가가도록 이끌게 됩니다.
구속사에서 중요한 단어는 ‘사(史)’입니다. 역사(history)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구속’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구속사(The history of redemption)’라고 할 때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속성’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오직 하나의 주제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성경을 대충 볼 때는 다양한 시대, 인물, 사건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서 그 이야기들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다. 마치, 바느질 실이 한 맘 한 땀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틀어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도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도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합니다.

‘사(史)’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연속성’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을 연속적인 이야기로 이해하고 볼 때 성경의 참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배워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곧 소멸해 버린다면, 그 원인은 연속성을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을 배우더라도 성경 전체의 무게를 느껴야 능력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은 복싱 선수의 예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싱 선수의 주먹을 상대방이 한 주먹만 맞아도 다운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 이유는 그 주먹에 온몸의 체중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한 주먹에 온몸의 체중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을 주지 못합니다. 이와같이 성경의 연속성을 이해하고 배워야 성경의 어떤 부분을 보더라도 전체와 어우러져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구속사’에서 ‘사(史)’라는 단어를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는, 성경이 하나의 일관된 관점으로 유기적으로 쓰여진 책이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관된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방법입니다.

[눅 24:44~48]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위함입니다(요 20:31).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옵니다.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옵니다.

구속사에서 말하는 믿음은 역사적 인격적 실체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예수님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은혜의 방편을 따라가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었고, 그대로 완성했을 때 회막에 가득 찬 영광을 보게 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구속
사를 따라 성경을 배울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출 40:32~35]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섰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둘에 포장을 치고 둘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또 한 가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할 때 중요한 점은, 구속사는 “믿음이란 무엇이며,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필자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위의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결국 한 가지 단어로 합쳐지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기에 두 가지 질문의 답은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라고 정의할 수 있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속사입니다.

*필자는 성경을 공부하는 관점으로써 구속사적 방법을 제안하면서, 구속사의 거장인 게할더스 보스와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술을 참고했습니다. 또한,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을 위해
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구하신 유도순(신구약파노라마, 머릿돌), 김영철(선으로 본 구속의 역사, 코람데오), 정병우 목사님 등의 업적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행여나 위 분들의 사상과 어긋난 내용이 있다면 필자의 잘못이며 언제든지 수정할 용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속(REDEEM, REDEMPTION)

W. E. Vine

[요약]

한국어 ‘구속’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동사 ‘에크사고라조, 뤼트로오’와 명사 ‘뤼트로시스, 아폴뤼트로시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구속사’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뤼트로시스’의 강조형인 ‘아폴뤼트로시스’입니다.

[설명]

1. 뤼트로시스(λύτρωσις)는 ‘구속’이라는 의미로 다음과 같이 쓰였습니다.

(1)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출한다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복 1:68의 R.V.와 한글개역은 “속량하다” 2:38(한글개역 “구속된다”).

(2) 히 9:12에서 죄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오는 그의 구속적

2. 아폴뤼트로시스 ($\alpha\pi\omicron\upsilon\tau\rho\omicron\omicron\omicron\sigma\varsigma$)는 1번 단어의 강조형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속전을 내고 풀어줌’을 뜻합니다.

(1) 히 11:35에서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출됨’에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2) 뉘 21:28에서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심에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살후 2:8에서는 “그의 재림의 빛”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취되는 구원에 관련하여 사용되었습니다.

(3) 죄로부터의 구원, 속죄함으로 얻어지는 죄 사함과 의롭다 함, 구속에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롯 3:24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엡 1:7의 R.V.는 “죄 사함”으로 표현했다. 곧

(4) 롯 823, 고전 1:30, 엡 1:14, 4:30에서는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죄의 현존과 권능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썩어질 육체로부터 구원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2. 왜 구속사를 배워야 하는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히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직접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 자신이며, 성경의 주제 또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며,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의 기록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눅 24:25-27]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꿈보다 해몽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대통령을 가지고 있지만,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을 보고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면 그 평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성경을 보아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성경을 보는 관점을 알려 주시고, 성경을 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교리’라고 부르는데, 성경을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기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만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실상은 “자기 교리 만을 믿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 다. 우리는 자기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교리를 믿고 따라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 해석 관점, 즉 교리는 구속사적 관점입니다. 구속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관점대로 성경을 해석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파소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배운 후에야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눅 24:30-32]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떠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 보더니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되네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눈이 열립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관점, 자기 교리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 출세, 복 등 자기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엠파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같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눈도 열려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님께서 옆에 계셔도 눈이 가리워져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실체로서 예수님이 영혼 속에 선명하게 조명되어야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울 때, 엠파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도 훌연히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믿음을 갖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두꺼울까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 혹은 '소책자'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라 할 수 없습니 다. 단순한 구호, 짧은 소책자, 감동적인 간증 등으로 믿음이 생긴다면 좋겠지만, 냉철하게 현실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세상에 돌려보내서 형제들에게 천도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거절 이유
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전도해도 소용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형제가 돌아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 그 사실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민이라도 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정보 습득이나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선택, 개인적인 신념 혹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실니까? 이런 것들이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만으로는 결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이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생생하게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영혼의 중심을 뒤뿐더도 놓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따라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 자신도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보거나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체험이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제기가 될 수는 있어도 그 자체는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부자의 부탁이 거절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정보 습득이나 선택, 혹은 결단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승복의 체험입니다. 하나님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거나 결단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러한 선택이나 결단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믿음이란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론에 항
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 된 현실과 그 원인,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골레 등 세상의 문제점과 부조리함에 대한 하나님의 변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납득한 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유일한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 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간의 결단이나 선택’ 아닌 ‘순종과 굴복’이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은 인간 주도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변론을 요청하십니다.

[사 1: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의 죄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
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성경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변론을 제의합니다. 우리는 그 변론 가운데로 들어가서 승복한 이후에야 참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확실한 사실에 대해서 모험을 거는 결단이나 사실에 대한 동의,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변론을 통해서 굴복하고, 설득되고, 감동해서 하나님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속사만이 하나님의 변론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려 줄 수 있습니 다.
넷째,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더 일찍 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만을 신봉하는 우리가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언하심으로써 초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한 두 번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언과 성취를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관해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특히,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 예언 성취의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훈
련시키기 위해서 수 천 년의 기간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히 1:1]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이유도, 성경을 배우는 사람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기초가 다져지고 혼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구속사가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성경을 배우는 우리 믿음이 점진적으로 구체화되기 때문입니다. 우
리 인격 속에서 믿음이 구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세밀한 비유와 상징들을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구체화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면서 우리 지정의가 하나님의 논리에 승복하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일상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믿음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이단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던 하나님의 말씀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다는 사람은 믿음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는 믿음의 역사인데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습니 다. 이어달리기에서 바통을 건네주듯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전해주면서 구속의 역사는 진행됩니다.

[히 12: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힘든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엎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구속 역사상 창세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며, 종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종합하여 넘겨주신 믿음의 바통은 사도-족사도-교부-종교개혁자-개혁파 신자로 계승되며, 믿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주도하시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에 의해서 믿음이 계승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 에스라는 포로귀환 시 백성들의 족보를 조사해서 족보에 나와있지 않은 제사장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입니다.

[라 2:62] 이 사람들은 제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는 믿음의 족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막론하고 믿음은 인격적으로 계승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을 따라서 믿음이 계승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혈통과 관계 없이 전도를 통해 계승됩니다. 사도 바울이 해산의 수고로 제자를 가르치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도 믿음의 족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갈 4:19]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 즉 교리를 선대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홀로 아무도 몰랐던 새로운 교리를 발견한 사람은 믿음의 계보에 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치 제단에 다른 불씨를 가져온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레 10:1~2]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구속사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성경을 배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유산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구속사를 배울 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사실을 나만 깨달았다 고 주장하는 사람이 왜 이단이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왜 잘못된 일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구속사를 배움으로써 믿음의 계보를 계승할 수 있습니다.
샌디메니안주의(Sandymanianism)

마틴 로이드 존스

18세기 말경에 스코틀랜드에 존 글라스(John Glas)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영국인 사위를 두었는데 그의 이름은 샌디맨(Sandyman)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같이, 매우 인기가 있고 많은 영향을 끼친 가르침을 창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기독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는 로마서 10:9의 말씀을 인용해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그분을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 역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정은 쓸모 없고 그 메시지만 믿고 그 진술을 표현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18세기에 매우 인기가 있었고 큰 해를 끼쳤던 샌디메니안주의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손해 를 끼쳤습니다. 한 운동으로서는 사라졌지만 그 가르침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가르침은 인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진리를 전해진 후 설교자를 통해 "이 진리를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 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간단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조금
도 다른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고 당신이 말하면, 그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 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대 하여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 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의 회심에 대한 가르침의 중점은 지성적인 믿 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훈련과 성경에서 발견된 도덕적인 가르침을 더하면 당신은 선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으며 더 이상 필요 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 으므로, 그분을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에 대한 살아 있는 체험이 없어도 당신이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가 르침은 모든 확신에 관한 교리에까지 영향을 미쳤 습니다.

이러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은 확고한 확신을 가졌 다는 사람들에 관하여 읽어 보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물론입니다. 당신 역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면, 그들은

"이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리 오십시오"하며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는 십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별로 십판을 받은 것이니라'(요3:18). 이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당신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라고 반문하면, 그들은

"당신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이것은 구원의 확신에 관하여 매우 흔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감정을 고려하는 것조차도 단념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 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하며 신약성경과 성경 전체에서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실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의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발견된 이 위대한 느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것을 얻었을 때 느꼈던 이 의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현대 복음주의와 18세기 중반까지의 복음주의의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신학적으로는 서로 다른 점들이 있었음에도 이 점이 바로 현시대와 종교 개혁, 청교도 그리고 초창기 감리교 때
와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건한 의식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정이와 놀람,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에 대한 느낌은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모세나 다윗 또는 다른 사람들이 소유했던 이 놀라운 경험들을 찾지 않는 이유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차갑고 이성적인 믿음주의(believism)를 가르치지 않고 전인격이 관련되는 경험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또한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경험을 어떤 한 시대나 일정한 종류의 사람들 또는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3. 구속사와 설교

✔ 구속사적 설교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 설교가 따로 존재할까요? 지금까지 설교해 왔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구속사적 설교 방법을 배워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속사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해 온 목회자라면 이미 구속사적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하게 구속사의 맥을 잡지 못했다면 통일성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속사적 설교는 지금까지 해 왔던 설교를 구속사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옷감들을 모아서 한 벌의 옷을 만드는 것처럼 구속사라는
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라는 옷을 만드는 것이 구속사적 설교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옷감은 많으나 실이 없어서 좋은 옷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구속사의 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본문 중심의 설교를 했지만, 구속사적 설교라는 옷을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속사를 배우면, 설교를 통일성 있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설교를 재미, 감동, 능력 있게 합니다.

구속사적 성경공부는 설교를 풍성하고 다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제시하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살렘왕 멜기세덱으로, 이삭을 대신해서 예비된 염소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반석을 뚫고 숲아난 생수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우 다양한 비유와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니다. 들에 핀 백합과 하늘을 나는 새가 모두
설교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동전을 잃은 여인도, 양을 잃은 목자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도 모두 하나님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생생한 예화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재판정의 모습을 들어서 칭의교리를 가르치고, 에베소서에서 로마군인의 무장을 빗대어서 영적무장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 경주의 예를 들어서 믿음의 경주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속사에 정통할수록 다양한 사건과 인물,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는 성경을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는 억지 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하고 다양한 가르침을 내면화시켜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우면 모든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설교할 수 있는 관점을 길러줍니다.
구속사는 설교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돕습니다.

구속사는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설교도 체계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그려져 있다면, 부분 부분 공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건물로 이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워 두면 부분부분 설교를 한다고 해도 결국은 완전하게 체계가 잡힌 설교가 됩니다. 설교를 해 갈수록 퍼즐이 맞추어져 가는 것처럼 구속사의 전체 모습이 보이게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구속
사적으로 성경을 배워 두면, 자연스럽게 성경 전체의 설계도가 그려지게 되며, 설교가 하나의 체계화된 전체로 완성됩니다.
구속사는 설교에 통일성을 줍니다.

성경은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통일성은 똑같은 것만 있다는 뜻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뜻 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성이 구슬이라면, 구슬을 꿰어주는 실이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라는 실이 있어야 성경의 다양성이 빛을 발하고 보배로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구속사는 성경을 연결하는 일관된 관점이기 때문에 구속사라는 실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 어디를 설교해도 성경 전체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속사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인도 합니다.

구속사와 설교에 관해서 주의할 점은 구속사적 성경공부는 성경공부 방법이지 그 자체가 설교 방법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설교는 상황과 청중, 설교자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설교 방법만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설교의 목적은 청중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는 것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성과 풍부함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청교도들은 대체로 교리적인 설교 방법을 애용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체에 익숙했으며 교리적인 이슈에 대
해서도 능통한 조직신학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펄전 같은 설교자는 주제 설교를 통해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스펄전은 자유롭게 성경 전체를 읽거나니면서 설교했고,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성령의 불꽃을 피워 올렸습니다. 정반대의 경우는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강해 설교를 강조했고, 본문을 꼼꼼하게 주해하면서 진리를 날카롭게 드러내었습니다. 청교도, 스펄전 그리고 로이드 존스는 모두 다른 설교 방법을 활용했지만 동일하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구속사적 성경 공부는 구속사적 설교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설교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떤 설교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청중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설교의 목적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 설교의 기초를 놓아 주는 구속사적 성경 공부를 고집할 뿐입니다.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인도하는 교과서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속사와 성령

 최근에는 성령에 관해 다양한 주장과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두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겠지만,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 때문에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주장을 한다는 것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이 될까 싶어 주저되지만, 구속사적 측면에서 성령론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언급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성령에 관한 논의에서도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기독교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고백은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필요한 교리문답의 첫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처음과 끝을 아우르는 핵심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웁니다. 심지어, 성령님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십니다(요14:26).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믿음을 주시어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만, 성령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에 4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 이시듯이 성령님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구원론, 기독교문서선교회.1995. 49-51).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신자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의 인격을 떠올리면서 성령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개혁파 신학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분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21-23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 버림받은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 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단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님과 만남의 체험입니다. 세상에는 성령 외에 다른 영들도 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이 모두 성령체험은 아니며,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신자를 미혹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체험한 영적인 현상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혹은 미혹의 영에 의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 분별의 기준은 그러한 체험이 우리를 그리
스도와의 연합으로 인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개혁파 신자들이 성령론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강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열망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자 간구하도록 이끄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므로, 개혁파 신학에서는 성령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존 칼빈 "우리가 참의 교리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는 교리입니다." (기독교 강요, 1:737)

존 머리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는... 전체 구원 교리 중 핵심적 진리입니다. 이것은 그저 구속의 적용이 갖는 한 단면이 아니라,
구속의 모든 영역의 기초인 것입니다.” (구원-성취와 적응, 이어먼즈, 1955. pp. 201, 205)

안토니 후크마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에 눈을 뜨면, 신약성경의 모든 영역에서 이 교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은혜로 얻는 구원, 이어먼즈, 1989. 64)고 말합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그리스도인의 영성: 성화의 다섯 가지 관점'(IVP, 1989. 58)에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왜 성화의 기초 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만약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의 모든 부분에서 그분과 연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교리는 개혁신학의 성화론을 이루는 기본 토대입니다. 그것은 인간성과 인간이 성취한 거룩이나
성화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과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혁파 신학 성령론의 핵심 개념으로써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줍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도록 조명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열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을 하고 싶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불씨를 심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

제시 팬 루이스 & 이반 로버츠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는 속이는 영들의 특별한 공격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로 분명히 알게 하신바 ‘후일에’ 미혹케 하는 큰 공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이다. 이 말씀은 예언된 이래로 1800여 년이 지났는데, 믿는이들을 속이는 데 있어서 악한 영들의 특별한 나타남은 우리가 말세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이 세대 말에 있는 교회의 위험은 특별히 영적인 제시의 가르침에 개방된 모든 이들을 속이기 위해 가르치는 영들의 군단을 보내며, 그들로써 그들을 부지중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후일의 위험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군단의 역사를 거의 모르고 있음을 발견한다. 대다수의 믿는이들이 모든 초자연적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겨 선뜻 받아들이며 또한 초자연적인 체험들을 모두 거록한 것으로 여겨 무분별하게 받아 들인다.

지식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장 영적인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사악한 영들의 군대에 맞서서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전쟁을 수행해 내지 못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전파되었다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나 그를 직접 대항하는 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러한 주제를 다루거나 마귀와의 전쟁으로 그들을 부르실 때 움츠러든지.

그러한 지식이 없다면 믿는이가 ‘진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때 실상은 악한 영들을 위하여 싸우고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변호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믿는이는 어떤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보호하고 지지하게 된다. 무지함으로 인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공격할 수 있으며, 또한 마귀를 변호하면서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다.

제시 라이스 & 이반 로버츠, 성도들의 영적 전쟁, 벤엘. 19-21
당연히 교회사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을 통해 그리스도 체험이 어떻게 신자를 경건한 삶으로 이끌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합니다. 여기서 ‘경건’이라는 용어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성’이라는 용어를 대체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카톨릭과 개신교 두 진영에서 사도 바울의 전승을 가장 잘 이어받았다고 평가 받는 인물입니다. 신학적으로 온전했고, 신앙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인이 되는 과정에서 죄의 각성이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그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복음의 진수를 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클레르보의 버나드는 중세의 영적 혼란을 풀고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 소수의 인물 중 한 명으로서, 칼빈에게도 큰 영향을 끼친 수도 사입니다.

버나드 신학의 특징은, 그가 작사한 것으로 알려진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리스도께 대한 감격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 매료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중세의 영적 부패 상황에 오염되지 않은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존 번연은 청교도의 일원으로서 ‘천로역정’의 저자입니다. ‘천로역정’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 체험을 비유적으로 묘사해 놓았습니다. 멸망의 도성을 떠난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을 거쳐 갈보리 십자가를 체험하는 과정은, 그리스도 체험의 교과서라 할 수 있을 만큼 신자의 영적 여정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가 온갖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의 정점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조지 훅필드는 강렬한 회심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길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으며, 루터처럼 죄로 인해 깊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철저한 회심을 체험했기에 그의 설교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령을 꿰뚫는 날카로운 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세기 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훅필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는 한 조지 훅필드의 이름은 잊혀지고 지워지기를 바란다”고 했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께 대한 열정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철학자, 청교도로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 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결심문 63, 자서전)라고 고백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삶과 사역과 신앙은 모두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소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앞서 소개된 사람들을과 마찬가지로죄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 체험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위와 같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높은 평가를 받는 위대한 신앙인들은 공통적으로 성경적인 ‘그리스도 체험’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그들의 죄와 심판에 대한 각성을 깊고 철저했으며, 그 체험 이후로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인 열심으로 인해 비타협적인 모습을 보인 경우는 있지만, 최소한 습관적으로 욕을 했 다거나 금전적, 성적 문제로 일반인의 비난을 받은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맥도날드 같은 회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한 서비스를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지 맥도날드 햄버거 체인점은 동일 한 맛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도 나라와 민족과 시대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그리스도인을 배출하십
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성령님께서 예외적으로 욕 잘하고 돈에 집착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그리스도인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영적 혼란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끌어서 내면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미혹의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이며

바른 성령 체험을 위해서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매료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찼고, 성령 충만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질적으로 전진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들이 성령님을 체험하는 데에는 공통적인 단계가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원의 서정’이라 불리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8장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알아야 미혹의 영에 속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8장을 요약하면, ‘죄의 각성 → 심판의 정당성 인정 → 믿음 → 그리스도와 연합 →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필자는 ‘그리스도 체험’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과정을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실태적으로 ‘그리스도 체험’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 다.

‘그리스도 체험’의 시작은 로마서 1~3장에 나와있듯이 죄의 각성과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죄를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순복하게 된 후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 사
건이 깨달아집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구원 앞에 감격하고 구원을 열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각성을 없는 회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의 각성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죄에 대한 감각을 살려주시는 것으로써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만 죄의 비참한 본성을 대해서 바르게 통찰할 수 있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감각을 가진 사람이 뜨거운 불 위에 손을 넣고 버틸 수 없는 것처럼 죄의 감각이 살아난 사람은 죄 속에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병환자의 예를 들어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이유는 나병환자의 특징이 감각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죄의 각성을 일으키십니다. 죄의 각성에 있어서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인 후회나 반성의 수준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 자기 수준으로 낮추는데 열중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반면에, 죄의 각성이 자연스럽게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합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혹하고 부당한 것이라 생각하던 사람이 죄의 각성이 일어나면 죄의 파멸적인 속성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죄가 진멸되고, 죄인이 심판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선고에 승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믿음을 간구하는 단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고에 전적으로 승복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때 비로소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그만큼 더 그리스도께 감격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
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맨 앞에 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각성과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과정을 거쳐 회심한 신자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능력, 신비, 그것은 영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인 것입니다.

다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옛사람이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항복할 때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께 항복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흘러나오도록 일하신다.
성경적인 단계를 알게 되면, 일반인의 기준에도 미달하는 천박한 말과 행동을 오랫동안 지속하면서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그는 정작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죄의 각성조차 체험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겠지만, 그 안에서 그를 이끌어가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21-23에서 예수님께 버림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은사를 베풀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은 죄의 각성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 7:21-23]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명목으로 불법과 거짓말, 잘못된 선동을 유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은사를 받아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성령님의 은사는 예수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발휘
되는데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신자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먼저 갖추시고, 그 인격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인격 없는 능력과 은사는 영혼 없는 몸처럼 공허한 것일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바르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배워 참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목적은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을 대신해서 행하시는 것이며, 성령 사역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에 하셨던 사역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분기점으로 둘로 나눕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앞부분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가르치는데 집중하였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의 신앙고백 뒷부분은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를 가르치는데 집중하였고, 기사와 표적보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자의 자세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성령께서는 먼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하시고, 죄의 각성이 인도하여서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를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의 역할이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을 대표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성령께서는 성령의 충만과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전반기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는데,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이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눅 4:36]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여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나 성령의 충만과 은사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기에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구약 성경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삼상 10:10] 그들이 산에 이별 때에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삼상 15:35]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사울은 기름부음 받고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유했지만 그리스도를 아는데 실패했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데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혹은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알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람을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리기 위해서 일하시는 데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를 알리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한 마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였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이제는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십자가 체험’을 고백했습니다.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
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체험을 하
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악된 인간의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갈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령 세례를 단지 방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참된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죄악
된 인간을 조금도 거룩하게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령 세례는 죄악된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시킵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어 각종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주장에 의하면, 성령 세례는 항상 성령 충만을 동반하지만 성령 충만이 항상 성령 세례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므로써 도구가 된 사람의 신앙 수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발람과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성령 충만할 수 있었습니 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 구원의 표지,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의 호의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 세례 없는 성령 충만은 불완전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이후에야 온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꺾쳐가는 심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은혜의 방편

전적 무능력을 인정하고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막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개혁파 교회에서는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성찬과 세례)을 중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가르칩니다(ウェ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8, 대요리문답 154).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말씀을 공부하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 드리고, 바르게 성찬에 임하고, 바르게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무능력을 인정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미 주어진 은혜의 방편을 습관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방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조명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편을 겸손하게 순종해 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가운데 흔들며 예수님 그리스도의 인격이 심령을 뒤흔들고, 영광의 하나님이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부흥이 임하실 것입니다.
2부 도구들
1. 구속사의 기초 - (1) 구속사 시대구분

구속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대구분입니다. 시대구분은 말하자면, 표지판과 같습니다. 성경의 세계에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건, 의식, 인물, 비유와 상징이 들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방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성경 속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중간중간에 표지판 세워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성경을 구분해 놓은 표이고, 다음 페이지에는 구속사 시대구분을 요약해서 암기할 수 있도록 만든 연표가 있습니다. 아래
성경 분류표를 참고해서 구속사 연표를 암기해 놓으면 구속사를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속사 연표 - 8등분

여기서는 앞 페이지 구속사 시대구분을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A4용지를 8등분으로 접은 다음에 각 칸에 다음 내용을 적어보세요.

① 먼저, 일요일A부터 일요일B까지 요일을 적으세요.
② 해당 본문을 적으세요.
③ 대략적인 연도를 적으세요.
④ 중심인물을 적으세요.
⑤ 활동장소를 적으세요.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창세기1-11장</th>
</tr>
</thead>
<tbody>
<tr>
<td>698</td>
<td>BC.4000년</td>
</tr>
<tr>
<td>A</td>
<td>아담</td>
</tr>
<tr>
<td></td>
<td>예덴동산</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에스라</th>
</tr>
</thead>
<tbody>
<tr>
<td></td>
<td>BC.500년</td>
</tr>
<tr>
<td></td>
<td>에스라</td>
</tr>
<tr>
<td></td>
<td>바벨론, 이스라엘</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창세기12-50장</th>
</tr>
</thead>
<tbody>
<tr>
<td>699</td>
<td>BC.2000년</td>
</tr>
<tr>
<td></td>
<td>아브라함</td>
</tr>
<tr>
<td></td>
<td>하란, 가나안, 애굽</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4복음서</th>
</tr>
</thead>
<tbody>
<tr>
<td></td>
<td>AD.30년</td>
</tr>
<tr>
<td></td>
<td>예수 그리스도</td>
</tr>
<tr>
<td></td>
<td>이스라엘땅</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출애굽기</th>
</tr>
</thead>
<tbody>
<tr>
<td>700</td>
<td>BC.1500년</td>
</tr>
<tr>
<td></td>
<td>모세</td>
</tr>
<tr>
<td></td>
<td>애굽, 광야</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사도행전</th>
</tr>
</thead>
<tbody>
<tr>
<td></td>
<td>AD.60년</td>
</tr>
<tr>
<td></td>
<td>바울</td>
</tr>
<tr>
<td></td>
<td>지중해 연안</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사무엘상하</th>
</tr>
</thead>
<tbody>
<tr>
<td></td>
<td>BC.1000년</td>
</tr>
<tr>
<td></td>
<td>다윗</td>
</tr>
<tr>
<td></td>
<td>이스라엘</td>
</tr>
</tbody>
</table>

<table>
<thead>
<tr>
<th>일요일</th>
<th>요한계시록</th>
</tr>
</thead>
<tbody>
<tr>
<td></td>
<td>AD.90년</td>
</tr>
<tr>
<td></td>
<td>요한</td>
</tr>
<tr>
<td></td>
<td>빗모셈</td>
</tr>
</tbody>
</table>
필자는 기억하기 쉽게 성경 연표에 요일을 붙여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일요일이 안식일은 아니지만, 안식에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는 성경의 구분을 연상하도록 일요일A로 시작해서 일요일B로 마치도록 했습니다.

성경의 시대 구분과 함께 숙지해야 할 사항은 해당 성경과 중심 인물, 장소와 개략적인 시대입니다. 아래 연표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항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연표를 모두 암기해서 상황에 맞게 응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table>
<thead>
<tr>
<th>요일</th>
<th>일정</th>
</tr>
</thead>
<tbody>
<tr>
<td>일요일 A</td>
<td>창세기 1-11장 [아담, 예덴동산-예덴 동쪽]</td>
</tr>
<tr>
<td>월요일</td>
<td>창세기 12-50장 [아브라함, 하란-가나안-애굽]</td>
</tr>
<tr>
<td>화요일</td>
<td>출애굽기 [모세, 애굽-시내산-광야]</td>
</tr>
<tr>
<td>수요일</td>
<td>사무엘상하 [다윗, 이스라엘 땅]</td>
</tr>
<tr>
<td>목요일</td>
<td>에스라 [에스라, 바벨론-예루살렘] 중간사</td>
</tr>
<tr>
<td>금요일</td>
<td>4복음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땅]</td>
</tr>
<tr>
<td>토요일</td>
<td>사도행전 [바울, 지중해 연안]</td>
</tr>
<tr>
<td>일요일 B</td>
<td>요한계시록 [요한, 밋모섬]</td>
</tr>
<tr>
<td>시대</td>
<td>사건</td>
</tr>
<tr>
<td>------</td>
<td>------</td>
</tr>
<tr>
<td>BC.4000</td>
<td>창1-11 아담, 이덴동산</td>
</tr>
<tr>
<td>BC.2000</td>
<td>창12-50 아브라함, 가나안</td>
</tr>
<tr>
<td>BC.1500</td>
<td>출애굽기, 모세, 애굽, 광야</td>
</tr>
<tr>
<td>BC.1000</td>
<td>사무엘, 다윗, 이스라엘</td>
</tr>
<tr>
<td>BC.500</td>
<td>에스라, 에스라, 이스라엘</td>
</tr>
<tr>
<td>AD.30</td>
<td>4복음서, 예수님, 이스라엘</td>
</tr>
<tr>
<td>AD.60</td>
<td>사도행전, 바울, 지중해</td>
</tr>
<tr>
<td>AD.90</td>
<td>계시록, 요한, 빗모섬</td>
</tr>
</tbody>
</table>
성경을 인체에 비유하면 역사서는 뼈대이고, 시사/서신/예언서가 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역사서를 충분히 통독하여 성경의 역사적 전개를 숙지하고 나서 각 역사서와 병행하는 시가/서신/예언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그림은 역사서와 그에 대응하는 시가/서신/예언서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을 조금 더 세분화 한 분류표입니다.

4복음서는 각각 쓰여진 시기가 다르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시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앞부분에 배치했고, 나머지 바울서신과 일반서신은 사도행전을 기준으로해서 비슷한 시기에 연결시켰습니다.

바울서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약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다음 분류표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습장에 다음 표를 그리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암기해 봅시다.

A4 용지를 8등분하고 일요일A부터 일요일B 까지 적은 다음에 대략적 연도와 해당 성경, 중심 인물, 지명 등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 후에 아래 연표로 응용해 나가면 암기하기 쉽습니다.
<table>
<thead>
<tr>
<th>일A</th>
<th>일</th>
<th>화</th>
<th>수</th>
<th>목</th>
<th>금</th>
<th>토</th>
<th>일B</th>
</tr>
</thead>
</table>

110
2. 구속사의 기초 - (2) 구속사 약도

구속사를 공부하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서 이정표뿐만 아니라 약도도 필요합니다. 성경 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대부분 지중해 연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 지도를 기억해 두면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구속사 약도 암기법

① 먼저, 지중해는 위로 배 한 척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지중해]
② 배에는 장화가 실려 있고, 앞에 조종실이 있습니다. [로마와 헬라]
③ 배 아래로는 그물이 내려져 있습니다. [애굽의 나일강]
④ 지나가는 아이가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자 아이가 들고 있던 풍선이 병어리 장갑을 매달고 날아갑니다. [홍해와 가나안 지역]
⑤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는 고래가 두 개의 물줄기를 뻗어냅니다. [페르시아해]
✔ 구속사 약도 연습: 주변 국가
✔ 구속사 약도 연습 : 주요 지명
3. 구속사의 기초 – (3) 구속사 연결선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관점이란, 쉽게 말해서 안경과 같은 것입니다. 검은 렌즈 안경을 쓰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붉은 렌즈 안경을 쓰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관점을 갖는가에 따라서 성경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색의 자기 안경을 쓰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안경으로 바꿔 쓰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사인 것입니다.
‘자기 안경’을 벗고 ‘구속사 안경’을 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구속사 안경’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하나로 연결하는 ‘구속사 연결선’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속사 연결선’이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서로 묶어 주는 소주제들을 연결한 선을 뜻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소주제들을 연결해 가면서 읽으면, 성경의 사건들이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선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그림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하는 선이 있고, 그 선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맨 위의 선은 ‘믿음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속사 연결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W. 위어스비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워렌 W. 위어스비, 핵심 성경연구, 나침반. 16).

<table>
<thead>
<tr>
<th>창세기</th>
<th>계시록</th>
</tr>
</thead>
<tbody>
<tr>
<td>천지창조(1:1)</td>
<td>새 하늘과 새 땅(21:1)</td>
</tr>
<tr>
<td>사탄의 첫 인간공격(3:1 이하)</td>
<td>사탄의 최후 공격(20:7~10)</td>
</tr>
<tr>
<td>낮을 다스리는 태양 (1:16)</td>
<td>태양이 필요 없음(21:23)</td>
</tr>
<tr>
<td>어두움과 밤(1:5)</td>
<td>&quot;그 곳에 밤이 없음(22:5)</td>
</tr>
<tr>
<td>바다 창조됨(1:10)</td>
<td>더는 바다가 없음(21:1~2)</td>
</tr>
<tr>
<td>동산의 강(2:10~14)</td>
<td>천국의 생명강(22:1~2)</td>
</tr>
<tr>
<td>인간과 땅의 저주 (3:14~17)</td>
<td>저주가 더는 없음 (22:3)</td>
</tr>
<tr>
<td>-------------------------</td>
<td>---------------------------</td>
</tr>
<tr>
<td>낙원에서 추방된 인간 (3:24)</td>
<td>낙원으로 회복된 인간 (22:1 이하)</td>
</tr>
<tr>
<td>생명나무 금지 (3:24)</td>
<td>생명나무가 인간에게 개방됨 (22:14)</td>
</tr>
<tr>
<td>니브롯이 반역하고 바벨론을 세움 (10:8~10)</td>
<td>적 그리스도와 바벨론이 심판 받다</td>
</tr>
<tr>
<td>아담의 결혼 (2:18~23)</td>
<td>어린 양의 결혼 (19:6~9)</td>
</tr>
<tr>
<td>벼의 몰락이 약속되다 (3:15)</td>
<td>벼의 몰락이 성취되다 (20:10)</td>
</tr>
</tbody>
</table>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전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소주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선들을 구속사 연결선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주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유기
적으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맥은 이러한 여러 가닥의 구속사 연결선(앞으로 ‘구속선’이라 부름)들이 모인 것을 가리킵니다. 즉, 실을 여러 가닥 엮은 것을 동아줄이라 부르는 것처럼 여러 가닥의 구속선들이 모인 것을 구속사의 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여러 가닥의 구속선이 모두 예수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속선들로 이루어진 구속사의 맥 또한 성경을 읽는 독자를 예수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구속선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1-3장과 요한계시록 20-22장 중에서 공통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네, 그 이유는 구속선
이 하나님의 경륜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선을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성경을 문맥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경을 의미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 단어 중심 해석입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은 단어가 아니라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의 그림이 단어는 다르지만, 문맥을 읽어보면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구속사의 맥을 이루는 주요한 구속선들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한 구속선을 찾아 정리하면,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속사 연결선은 악보의 5선처럼 하나님의 구속사에 질서와 연속성을 부여하면서 다양한 인물, 사건, 비유,
상징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책으로 조직화하게 됩니다.

주요한 구속사 연결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 녹은 그의 발PointF치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고(창3:15)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창2:17; 호6:7 행위연약)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애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창2:7)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창1:28)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무 먹는 날에는 빗수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2:17; 호6:7)

에서복 20-22장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예21:7)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북이 있으리라(예22:7)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꼭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예21:22)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예21:1)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들어가리라 (예22:17)
기독교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 창세기 3:15에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주로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방법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구약시대에는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할 만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신교적 문화에 젖어 있었던 시대

127
요일 때문에 삼위일체를 다신교로 오해할 여지가 많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치시는데 주력하셨던 것입니다(계할더스 보스, 성경신학,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06). 둘째, 그럼에도 나중에 삼위일체를 계시하셨을 때, 구약에서 삼위일체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자’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현대처럼 책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믿음 교육을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할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사람, 결혼, 성전, 땅, 법률 등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관습을 통해서 삶으로 교육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필자는 그것을 구속사의 5선이라는 이름으로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속선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개념은 사람 이 한학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 보자의 대속’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보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구속선입니다. 이 구속선을 잘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 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유는 구속선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 성 경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또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인도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삶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한 구속선 5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선은 후손입니다. 성경은 곧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속사에서는 이 ‘후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속사의 나머지 선들도 이 ‘믿음의 후손’을 보조해 주는 역할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후손’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언약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멸망시키고 인류를 구원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인류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한국어로는 구원자)이고, 이 ‘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인류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두 계보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믿은 아벨의 계보와 믿지 않은 가인의 계보가 그것입니다. 성경은 아벨과 아벨의 뒤를 이은 셋의 계보를 추적하면서 그 계보의 절정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끝어질 듯 끝어지지 않고,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연결하는 첫 번째 연결선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 후손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지낸 것을 볼니
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단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단을 거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대속'이라는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기에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는 않지만, 우리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하는 '피의 희생 제사'를 올려 한다고 가르쳤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아담은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가죽옷은 다른 잼승의 죽음을 통해서만 수치가 온전히 가려진다는 의미로 대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양으로 대속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 임의대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납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벨은 믿음의 후손이고, 가인은 불신의 후손입니다. 아
벨과 가인이 모두 아담의 혈통이지만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의 계보와 불신의 계보로 나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되자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십니다.

셋 이후의 족보 또한 마찬가지로 혈통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라서 계보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후손이십니다. 또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음의 후손이 됩니다.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후손들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믿음의 후손이 누구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언약을
누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믿음의 후손이 되는가를 숨죽이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

두 번째 선은 언약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은 인격적인 존재가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했던 사람이라도 갑자기 사라지거나 멀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 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을 맺어 놓았다면 그 계약에 의해서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결혼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변하는 상황과 관계없이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S.G. De. 그라이프, 약속 그리고 구원1, 크리스찬서적. 1993. 25-29, 39-42).
둘째는 언약의 성취를 통해서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나 있습니다. 경륜은, 다른 말로 장기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는 인간들이 믿음을 갖도록 유도하신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 언약의 핵심은 오직 한 가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언약은 그리스도께 연결된 빗줄과 같아서 언약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초기 언약이 그리스도에 대해 너무 희미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성경신학자 제할더스 보스는 그렇지 않다고 단언합니다. 제할더스 보스는 구원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지만 그렇다고해서 처음의 언약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씨앗과 같아서, 초기 언약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이미 완전한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미 최초의 언약인 ‘여자의 후손’언약도 이미 완전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영적 실태(예수 그리스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 언약을 믿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열왕기와 역대기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북왕국이 아무리 변영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륜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느 나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다윗 언약이 함께하는 남왕국일 것입니다. 성경도 남왕국의 이야기를 서술해 갑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가는 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의 원형은 에덴동산과 창세기 3장21의 ‘가죽옷’ 제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덴동산은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던 장소였고, 가죽옷은 이후 아벨의 제사로 연결되면서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이자 방법, 통로를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가장 잘 알려주는 최고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매우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
전을 구성하는 요소들인 제물과 제사장,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전 배치 등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리게 되며, 성전에 대한 계시가 발전할 때 구속사도 전진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중심입니다. 민수기에 잘 나타난 것처럼 군대로 비유하면, 성전은 전략이 수립되고 명령이 내려지는 작전본부(헤드쿼터)입니다. 한 부대가 본부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때 잘 훈련된 부대라 할 수 있고, 작전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구약의 각 시대의 신앙 수준과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성전 제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들을 통해서 말라기 시대의 영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 밖에 없는 시대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한 시대를 평가할 때, 성전을 어떻게 여겼는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업, 즉 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가나안 땅이 중보적 의미를 갖는 ‘기업’으로 표현됩니다. 가나안 땅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땅의 중보적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났을 때, 아내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유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도록 설명하는 도구입니다.
기업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이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곧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일생 동안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투가 나옵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이 선택된 이유는 문명이 교차하는 지리적인 이유와 더불어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 이전에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땅에 구원의 싸움을 심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부
활의 구원을 주신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께서 주신 사명을 얼마나 이루 는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믿음과 믿음을 통 한 성취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계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계명도 중보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은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가의 여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명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계명은 ‘결혼 계명’입니다. 결혼 계명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비유가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은 결혼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계명이 갖는 독특한 역할이 있는 데,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역할입니다. 계명은 그것을 진지하게 지키려고 할 때, 오히려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의 노예 된 상태'를 폭로하여 죄의 각성을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로써 궁극적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율법과 동시에 성막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통해서 죄를 깨달은 사람이 성막으로 인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케 하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또 각 시대에 계명이 지켜지는 지 여부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속선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속선 요약

» 믿음의 후손은 누구인가?

∞ 믿음의 후손이 무엇을 믿었는가?

■ 믿음의 후손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 믿음의 후손의 사명은 무엇인가?

◇ 믿음의 후손이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인가?

*4가지가 있어야 믿음의 후손이다!
구속선 암기하기

구속사의 5선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개념들이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손가락 암기법으로 암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엽지는 가장 중요한 후손.

 검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키는 언약.

 중지는 하늘 가까이 쏟은 높은 성전.

 약지는 성전 아래 있는 땅인 기업.

 소지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계명.
✔ 구속선 적용

구속선을 활용해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해석 : 유다와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에게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윤리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최초의 여인이 됩니다.

성경을 교훈적 혹은 윤리적으로 해석해 왔다면, 창세기 38장에서 논리적인 파탄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말의 이야기는 교훈적 혹은 윤리적으로 칭찬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받고, 아브라함의 실수는 본받지 말자고 해석했다고 합니다. 이런 설명이 창세기 38장에서는 통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
말의 행동을 칭찬하자니 비윤리적인 내용이고 비난하자니 다말에 대한 성경의 높은 평가를 반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말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죽보에 오르수 있다는 교훈을 이끌어 낼고 써,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자 하지만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해석방법에서 이끌어낸 명쾌한 답반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윤리적 혹은 교훈적 해석은 성경 전체를 일관되게 해석하는 해석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은 윤리와 교훈을 뛰어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영적 진리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구속사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구속사적으로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구속사 5선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째, 후손은 누구인가? 야곱 이후로 믿음의 후손은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자권은 유다가 계승하였습니다. 장자인 르우벤은 서모와의 간음 때문에,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잔인한 행동 때문에 장자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보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막중한 위치에서 있었습니다.

둘째, 언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있었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권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유다의 자손으로 오셔야 할 상황입니다.
셋째, 성전은 어떠한가? 족장시대에 성전은 개인적인 제단의 형태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미약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기업은 무엇인가? 이 시기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의 무덤만을 기업으로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다섯째, 계명은 무엇인가? 아직 율법이 수여되기 전으로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었던 시대임을 알 수 있습니 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유다(야곱 가문의 장자권을 물려받았으나 계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할례언약(여자의 후손 언약의 징표)</td>
</tr>
<tr>
<td>성전</td>
<td>제단(하나님 나라가 미약함)</td>
</tr>
<tr>
<td>기업</td>
<td>가나안 땅(헤브론에 무덤을 확보한 상태)</td>
</tr>
<tr>
<td>계명</td>
<td>결혼(믿음의 후손 정체성 보존이 필요한 상태)</td>
</tr>
</tbody>
</table>

이제 구속선을 따라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미약한 시기였고, 믿음의 계보 또한 가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유다는 장자권을 물려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이 될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 스스로는 그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아들 엘과 둘째 아들 오난이 죽은 이후에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셀라가 죽게 될 경우 구속사의 맥이 끊어지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과도한 염려가 아닙니다. 가인 이 아벨을 죽인 예와 아달라가 다윗의 대를 끊으려고 한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 항상 구속사의 맥을 끊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는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구속사의 비상 상황에서 다말은 자신의 평판과 목숨
가지도 내어놓고 자손을 잇는 행동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유다의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인간 윤리적으로는 잘못된 행동임이 분명하지만, 성경이 다말을 예수님의 족보에 굳이 기록한 것을 볼 때, 다말의 행동 동기가 믿음에 의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다보다 다말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하나님 언약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말이 믿지 않았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큰 모험이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말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했지만 용서받은 이유는, 그것이 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죄하는 능력이 무한히 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후손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중요성과 정결케 하는 능력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다말의 이름을 굳이 기록한 이유는, 다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다말의 희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수천년 후에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동을 가슴 속에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응용) 예수님 족보에 있는 또 다른 여인 밋세바를 구속선을 활용해서 해석해 보시다.
사사기의 이해

이번에는 개별 인물이 아니라 사사기 전체를 구속선을 따라 해석하는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체크 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첫째, 사사기 시대의 후손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공동체, 즉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입니 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사들이 믿음을 계승한 상태입니다.

둘째, 사사기 시대의 언약은 무엇인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셋째, 사사기 시대에 성전은 어떠했는가? 성전(성막)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심점을 잃어 위태로웠으며, 단합된 지휘체계를 갖지 못해 무기력했습니다.
넷째, 사사기 시대에 기업은 무엇인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우상은 무너뜨려서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사사기 시대의 계명은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성막입니다. 특히 율법에서는 가나안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문화적인 교류 또한 단절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상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 공동체, 그 중에서도 사사들이 중심이 됨</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시내산언약(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td>
</tr>
<tr>
<td>성전</td>
<td>성막(성막에 대한 언급이 없이 방치된 상태, 하나님 나라의 구심점이 없음)</td>
</tr>
<tr>
<td>기업</td>
<td>가나안 땅(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상태)</td>
</tr>
<tr>
<td>계명</td>
<td>율법(가나안 민족과 결혼 및 교류 금지)과 성막</td>
</tr>
</tbody>
</table>
구속선을 중심으로 사사기 시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기업을 정복함으로써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주어진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 시대 믿음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은 채 남겨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사사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땅을 부분적으로 차지했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히11장). 그러나, 그들도 구속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언약은 성취되지 않았고, 성전은 방치되었으며, 기업은 차지하지 못했고,
계명을 지키지 않아 죄와 대적의 노예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사기 시대는 불신의 시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었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었으며, 하나님의께서 예비하신 중보자를 의 미하는 역할을 하게 된 땅입니다. 또한 장차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할 성전이 세워져야 할 땅이었습니다.

비록, 사사들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큰 능력을 주시어 적을 물리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계시되었지만, 언약에 무지하고 성전을 방치
한 시대였기 때문에 구속사적으로 암울한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용) 말라기 시대를 구속선을 활용해서 평가해 보시다.
4. 구속사의 기초 – (4) 구속의 단계

구속사를 공부해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단계적으로 가르쳐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믿음은 사람에게 전달받는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맥을 통해 신자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는데, 그 인도하심의 과정에는 일정한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구속사의 맥에 강세를 주는 음표와 같습니다. 도도한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큰 소리로 천둥
을 올리듯이 외치시는 음성이 있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시19:3)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것처럼 온 땅과 세상 끝까지 귀 있는 자들에게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이러한 단계를 ‘구원의 서정(순서)’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성경적인 구원,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영적 체험을 분별하는 기준이 바로 ‘구원의 서정(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체험은 대략적으로 이 ‘구원의 서정(순서)’과 대응하여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15장에서는 ‘의’로 인정받는 ‘믿음’을 얻게 되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색의 번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중간중간에 성장점을 통과하면서 한 단계씩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신앙 성장과정이 로마서에도 비슷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신자의 신앙 성장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 과정과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의 신앙 성장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일대기적으로 설명되고, 로마서의 신앙 성장이 논리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만 다를 뿐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의 부르심의 단계는 구속사의 전개에서는 시간 순서로 배열되어 있고, 신약 성경 로마서에서는 논리 순서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 설명 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로마서 1~8장에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이 앞에서 의로워지고 성령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는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단어는 엄밀한 개념을 가진 신학 용어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자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체험하는 단계라는 의미에서 ‘구속의 5단계’라고 이름 붙이고자 합니다. 또한,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구속의 5음’이라는 별명도 사용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과정이 5단계만 있는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얼마나든지 다른 구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듭니다. 실제로, 개혁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구원의 서정’에 관해서 주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흐름만 일치할 뿐입니다. 필자는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도, 칼빈과 청교도들처럼 다소 느슨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둡니다.

참고로, ‘구속의 단계’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고안한 개념이 아니라 존 오웬, 존 번연을 위시한 많은 청교도들이 강조한 ‘죄와 심판
의 각성’ 개념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단계적 은총’ 개념에서 빌려와 응용한 것입니다.

천로역정에 잘 나타나 있는 청교도의 회심 개념은 한 마디로 ‘죄와 심판의 각성에서 시작해서 십자가 죽음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면 죄의 각성이 일어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까닭음이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고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방편들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전에 순종하면서 깨달은 믿음을 간구하게 됩니다.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투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흔연히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십자가 연합을 체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홍만, 52주 스티디 천로역정, 생명의 말씀씀사). 청교도들이 생각했던 신앙생활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든 만사 행통을 위해서든 교회에 나가면 신앙 생활을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의 신앙 개념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은 죄와 심판의 각성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시작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힘써 순종하며 나아가야 참된 믿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회심의 체험
존 번연

크리스찬: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에게 역사하신 이후에도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망 :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깨우침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의 회심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육신은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저는 죄악에서 벗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에게 이별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행동하는 것이 저에게 만족을 주었습니다.

질책의 시간은 저에게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은 죄악들을기억할 때 질책의 고통들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중략-

소망 : 아닙니다. 죄의식이 더욱 빠르게 제 양심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로 돌아갈 생각이라도 한다면 저에게 고통
은 배나 더했습니다.

크리스찬 : 그러면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망 : 제 삶을 고치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저주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 김홍만, 52주 스터디 천로역경, 생명의말씀사. 301-302
✓ 구속의 5단계 설명

그리스도를 체험하도록 인도하는 신앙 체험의 단계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의 5단계 구분은 임의적인 구분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흐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각성 : 사망

오늘날 교회 현실은 ‘잘못된 복음주의’(‘복음 주의’와 다른)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만 초점을 맞춘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가 우리 나라의 복음화에 큰 성과를 거두었고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한계와 부작용 또한 명확합니다. 예수님 영접을 통한 전도는 본의와 다르게 “구원이 인간의 결단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의 무조건 구원을 주실 수 밖에 없다”는 오해를 주입시킵니다. 시작부터 신앙이 인본주의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 인본주의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청교도를 비롯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며, 그 첫 단계는 죄의...
각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표적 청교도 중의 한 명인 존 번연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존 번연이 쓴 천로역정은 신자의 신앙 여정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역작으로 손꼽힙니다. 천로역정을 동화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천로역정은 교리적 가르침으로 가득 찬 청교도 교리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천로역정의 첫 장 제목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죄인’(김홍만, 52주 스티디 천로역정, 생명의말씀사)입니다. 그리고, 부제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입니다.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가 아니라 ‘죄의 각성’이 신앙생활의 첫 단계이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각성’이란,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를 의미합니다. 외적인 촉구가 있어야 하겠지만 각성이 절대적으로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의 특징은 선한 양심과 영적 감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각성이 일어난 사람은 자신의 내적 부패상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생겼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 된 본성에 깊이 절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낳다는 상대적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에 몸부림 치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면에서부터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강력하게 흘러나와서 죄악 된 삶을 혐오하고 벗어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또한,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서 선악을 분별 하게 해 줍니다. 선한 양심이 없어도 구원 받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양심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을 지킬 수 없고, 선한 양심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각성이 신앙 생활의 첫 단계고, 이 첫 단계에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쉽게 전하고, 쉽게 구원을 선포하는 인본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구원은 어떤 개인이 임의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상품이 결코 아닙니다. 죄의 각성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자는 것은 면죄부를 남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지 않는 구원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확산될수록 참된 구원과 복음의 영광은 가리워질 수 밖에 없습니
다. 인본주의는 넓은 길이고, 복음을 왜곡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천로역정(김홍만, 52주 스타디 천로역정, 생명의말씀사)의 첫 장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참된 죄의 각성이 곧바로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합니다. 죄의 각성과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게 되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반항적인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연인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하거나 스스로 구원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천로역정에서 이른 선택을 ‘세상-지혜자’라는 인물이 제시하는 쉬운 길을 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쉬운 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바

181
룬 구원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안식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부름 받은 신자는 정직하게 자신이 하나님
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
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아무런 변명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상대적인 의로
움을 주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죄의 각성
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적인 죄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에 승복할 수 없다면,
다시 죄의 각성을 위해서기도해야 합니다.
기초를 틀린히 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은 부
실 공사를 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에 승복한 사람의 특징은 현재 삶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로의 삶으로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삶에서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을 향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원한 형벌이라는 생생한 미래를 직시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찾는 여행을 떠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각성되고, 심판의 정당성에 승복한 사람은 그 다음 단계인 ‘구원에의 열망’으로 인도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신자는 시련을 통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소중함을 알려주시고, 참으로 구원을 열망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합니다.

구원을 열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시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야 말겠다는 확실한 고백이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 신자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 쉬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열망한다는 중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시는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했기에 세상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도록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 있는 신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망할 때까지 인위적인 위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 단계는 시련이라는 풀무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거되고, 믿음이 정금같이 정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영적 조울증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깨달아 져서 그분을 열망하다가도 세상의 쾌락과 죄의 유혹에 넘어져 참담한 감정 속에서 고뇌하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중에 각인하면서 이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압복강에서 천사와 싸움하듯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신자는 전진하는데, 이 때 야곱처럼 중생(마틴 로이드 존스, 구약을
사용한 복음 설교, 생명의 말씀사 참고)을 체험하게 됩니다.
십자가 연합 : 십자가

신앙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서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항복하고, 그분의 겸손,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십자가 연합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힘이 없어서 고개 숙이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고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중심으로부터 굴복하고 그분을 주인과 구원자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죽음을 통한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개성을 말살시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자연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거역과 반항의 기질, 부패를 유발하는 죄의 근원을 뿌리 뿌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체험하기까지 우리는 믿음의 순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순종 : 성령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신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신자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안에서부터 변화를 주도하시고, 신자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즉, 성령님은 신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신자를 다듬어 가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법칙을 초월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다양한 기사와 이적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기대하고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일을 무조건 성령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영을 분별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혜롭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구속의 5단계 정리

다음은 구속의 5단계를 요약하고, 암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속의 5단계 요약

사망 : 죄의 각성, 선한 양심이 회복되는 단계

심판 : 심판의 정당성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단계

신앙 : 시련을 감수하고 구원을 추구하는 단계

십자가 :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단계

성령 : 겸손, 지혜, 능력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단계
구속의 5단계 암기하기

구속사의 5단계는 구속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고, 특히 예언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할 개념이기 때문에 암기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방법을 활용해서 암기하도록 합시다.

사망은 가장 미약한 시작 단계라서 소지.

심판은 두 번째 단계라서 약지.

신앙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단계라서 중지

첩자가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단계라서 검지.
성령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서 엄지.

구속사의 5선은 왼손을 사용했고, 엄지부터 소지 순서로 내려갔기 때문에 구속사의 5음은 반대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소지부터 엄지 순으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용어는 암기의 편의를 위해서 ‘ㅅ’이 들어간 단어로 배열했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예수님은 희생의 어린 양입니다.
레위기에서 예수님은 제물이자 제사장입니다.
민수기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며 하늘로부터 온 만나입니다.
신명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약속의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군대의 대장입니다.
사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구원자입니다.
룻기에서 예수님은 우리 기업을 무르시는 친족입니다.
사무엘과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에스라에서 예수님은 포로 되었던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시는 지도자이십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예수님은 성벽 건축가입니다.

에스더서에서 예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 백성들을
을 지켜주는 보호자입니다.

욥기에서 예수님은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시편에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잠언에서 예수님은 지혜로 훈계하시는 분입니다.
전도서에서 예수님은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필
요한 분입니다.

아가서에서 예수님은 심령의 갈망을 만족시키시는 분
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의 예언서에서 예수님은 장
차 오실 왕, 하나님의 종, 인간의 아들, 하나님의 아
들로서의 네 가지 성품을 가진 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약속된 왕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의 아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종들의 주인자 중인들 이야기의 주체가 되십니다.
로마서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의 의로움이십니다.
고린도서에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예수님은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생명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의 모범입니다.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서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복된 소망입니다.
디모데전서는 통치가 예수님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교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디도서는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빌레몬서에서 예수님은 죄의 전가(轉嫁) 교리(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을 그의 아들에게 돌렸다는 가르침)의 예증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더 나은 길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예수님은 더 나은 생명과 사랑과 자유의 새로운 율법입니다.

베드로서에서 예수님은 제사장 나라의 중심입니다.

요한일이삼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빛과 생명이요, 사관의 대상입니다.

유다서에서 예수님은 힘써 주장해야 할 믿음의 본체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장차 오실 충만한 영광입니다.

– B. B. Sutcliffe, 망원경을 통해 본 성경(성경 파노라마, 규정. 206~207 재인용)
부. 기둥 세우기

3월 1일로

199
시대를 구분할 때 읽는 성경: 창출삼라 복행계,

줄거리의 이해하려고 할 때 읽는 성경: 창출민수삿삼왕 대라느 복행계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거역하여 사망의 길로 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치러 그 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의 주제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고, 신약 27권의 주제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믿음의 후손들의 이어달리기 시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후손’이 ‘믿음’이라는 바통을 들고 달려가다가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제에 따라 읽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자에 해당하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누구인지지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축보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누구인지,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특징으로는 믿음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들을 먼저 언급한 뒤에 믿음의 후
손의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개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바통에 해당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믿음의 후손인 이유는 그가 믿음을 갖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믿음의 내용은 그가 어떤 방법으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은 주로 구속사의 5선(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믿음의 후손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그 믿음의 후손의 삶에 대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가 어떤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분투하고 고민했으며 어떤 믿음이라는 바통을 전달받고 지켰으며 전수했는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러는 가운데 내가 믿음의 바통을 전달받는 믿음의 주자가 되기를기도해야 합니다. 구 속사라는 ‘믿음의 이어달리기’를 공부하면서 주자와 바통에 주목한다면 성경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장에서 소개할 내용들은 이런 개념을 전제로 하여 성경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구속사적 성경해석의 원리

구속사적 성경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를 소개합니다.

교리적 해석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보수적인 개혁주의 교리에 입각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서 바른 교리가 세워지도록 섭리해 오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연역적 해석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분을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전제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연역적 해석방법입니다.
귀납적 해석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전제적으로는 연역적 해석을 취하지만, 문맥 안에서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는 귀납적인 해석 방법도 사용합니다.

문맥적 해석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단어보다 문맥을 중요 시합니다. 단어의 개별적인 의미보다는 문맥 가운데서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의미와 개념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을 더 중요시합니다.

유기적 해석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성경 각 권이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영 감과 사상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일치하며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유기적으로 해석합니다.

통전적 해석

구속사적 성경해석은 성경이 66권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 한 권의 책이라 간주하고 통전적으로 해석합니다.
1. 구속사의 일요일 A : 창세기 1

[한줄 요약] 아담이 안식을 깨뜨렸으나, 그리스도 언약을 받는다.

[핵심 질문] 세상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아담의 계약 위반
**창세기 1~11장 구속사 도표**

<table>
<thead>
<tr>
<th>BC. 4000년</th>
<th>창1-11장</th>
<th>아담</th>
<th>에덴동산</th>
</tr>
</thead>
<tbody>
<tr>
<td>아담 → 아벨/셋 → 예녹 → 노아 → 셰만</td>
<td>행위언약(창 2:17) → ‘여자의 후손’ 언약(창 3:15)</td>
<td>에덴동산 → 피의 제사</td>
<td>에덴동산 → 가나안</td>
</tr>
<tr>
<td>선약과 → 믿음(피의 제사)</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창세기 1~11장 장별 약도
창세기는 BC. 4000년 경의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11장까지로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천지 창조(1~2장), 인간 타락(3장), 노아 홍수(6~9장), 바벨탑 사건(11장) 등 4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12~50장까지로 아브라함, 아삭, 야곱, 요셉 등 4명의 인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1장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은 ‘문제와 해결’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과 그 해결방
법을 제시합니다. 즉, 모든 인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가난, 질병, 미움, 그리고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지를 알려주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은 이러한 ‘문제와 해결’에 관한 간략한 소개이고, 4~11장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인간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거역한 죄 때문이고, 해결책은 ‘여자의 후손’을 믿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4~11장은 가인과 아벨/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에 대한 인간의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듯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자기 숭배에 도취될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11장을 읽으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에 공감한다면, 왜 그 해결책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일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그 분을 믿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처럼 문제투성이가 된 이유를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문제와 해결, 치료법까지 제시된 장이며 성경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장입니다.
문제의 시작 :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에서 문제의 시작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 제도 선악과를 주어 먹게 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지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였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자연(물질 세상)이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자연(물질 세상)을 다스려야 할 존재가 필요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가 이렇게 특별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세상을 다스려야할 ‘대리통치자’가 사탄의 지시를 받는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사탄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 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아담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인류가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원본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야 할 후세들이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서 영혼과 육신이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돌아와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왜 큰 문제인지지를 정리해 보면, 첫째, 창조 세상 전체를 사탄의 지배에 넘기
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죄에 오염되어 되었습니다. 셋째, 사람이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안식이 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
d.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
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무엇인가를 더 보
殿堂 없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할 일이 없으셔서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이라
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보殿堂 것이 없는 상
태를 의미합니다. 안식의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이후부터 하나님
께서는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안식
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안식일’과
‘안식년’, ‘희년’이라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
하심으로써 거듭 확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해결 : 중보자 ‘여자의 후손’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는 즉시로 회복의 방편을 알려주십니다. 하
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 회복의 방법은 ‘여
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
손’이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인류를 죄의 오
염에서 쫓아주시고, 세상을 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하시며, 죽음을 멸하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창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
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
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구원자(한국어) = 메시아(히브리어) = 그리
스도(헬라어’)는 다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빠와 파더(father)가 같은 말인 것과 독
같습니다. 하지만, 필자는 ‘그리스도’라는 용어
를 주로 사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라는 단어가 ‘구원자’나 ‘메시아’보다 ‘예수 그
리스도’를 바로 연상하게끔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름붙이신 이유는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즉, 남자의 후손 입니다. 여자마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일종의 복제인간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형상을 닮아 태어나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이라는 한 사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아담이 깨뜨린 안식
을 대신 회복하셔야 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사탄에게 넘어 준 세상의 통치권을 되찾아 오셔야 하고, 인류의 근본적인 오염 상태를 정화하셔야 하며, 사망을 멈혀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큰 능력을 가지고 타락 전 아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셔야만 하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은 분이셔야 합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분이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관련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중보자’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결국, ‘중보자들을 통한 구원’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사탄을 멈하시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보자’ 역할을 하
게 됩니다. 이 중보자는 구속사를 꿰뚫는 핵심 개념이며, 구속사의 맥은 곧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후손: 그리스도를 믿은 아담

아담은 하나님의 해결책을 이해했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이 타락 이후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지은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사망이 세상에 들어오도록 원인을 제공한 ‘사망의 어머니’ 하와에게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여 준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따라서, 이 이름은 아담이 여자를 통해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고백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창 3:20]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옵나졌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을 죽어야만 합니다. 다른 존재의 희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이 가려진다는 ‘대속’의 의미가 내포된 가르침입니다.

[창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엎어 치마로 삼았더라

[창 3: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자체만을 볼 때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양으로 희생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만이 ‘믿음의 제사’로 인정받은 사실과 연관해서 생각하면 비약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3장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최초의 별명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후에는 다양한 별명이 붙여지지만, 그 다양한 별명이 가리키는 분은 오직 한 분의 중보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표현을 막연히 신념 혹은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히 11:1~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2장 2절에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믿음의 실상, 믿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입니다. 표현은 다양하지만, 믿음에 대한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새번역성경에서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히 12: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새번역)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에서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히 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또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다윗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렇듯 구약 시대의 사
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지 주의할 점은 믿음이, 단순히 사실에 대한 인정이나 이해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체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통해서 자세하게 계시됩니다.
언약 : 행위언약, 은혜언약, 보존언약


‘행위 언약’과 ‘여자의 후손 언약’에 대해서는 단어적으로는 명확하게 언약이라고 나와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맥적 의미적 종합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이것이 언약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행위 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행위언약’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를 먹은 이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이 아담의 통치권을 유지시켜주는 계약의 조건
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가가 아담이 언약을 여겼다고 중언하는 데 이것이 언약이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호 6:7).

다음으로 ‘여자의 후손 언약(은혜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은 뱀에게 선고하신 심판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적대적 관계와 여자의 후손에 의한 사탄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은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과의 언약에서 후손(씨)에 대한 언약이 일관되게 반복된다는 점에서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에게 주신 ‘보존언약(무지개언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홍수 심판은 아벨/셋 계보가 급속하게 오염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께서 비상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노아는 셋의 계보에 속한 자로서 믿음의 계승자였지만, 노아의 시대에 믿음의 후손들(하나님의 아들들)은 급속하게 믿음을 버리고 타락해 갔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믿음의 후손들이 타락해서 노아와 그 자손들마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는데 그것이 대홍수 심판의 배경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근본적으로 심판이라기보다는 ‘믿음의 후손’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비상 개입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지개를 매개로한 보존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존 언약은 ‘여자의 후손’ 언약의 보조적인 언약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기까지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경륜(장기계획)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께서는 ‘믿음의 후손’이 위기에 처할 때에는 비상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비상 개입 사건은 노아 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이후 믿음의 후손들의 삶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노아의 자손 중에서는 셰미 믿음을 계승하여 이어갑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할 부분은 노아에게 범죄한 것은 함이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싸움이 ‘후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전쟁은 궁극적으로 어떤 ‘후손’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판가름납니다. 믿음의 후손을 남기느냐, 아니면 불신의 후손을 남기느냐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함은 가나안이라는 불신의 후손을 남김으로
서 그 삶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셉과 같은 믿음의 후손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창세기 3장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언약’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언약’을 가리키며, 이 언약의 보조적으로 등장하는 언약들이 나옵니다. 노 아와 맺은 언약은 이러한 보조적인 언약 중의 하나로써, 구원 사역이 완성하기까지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성전 : 가죽옷과 피의 제사

아담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자녀들에게 전달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라는 의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영적으로 사망한) 인간이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되는 방법은 오직 ‘여자의 후손(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제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죽옷’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만
한다는 진리가 가인과 아벨에게도 가르쳐졌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갔고, 열납되지 못했으나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열납되는 제사를 드립니다.

[창 4:3-5]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 우리는 가인이 농사짓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곡식’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가졌기에 ‘양’으로 제물을 드린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가인의 행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거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통해 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열납되지 못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히 11:3]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중언하신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성경이 아벨을 믿음의 사라이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가 ‘양과 그 기름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원을 믿는 믿음을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바르게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그것은 믿음이
라,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바르게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지식을 바르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대속 사역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바르게 표현해야 믿음입니다. 신약 시대의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 이름’ 속에 포함된 이러한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야만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벨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셋이 단순히 또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벨을 대신해 아담
의 믿음을 물려받은 아들이라는 사실은 다음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4:25~26]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 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그 아들 에노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구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믿음의 후손들이 비로소 태어났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담의 믿음은 셋의 계보를 통해 계승됩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표현과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표현에서 셋이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대신하는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에게 그리스도 언약을 물려받은 2대째인 가인과 아벨/셋의 대에서부터 믿음과 불신의 계보가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구약시대는 율법, 신약시대는 믿음이 아니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셋의 계보 가운데 소개된 예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믿음의 제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즉,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

240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녹의 사건 이 셋의 족보를 소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 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건들 속에 숨어있는 구속의 선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 바벨탑과 가나안

성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마지막으로 가인 계열의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한 서술을 마칩니다. 인류는 사탄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애쓰는 ‘자기 숭배 사업’에 몰두합니다. 바벨탑은 불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대항하고 자기 숭배에 집착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악의 무리가 독세하는 것을 막으시면서 구원받을 무리들이 모두 구원받기까지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역사관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악된 인간이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곧 사탄의 도구가 강력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인간이 과도한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언어
를 혼란시켜 그들을 흩으십시오. 세상이 악에 압도되지 않고, 점진적으로나마 정의와 평화, 평등, 민주화 되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키서 악의 권력화를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를 바벨탑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셈 족보를 따라 데라와 아브람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추적합니다. 성경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의 후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인 데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맡습니다. 그가 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후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컨대 하나님의께서 그를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 땅에 주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왕국에서 살아가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요? 가나안 땅이 선택된 이유는 그 땅이 죄악으로 가득차 심판받아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이전에 치료자요 구원자이십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진노의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믿음의 후손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죄인이 죽어야 할 진노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가나안 땅은 중보적 기능을 갖는 장소가 됩니다. 에덴동산이 아담과 하나님의 교제 장소였던 것
처럼 이제 가나안 땅이 그 역할을 계승하게 된 것이므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이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은 불신의 행동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지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의 신자들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계명 : 결혼과 믿음의 계승

믿음의 세계에서 ‘계명’이 갖는 의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중보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중보자에게로 이끌기 위함인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은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신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최고의 비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이미 결혼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결혼으
로 인해 이루어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비유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 ‘결혼’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에 대해 살펴볼 때 출애굽기에 서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이 명확해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결혼 계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며, 율법에서도 중요한 계명 중의 하나가 결혼 계명입니다.

그러나, ‘기업’과는 반대로 ‘계명’은 주로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이 죄의 노예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중보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바리 새인처럼 ‘자기 의’에 갇혀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계명’은 죄를 드러내고, 죄의 각성을 촉구하며, 죄인을 구원할 구원자를 간절하게 찾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한 내용이 결혼 계명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표현은 믿음의 계보와 불신의 계보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셋의 후손들이 급격하게 믿음을 저버리고,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불신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육신’이 되고 말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성전, 기업으로 표현한 영적 진리를 지켜야 영적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은 전인적적인 결합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육신적인 욕심을 따라 결혼할 때, 영적인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특히 반대했던 이유는 그러한 결혼이 영적으로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장 잘못한 것은 ‘계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점입니다. ‘계명’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항상 중보자에게로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제사로 나아갔다면 육신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대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로 나아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아벨의 제사를 계승한 믿음의 후손이었기에 구원받았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11장 구속사 장별 개관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각 성경 별 구체적인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지면의 한계로 인해서 다른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필자의 각 ‘성경별 구속사 성경해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장 천지창조와 대리통치자 사람


구속선

사람은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존재로 지금 받았습니다(1:26~30).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통치자의 권세도 받았습니다.
2장 에덴 동산의 아담과 여자

1. 안식하심 4. 천지창조, 인간(J) 8. 에덴동산 창설(생명, 선악, 비손, 기혼, 하나님의, 유브라데) 16. 금단의 열매 - 선악과 18. 아담이 만물을 명명 21. 배우자 창조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통해 관계를 맺는 분이시며 그 계약에 철저한 분이시라는 전체를 갖고 해석해야 합니다. 사람이 창조세상의 대리통치자로 세워졌기에 많은 특권을 받았지만, 그에 따른 계약조건이 선악과 금지라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3장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1. 사단의 유혹 6. 인간의 범죄 8. 하나님의 심문 14. 뱀에 대한 징벌 16. 여자에 대한 징벌 17. 아담에 대한 징벌과 은총(가죽옷) 22. 에덴에서 추방

구속선

인간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가죽옷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그리스도 언약’이었습니다.
4장 두 가지 제사(1-15)와 두 가지 계보 (16-26)

1.가인과 아벨의 출생과 제사 6.가인의 성품과 살인 9.하나님의 징벌과 은혜 16.에녹성과 가인의 후예들 25.셋 계통의 자손

구속선

5장 아담/셋의 후손들


구속선

셋의 계보는 ‘그리스도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에녹 또한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천한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누릴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6장 홍수 심판 사건

1.인류의 죄악 6.하나님의 한탄과 심판 계획
8.노아를선택 13.방주 축조 지시.

구속선

홍수 심판은 살인한 가인의 모든 자손이 멸망하게 되고, 경건한 셋의 자손만 지구상에 남게 된다는 최후 심판에 대한 예표입니다. 한편, 방주는 죄악으로 멸망해야 할 사람들 을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7장 홍수 - 노아의 준행(1-5)과 홍수(6-24).

1.방주로 들어갈 것을 지시 6.방주로 들어감 10.홍수시작과 보고 17.홍수심판

구속선

정결한 짐승을 일곱씩 넣은 것은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믿음을 간직한 후손을 보존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신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장 물이 줄어듬(1-5), 그 결과(6-19), 노아의 제사(20-22).

1.물을 감하심 6.지면에 머문 방주(까마귀, 비둘기) 13.방주에서 내림 20.제사

구속선

노아의 제사를 통해서 그가 구원받은 이유가 ‘여자의 후손/가죽옷 언약’을 계승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는 전과 같이 생물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를 약속해 주신(21) 부분에서 구원받을 믿음의 후손이 모두 구원받을 때까지 종말이 오지 않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마24:14).
9장 보존 언약과 언약의 계승

1.노아에게 축복 4.피와 살인금지 8.새언약무지개 18.노아의 실수와 아들들

구속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다시 죄의 싸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의 하체에는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있었기에 함의 행동은 노아의 허리에 있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언약 계승자 즉, 믿음의 후손의 씨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장 노아의 후손들

1.노아가족 2.야벳 자손 6.함 자손 (8.영결 니므롯 15.가나안자손) 21.셈 자손

구속선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은 ① ‘그리스도 언약’이 누구에게 계승되어가는 지를 추적하는 미래지향적인 족보입니다. ② 불신의 족보가 먼저 소개되고 믿음의 족보가 나중에 소개되어 흐름을 이어갑니다.
11장 바벨탑 사건과 셈 족보

1. 바벨탑과 언어혼잡 10. 셈의 후손들 27. 데라의 후손들 31. 아브람의 하란이주

구속선

셈 족보는 셈에서 데라를 거쳐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보여줍니다(10-32).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그리스도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는지를 보여주는 족보입니다. 아브람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자였기에 필연적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2. 구속사의 율요일 : 창세기 2

[한줄 요약]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

[핵심 질문]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믿음의 조상들의 예
부활 2000년 창 12-50장 아브라함 하란-헤브론-애굽

<table>
<thead>
<tr>
<th>BC. 2000년</th>
<th>창 12-50장</th>
<th>아브라함</th>
<th>하란-헤브론-애굽</th>
</tr>
</thead>
<tbody>
<tr>
<td>아브라함 → 이삭 → 야곱 → 12아들(이스라엘)</td>
<td></td>
<td></td>
<td></td>
</tr>
<tr>
<td>헛불언약(창15:9~21) → 할례언약(창17)</td>
<td></td>
<td></td>
<td></td>
</tr>
<tr>
<td>아브라함/이삭/야곱의 제단</td>
<td></td>
<td></td>
<td></td>
</tr>
<tr>
<td>가나안(헤브론 → 모리아산)</td>
<td></td>
<td></td>
<td></td>
</tr>
<tr>
<td>믿음(피의 제사)</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창세기 12~50장 장별 약도
창세기 12~50장은 BC. 2000년 경의 중동지역 즉, 하란, 가나안, 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에 이르는 4대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50장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은 ‘믿음’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 ‘한 개인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본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면, 구약 성경의 창세기 12~50장은 동일한 ‘믿음의 본질’
을 일대기적으로 서술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창세기 12~50장은 구약 성경의 ‘로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 논증할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든 사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믿음의 3대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다.

[요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우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믿었던다는 얘기가 없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
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점진적 계시의 특성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중보자를 믿는 믿음’을 소유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게 되었는지를 추적해 보아야 하며,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을 수 있을 것인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 12~50장 구속사 맥잡기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
후손 : 준비된 등장, 아브라함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이 중심 인물로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할까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은 창세기 12장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등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구속사에서 믿음은 ‘계승’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믿음의 선조가 믿음의 후손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갑자기 믿음의 사람이 나타날 수 없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셰의 계보를 통해서 면면히 이어진 ‘중보자를 통한 구원이라는 믿음’을 물려받았기에 등장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믿음의 계승자들이 에게도 인간적인 한계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하란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수 24:2]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렇다면, 데라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첫째는 데라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성경이 데라의 육체적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 7: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로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으므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당시 데라는 145세였을 것입니다. 데라는 205세에 죽음을 맞기 때문에 아직 60년이라는 삶의 기한이 남아있었을텐데 왜 성경은 그를 죽었다고 말했을
까요? 아마도 데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기에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라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지만 무슨 이유에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란에서 멀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사례와 마지막 가족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데라는 함께 나서지 않고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아직 살아있었을 데라의 종말을 미리 써놓았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계승이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데라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다음세대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
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도록 역사하셔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어떻게’ 믿음을 상속받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믿음의 후손이 믿음을 상속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서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자연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는지를 보여 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필자가 앞에서 설명한 ‘구속의 5단계’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일생에 개입하셔서 우리 영혼에 심어주시는 은
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는지 살펴보고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상속받은 믿음은 그의 후손인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다가 야곱의 12아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이집트에서 믿음이 공동체를 이루다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언약 공동체가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후손을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줌과 동시에 먼 햇날 세워질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자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언약 : 언약을 통한 훈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연인이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15:5~6]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봅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 서 이를 그의 이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 인정받은 것은 자손에 관한 언약을 믿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오직 한 가지 밖에 없는데 그것은 ‘여인의 후손’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인의 후손’에 관한 온전한 지식을 갖지는 못했을 지라도 그가 이미
알고 있던 ‘여인의 후손’ 언약에 관해서 한 차원 높은 이해로 나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자신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못 볼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 하셨을 때,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상황은 신약의 신자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믿음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손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동정녀 탄생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믿음은 중보자의 불가능한 탄생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자손’에 관한 언약을 점진적으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십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째로 드리러던 때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보자 of 부활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대속의 죽음, 부활까지 알게 되었으며 삶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고 하나님과의 인정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성전 : 아브라함이 체험한 십자가

아브라함은 아벨/셈의 제사를 계승한 믿음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7~8]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벨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벨엘이고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속 제사에 관한 계시를 한 단계 깊이 알려주기 원하셨는데,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대속 제사에 담긴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
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구속의 5단계’를 통해 믿음의 절정이 ‘십자가 사건’임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창세기 22장 번째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합니다. 다른 말로는 ‘십자가’를 체험한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은 신자의 믿음 생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십자가 체험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과는 모두 같은데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삭-야곱은 믿음의 3대 조상인데, 이들이 믿음의 3대 조상인 이유는 그들이 각각 다른 방식이지만, 동일하게 십자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번제를 통해서 동시에 십자가를 체험했고, 야곱은 일생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갇힘으로써 죽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의 십자가 체험은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영적 현실로 체험하게 하여, 실제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문을 믿음의 모판으로 삼기 위해서 처음부터 철저하게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계승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창 12: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종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은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이론적 사변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체험적으로 가르칩니다.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순종해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이 항상 병행됩니다. 언약이라는 이론을 알아야 하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는 실습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행함이 포함된 개념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막ベル라 굴을 사서 아내 사라를 매장합니다.

[창 23: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ベル라 밖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막ベル라 굴은 아브라함 가문의 선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이 가
나안 땅에 자신들의 기업을 마련한 것으로 중보자를 의미하는 장소인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이 심판 받아야 할 땅이었기 때문에 선택 받은 것처럼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마련한 땅이 무덤이었다는 사실은 ‘죽어야 산다’는 복음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땅에 생명의 부활을 가져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역설의 복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계명 : 이삭과 야곱의 결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계승자들은 상속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삶의 모든 면에서 주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주목할 일이 결혼입니다. 그들은 모두 셉의 후손 중에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모두 셉의 자손, 구체적으로는 데라의 후손 중에서 머느리를 삼은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믿음을 가졌던 자로서 그 후손들에게 경건한 삶의 모습을 물려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혼이 믿음을 보존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란 것을 생각하면 그들의 선택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친족 간의 결혼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후손이 적어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친족 간의 결혼이 허용되었을 뿐 친족 결혼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성경은 혈통에 의해서 믿음이 계승된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의 수가 늘어난 이후에는 친족 결혼이 불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 루이 믿음의 족보에 포함된 것을 보더라도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 결혼의 기준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 가문의 결혼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믿음의 보존이 신자들의 삶에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믿음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선입니다. 계명의 구체적인 모습은 구약
시대에는 구속사의 계시 단계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은 믿음의 보존이고 결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12장 가나안과 아브람


구속선

가나안 땅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아브람 후손이 가나안을 벗어나는 것은 불신의 표현이 됩니다.
13장 우연 같은 필연, 롯 분가

1. 베엘로 돌아옴 5. 롯과 헤어짐 14. 땅과 후손을 약속하심 18. 마므레서 제사

قطاع

롯은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아브람 언약의 품을 떠나는데 믿음의 후손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4장 세속적 성공(1-16)과 멜기세덱(17-24)

1.왕들의 전쟁 12.롯의 잡힘 14.구출 17.멜기세덱의 축복,십일조 21.재물반환

+ 구속선

아브람이 세상에서 승리했을 때 이익에 이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재물을 바쳤다는 것은 믿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15장 믿음이란 무엇인가? 언약의 후손을 믿음

1. 말씀이 임함 2. 후손 약속, 칭의의 믿음 7. 계약체결 12. 애굽생활 예언 17. 땅

구속선

아브람이 의로 여김 받은 믿음을 갖게 된 이유는 ‘후손’에 대한 언약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탄생에 대한 믿음이 아브람에게 조명되었을 때 의로운 믿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홀로 조건 제물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도하고 성취하실 것임을 멋세하신 것입니다.
16장 사례와 하갈 - 복음과 율법(1-16)

1.첩이된 하갈 4.잉태한 하갈의 교만 7.하갈을 돌아보심 15.이스마엘의 탄생

구속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이유는 그들이 아브람의 언약에 포함된 자들이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신실한 분이십니다.
17장 할례 언약, 언약의 후손을 기억하라!

1.언약 갱신 5.새 이름 아브라함 9.할례 제정 15.사라로 개명과 이삭 출생 예언 23.아브라함의 할례 시행

구속선

할례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의도이며 후손에 대한 초점은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할 위기를 겪은 예에서도 ‘후손’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출 4:24~26).
18장 아들에 대한 재확인(1-19),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20-33).

1. 천사 영접 9. 아들 약속을 재확인, 사라의 웃음 16. 소돔과 고모라 심판 예고 22.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구속선

하나님은 신자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되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아선 일을 통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구속선

소돔성의 멸망은 최후 심판의 예표입니다. 롯은 그리스도 언약을 온전히 계승하지 못하여 믿음의 후손을 남기지 못합니다.
● 20장 아브라함의 거짓말

1. 아브라함-그랄이주  2. 사라는 누이라고 속임  8. 아비멜력이 아브라함을 책망  11. 아브라함의 변명  14. 아브라함을 후대한 아비멜력  17. 아비멜력을 위한기도

구속선

우리가 잘못해도(거짓말 등)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신다는 교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손이 나올 태를 보호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21장 이삭 탄생(1-7), 하갈/이스마엘 추방 (8-21), 아비멜렉 언약(22-34).

1.이삭 출생 8.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남 17. 방황하는 하갈을 위로하는 천사 20.이스마엘의 성장 22.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청함 33.아브라함의 예배

구속선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하갈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았지만, 이삭이 태어난 후에는 그 역할이 끝나 쫓겨나게 됩니다. 바울이 설명했듯이 율법은 복음에게 모든 권리를 넘겨주고 물러나야 합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고 복음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22장 이삭의 제물사건(1-19), 나홀의 자녀 (20-24).

1. 이삭을 제물로 요구하신 3. 아브라함의 순종 11. 구출된 이삭과 여호와 이레 15. 시험 후의 축복 20. 아브라함 동생 나홀의 족보(브두엘-리브가)

구속선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온전한 믿음을 얻게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미리 예비된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숙을 깊이 알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3장 사라의 죽음과 장사

1. 사라의 죽음 3. 헛 족속에게 막별라굴 요구
10. 막별라굴 매입 19. 사라의 장례

구속선

사라가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은 믿음을 지킨 인생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헤브론의 막별라굴 무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최초로 얻은 기업입니다. 이후 막별라굴은 가나안 땅의 교두보가 되어서 무덤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24장 이삭의 결혼

1.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엘리에셀을 보냄 10. 엘리에셀의 여행 15. 라반의 집으로 인 도됨 28. 이삭의 아내로 선택된 리브가 50. 리브가의 출발준비 61.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함

구속선

섬 후손과 결혼시키려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려는 의도였습니다. 세상과 분리를 통한 믿음 보존은 계명의 핵심 개념입니다.
25장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삭의 이들들(1-18), 야곱과 에서(19-24)

1. 아브라함의 후처와 그 자손들 5. 아브라함의 죽음 12. 이스마엘의 족보 19. 이삭의 두 아들(에서와 야곱) 출생 27.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

구속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 특권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인간이 알 수는 없기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영적인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6장 이삭이 그랄에 거함(1-11). 이삭의 우물(12-33), 이삭의 근심거리(34-35). 

1. 이삭의 그랄 이주 6. 아내를 누이라고 속임
12. 이삭의 번영-아비멜렉의 축출 17. 우물 분쟁 23. 하나님의 제시 26. 이삭과 아비멜렉의 조약 34.에서의 결혼

구속선

가나안 땅에 찾아온 기근은 믿음의 시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기에는 대적의 공격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삭이 믿음을 지킨 비결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판 데 있습니다. 믿음은 계승되는 것이기에 전수받은 믿음을 재확인할 때 부흥이 찾아옵니다.
27장 야곱의 속임수와 이삭의 축복 (1-29),
에서 축복 (30-40), 야곱의 도주 (41-46)

1.에서의 사냥 출발 5.리브가의 계략 14.에
서로 가장한 이삭 18.야곱이 축복을 가로챔
27.이삭의 축복 30.에서의 분노와 장래 41.
도망치는 야곱

구속선

우리는 야곱의 좌충우돌 믿음 성장기를 통
해서 가장 현실적인 신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에게 고난이 끝이지 않았던 것은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은
혐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의 계승자로서
12아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충실히
게 해냅니다.
1.밧단아람으로 도피 6.에서의 세번째 아내
10.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남

구속선
요1:51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듯이 사닥다리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 다.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17)으로써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29장 야곱의 결혼 과정

1. 하란에 도착한 야곱 9. 라헬을 만나 라반의 집으로 15. 라헬을 위한 7년 수고 21. 라반의 약속 위반과 이중 결혼(레아, 라헬) 31. 레아가 낳은 네 아들들

구속선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결혼과 정착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더 실리적인 사람으로서 야곱을 훈련시키는 교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0장 야곱의 자녀 탄생

1. 빌하를 첩으로 준 라헬 5. 빌하의 두 아들
9.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두 아들 14. 레아의 두 아들과 딸 22. 라헬이 요셉을 25. 라반과의 품 삐 계약 37. 물질의 축복

구속선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나는 과정은 거룩한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 가족에게 계속되는 고난은 믿음의 길로 인도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였음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table>
<thead>
<tr>
<th>모친</th>
<th>이름과 뜻</th>
<th>고백</th>
</tr>
</thead>
</table>

308
<table>
<thead>
<tr>
<th>레아</th>
<th>르우벤(보라아들이라)</th>
<th>여호와께서 나의괴로움을 권고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리로다(29:32)</th>
</tr>
</thead>
<tbody>
<tr>
<td></td>
<td>시므온(들으심)</td>
<td>총이 없음(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29:33)</td>
</tr>
<tr>
<td></td>
<td>레위(연합)</td>
<td>나와 연합하리로다(29:34)</td>
</tr>
<tr>
<td></td>
<td>유다(찬송)</td>
<td>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29:35)</td>
</tr>
<tr>
<td></td>
<td>빌하</td>
<td>단(판단하다)</td>
</tr>
<tr>
<td></td>
<td></td>
<td>납탈리(경쟁함)</td>
</tr>
<tr>
<td></td>
<td>실바</td>
<td>갓(복됨)</td>
</tr>
<tr>
<td></td>
<td></td>
<td>아셀(기쁘도다)</td>
</tr>
<tr>
<td></td>
<td>레아</td>
<td>잇사갈(값)</td>
</tr>
<tr>
<td></td>
<td></td>
<td>스불론(거함)</td>
</tr>
<tr>
<td>이름</td>
<td>역할</td>
<td>성문</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요셉</td>
<td>베냐민의 아들, 더하심의 아들</td>
<td>로다(30:20),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30:23)</td>
</tr>
<tr>
<td>베냐민</td>
<td>기쁨의 아들</td>
<td>로다(49:27, 35:24)</td>
</tr>
</tbody>
</table>
● 31장 야곱의 성공(1-16),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 라반과의 언약(17-55)

1. 하나님이 귀향을 지시 4. 가족들에게 설명
17. 물래 떠나는 야곱 23. 라반의 추격 26. 드라빔을 찾으려는 라반 36. 야곱의 항의 43. 갈르엣의 언약(라반과)

✚ 구속선

야곱이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향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곳이 믿음의 후손이 거할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과의 불화는 하나님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32장 형을 두려워하는 야곱 - 야곱의 두려움(1-23), 천사와의 씨름(24-32)

1.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 3.화친을 청하는 야곱 6.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 야곱 9. 두 페로 기도하는 야곱 13.예물을 보낸 야곱

천사와 씨름 - 이스라엘로

구속선

압 복강의 씨름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환도뼈가 위고된 것은 할례 언약을 재확인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 다. 믿음은 언제나 약속된 ‘후손’을 바라보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33장 야곱과 에서의 화해

1. 형제의 만남 8. 야곱의 예물을 받는 에서
12. 이별하는 형제 18. 세겜의 야곱

구속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죄를 묵과하셨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거하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34장 디나 사건

1.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디나 4. 디나의 혼담 18. 할례받은 세겜 사람들 25. 세겜성을 살육하는 야곱의 아들들 30. 야곱의 책망

+ 구속선

불완전한 회개는 야곱의 특징이었습니다. 디나의 강간 사건은 야곱 가문이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서서히 세상과 혼합되어 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속임수에 의한 복수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의 후손을 지켜주십니다.
35장 벤엘 귀환


구속선

사막다리를 통해 중보자를 보았던 벤엘로의 여정은 야곱의 신앙 여정을 보여줍니다. 벤엘에서 단을 쌓고 서원을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름을 갖게 된 야곱은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했기에 믿음의 시련이 계속됩니다.
36장 에서 후손

1.에서의 아내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아들들
가문의 족장들 20.세일땅의 족장들 40.에서
자손의 구역별 족장

구속선

에서의 후손들이 소개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불신의 계보를 먼저 소개하고 믿음의 계보
를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서이며 성경의 계보
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는데 이유는 믿음
의 계승과정을 추적하여 ‘여자의 후손’이 오
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니다.

316
37장 요셉 꿈

1.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과 형들의 시기 5. 요셉의 두가지 꿈 12. 형들을 찾아서 18.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25. 애굽에 팔려가 29. 야곱의 애동 36. 보디발에게로

구속선

요셉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아 철 없이 자란 청소년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야곱에게서 떨어뜨리고 특별훈련 학교에 입학시키셨습니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셉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삶을 총정리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여자의 후손’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지를 보여주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38장 유다와 다말

1.가나안 여인 수아를 취한 유다 6.앨과 오난의 죽음 12.유다와 다말의 관계 19.정체가 드러난 다말 27.다말이 베레스와 세라 쌍둥 이를 낳다

구속선

팀 39장 요셉의 시험

1. 보디발의 청지기 7. 보디발 아내의 유혹 14. 누명을 쓴 요셉 19. 옥중의 요셉

구속선
요셉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왔지만, 요셉은 계명을 지킴으로써 시험을 통과합니다.
40장 요셉의 꿈 해석

1. 감옥에 갇힌 바로의 두 관원장 5. 두 관원장의 꿈 9. 요셉의 꿈 해석(9-술, 15-떡) 20. 실현된 꿈 해석과 은혜를 망각한 술관원장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의 두 가지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잃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 극적인 반전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41장 바로의 꿈 해몽

1. 바로의 두 가지 꿈 8. 술 맛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 15. 요셉의 해몽 37. 요셉이 총리로
46. 요셉의 총재와 두 아들(므낫세, 에브라임) 출생 54. 대기근의 시작

구속선

요셉은 애굽의 통치자요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비하와 승귀가 개인적인 인생 역경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실로 구약의 신자들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체험하였습니다.
42장 가나안의 기근

1. 식량 사라 애굽에 온 형들 6.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여 옥에 가둔 18. 시므온을 억류하고 형제들을 돌려 보냄 26. 형제들의 귀향과 보고 35. 야곱이 근심함

구속선

가나안 땅의 심각한 기근은 하나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와 믿음을 저버린 야곱 가족의 죄악으로 인한 것입니다. 믿음을 잃은 형식상의 신자는 약속의 땅에 거할 수 없습니다.
43장 형제 방문

1. 베냐민과 동행하기 위한 유다의 간구 11. 야곱의 결단 15. 애굽방문 16. 베냐민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요셉 31. 잔치를 배설하는 요셉

구속선

형제들의 방문과 더불어 그들을 시험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요셉의 시험을 통해서 유다가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데, 그 이유는 유다가 베냐민의 생명을 대속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44장 요셉의 계략

1.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4. 자루 수색 14. 형들이 잡혀옴 16. 베냐민 억류명령 18. 유다가 뜨거운 간구

구속선

요셉의 계략은 형제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을 구하려고 시도함으로써 대속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로써 진정한 믿음의 계승자가 됩니다.
45장 요셉의 신분 폭로

1. 자신을 밝히는 요셉 5. 형들을 향한 요셉의 용서와 위로 9. 야곱을 모시려 함 16. 바로가 애굽으로 야곱 가족을 초청 21. 형제들의 귀향과 보고, 야곱의 반응

구속선

요셉은 유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알려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성취된 그리스도 계시는 이후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들기 위해서 야곱 가족의 애굽 이민이 이루어집니다.
46장 야곱의 애굽 이주

1.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위로 5.야곱 가족 (70명) 애굽 이주 8.애굽에 도착한 야곱 자손들 28.야곱과 요셉 부자 상봉, 고센 땅 거주

구속선

야곱 가족의 애굽 이민은 구속사의 새로운 단계가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개인을 통한 믿음 훈련의 계시가 이후에는 공동체를 통한 믿음 훈련으로 변화됩니다. 그것을 위해 서 야곱 가문은 애굽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 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항상 가나안에 머물렀습니다.
47장 고센 땅에 거한 야곱족속

1.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를 만남 7. 바로 앞의 야곱 11. 요셉의 가족 부양 13. 요셉이 곡식으로 가축과 토지를 매입 20. 요셉의 토지정책 27. 야곱의 유언

구속선

이제 야곱 가문은 애굽의 왕 바로의 치하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센 땅에서 구별된 생활을 했고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고несен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센 땅은 가나안 땅의 대사관으로서 새로운 계시를 위한 터전이 됩니다.
48장 야곱이 요셉 축복

1.요셉이 야곱을 문병 2.언약을 계승 5.에브라임과 믹낫세를 축복하는 야곱 21.야곱이 요셉에게 두배로 상속

구속선

요셉은 애굽에서 나은 두 아들에게 믿음의 계승자인 야곱의 축복을 요청하는데, 그 이유는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절함으로써(48:12) 야곱의 허리에 들어있는 그리스도를 정배합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인해서 에브라임과 믹낫세는 비로소 믿음의 계보에 포함되게 됩니다.
49장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예언(야곱이 예언한 각 지파별 축복)


+ 구속선

‘실로’로 표현된 그리스도가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 예언됩니다. 이것은 야곱의 심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생하게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들은 모두 언약의 계보에 들어가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스도 언약은 이제 공동체를 통해 계승되면서 질적인 전진을 하게 됩니다.
<table>
<thead>
<tr>
<th>이름</th>
<th>성구</th>
<th>축복</th>
</tr>
</thead>
<tbody>
<tr>
<td>르오벤</td>
<td>2-4</td>
<td>아홉의 장자이나 첩 빌하와 통간하였다 (35:22)</td>
</tr>
<tr>
<td>시므온</td>
<td>5-7</td>
<td>누이 디나의 복수를 위해 세겜을 멸망 시킨 자였다 (34장)</td>
</tr>
<tr>
<td>레위</td>
<td></td>
<td></td>
</tr>
<tr>
<td>유다</td>
<td>8-12</td>
<td>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와 왕가를 잇게 된다</td>
</tr>
<tr>
<td>스불론</td>
<td>13</td>
<td>해변에 살게됨</td>
</tr>
<tr>
<td>잇사갈</td>
<td>14-15</td>
<td>건장한 나귀, 농사짓는 일 (30:18)</td>
</tr>
<tr>
<td>단</td>
<td>16-18</td>
<td>후에 사사시대 삼손이 이 지파에서 나 왔다</td>
</tr>
<tr>
<td>갓</td>
<td>19</td>
<td>이방 침입을 받으나 물리침</td>
</tr>
<tr>
<td>아سهل</td>
<td>20</td>
<td>지중해 해변에 기름진 지역을 차지함</td>
</tr>
<tr>
<td>납달리</td>
<td>21</td>
<td>암사슴(전사)</td>
</tr>
<tr>
<td>요셉</td>
<td>22-26</td>
<td>번성한 지파-축복</td>
</tr>
<tr>
<td>베냐</td>
<td>27</td>
<td>호전적인 성격(후에 사울)</td>
</tr>
<tr>
<td>민</td>
<td></td>
<td></td>
</tr>
</tbody>
</table>
●50장 야곱의 죽음

1. 장례 준비와 애곡 4. 야곱의 장례식 16. 두려워 하는 형제를 위로하는 요셉 22. 요셉의 유언과 죽음

구속선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장사되고 요셉 또한 가나안 땅에 장사해줄 것을 부탁한 것이서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몸은 애굽에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살았던 것에서 신자는 이 세상을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3. 구속사의 화요일 : 출애굽기

[한줄 요약] 모세가 그리스도 언약의 공동체를 인도하다

[핵심 질문] 교회란 무엇인가? 믿음 후손들의 공동체
✔ 출애굽기 구속사 도표

<table>
<thead>
<tr>
<th>BC. 1500년</th>
<th>출애굽기</th>
<th>모세</th>
<th>애굽-시내산-광야</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이스라엘 공동체 + 믿음 있는 이방인(라합, 롯 등)</td>
<td></td>
<td></td>
</tr>
<tr>
<td></td>
<td>시내산 언약(출 19~24장)</td>
<td></td>
<td></td>
</tr>
<tr>
<td></td>
<td>성막(출 25~40장)</td>
<td></td>
<td></td>
</tr>
<tr>
<td></td>
<td>가나안</td>
<td></td>
<td></td>
</tr>
<tr>
<td></td>
<td>믿음(율법과 성막)</td>
<td></td>
<td></td>
</tr>
</tbody>
</table>
출애굽기 장별 약도
출애굽기는 BC. 1500년의 애굽을 배경으로 합니다. 내용은 창세기 후반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으나 출애굽기 배경 시기에는 장정만 60만 여명이나 되는 큰 민족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째 부분은 1~18장으로 애굽을 출발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이고, 둘째 부분은 19~40장으로 시내산 기슭에 약 1년 간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율법과 성막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공동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계승되어 오던 믿음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승되는 것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발전으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는 그 크기만큼이나 많은 문제와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생겨 도 그가 여전히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부패시킬 가능성 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계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법이라는 강력한 교육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앞선 시대에서 가르쳐진 중보자 ‘여인의 후손’에 관한 가르침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특별 수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이러한 구속사적인 발전 단계에서 생겨난 특별 교육 수단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율법도 중보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내용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성경의 모든 내용이 이 시내산 언약을 기초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편적 인간 윤리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책으로 읽으면 안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따르기로 언약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이기 때문에 언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교훈이 미스테리처럼 감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구약성경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실체로서 깨달아 구원을 얻도록 유도하기 위한 영적 교훈을 담은 책이지 일반적인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이 가르치고자 했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구속사 맥잡기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
해외의 머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서 모세를 통해
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공동체 훈
련입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을 통해서 한 개인이 믿음을 갖게 되는 과
정을 가르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
자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
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3가지 모습입
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역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본 받아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
자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
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3가지 모습입
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역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본 받아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
자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
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3가지 모습입
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역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본 받아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
자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
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3가지 모습입
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역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본 받아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
자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
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3가지 모습입
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역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본 받아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구약성경에서 언약의 중재자로서 신
자의 모델 역할을 합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
은 크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3가지 모습입
니다. 모세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
며,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도의 역할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본 받아야 할 역할이기도 합니다.
해서는 믿음의 후손의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구속사는 믿음의 후손들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후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교회의 역사 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공동체는 많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후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정도로 강해질 것을 예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싸움의 다양한 면모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영적 진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율법, 성막 등은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믿음 공동체의 영적 무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영적 전쟁은 물리적 전쟁과는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근원입니다.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가 모여서 성막을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각 지파가 각기 진영을 유지하면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각자 업무를 분담할 때, 강력해진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세와 신자
모세는 믿음의 상속자로서 출애굽 구원을 주도하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모세는 언약의 후손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행해야 할 구원의 도구 역할의 모델이 됩니다.

시내산 언약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처럼 구원의 도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믿음 공동체가 복음 전파 사역을 더욱 강력하게 수행한다.
행하여, 마치 자석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이 혈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계승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 공동체의 한계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공동체이지만, 언약 공동체에 속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라는 점입니다. 즉, 언약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매우 좋은 환경이고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지만, 믿음은 개인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민수가 14장 가테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만이 믿음을 가졌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성전과 율법, 절기와 안식일 등을 통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속하게 되지만,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언약 공동체는 믿음을 가진 자와 불신하는 자가 동시에 공존하는 불편한 동거가 지속되고 있다는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후손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묘사됩니다. 모세에게서 이 세 가지 모습이 통합되어 나타나다가 세 가지 모습이 나뉘어서 계승됩니다. 선지자는 미리암과 이후 선지자들에게 계승되고, 제사장은 아론과 이후 제사장들에게 계승되며, 왕은 여호수아와 사사들에게 계승되다가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게 계승됩니다.
출애굽기 19~24장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은 구속사의 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제시의 대상이 누구이고 제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한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좋은 말을 들려주는 경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를 소원하여 하나님의과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특별한 제시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 제시의 대상이 되어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교훈을 주는 특별한 민족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형이 되며,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의 모형이 됩니다.

오늘날 구약 성경을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타 종교를 비하하거나 단군상, 불상 등 우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산 언약의 결과로 받게 된 율법은 그 대상과 범위가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으로 한정됩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전쟁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 20:10~15]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싼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너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화평을 선언하고 조공을 바쳐 섬기게 하되, 부득이하게 전쟁을 할 경우 군사가 되는 남 자만 죽이고 부녀와 유아는 살려주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다음 과 같은 규례를 주십니다.

[신 20:16~18]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햇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워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을 성적으로 극히 탐탁하고 종교적으로 사람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레 18, 20장).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문화의 전염을 막기 위해 가나안 족속에게 ‘살처분’ 판결을 내리시고 그 사형 집행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가나안 땅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적 탐락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배격하라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신약의 원리를 따라서 손상을 가해서는 안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하물며, 오늘날 타 종교에 대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성경
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자신은 율법을 지켰지만 바벨론의 박수와 무당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대상과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땅에 한정되었던 시내산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후에 우상 숭배를 할 경우에 하나님이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 들어설 때에 언약으로 인한 책임과 의무를 충분히 이해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언약을 맹지 않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려는 익지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에 대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이후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전 : 율법과 성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을 통한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완벽한 예시입니다. 성막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성막의 구조와 성물입니다. 마당-성조-지성소로 이루어진 성막의 구조와 번제단-물두멍-떡상-금등대-분향단-법궤로 이루어진 성물의 배치는 영적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완전한 비유가 됩니다.

둘째, 제사장과 제물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재하며 제물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제물은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과 제물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막 계시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신자들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관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해함으로써 큰 감격을 누릴 수 있으며,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개인적 신앙 체험으로 인도한다는 점입니다. 시 내산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각 개인이 자동적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인도될 수 있는 과정’에 들어 서게 되었지만, 믿음을 궁극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성전의 상징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도 있었습니. 성전을 통해 믿음의 실체를 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신’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믿음의 기업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의 이주를 무조건 허락하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차지하도록 유도합니다. 민수기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민 14:30]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믿음이란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이나, 마음 속에 있는 신념이 아니라 삶 자체여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
음의 전쟁을 치르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믿음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중보자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를 차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중보자의 존재와 필요성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 것은 시내산 언약 이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
안 땅에 한정된 특별한 교훈이라는 점입니다. 가나안 땅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영적 교훈의 장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철저한 심판이 내려져야 했으며 우상 숭배가 결코 용납어서는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에 관한 교훈이 다른 장소에 바로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박수와 무당을 죽이라는 율법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만 적용되는 교훈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일했지만 애굽의 우상숭배자들을 죽이지 않았고, 다니엘 또한 바별론의 박수와 무당을 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훈을 통해서 신자는 교회 안의 우상숭배자는 치리해야 하지만, 교회 밖의 우상숭배자들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명 :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머물 수 있는 곳이고 믿음은 율법을 실천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을 가르쳐주십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고,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데 그것 또한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 삶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머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 믿음은 율법을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증명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언약, 성전, 기업과 맞물려 있는 율법의 중보적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율법 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
할 수 없는데, 그것은 울법이 성막과 함께 주어진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울법은 성막이 있을 때에야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논증하는 것처럼 울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지만, 인간의 죄악 되이로 인해 지켜지지 못하고 죄를 드러내는 역할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한 울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 성막이며 우리는 울법의 중보적 기능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는 울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울법의 핵심 또한 창세기에 나타난 ‘결혼 계명’의 연장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구속사 장별 개관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 1장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

1. 번성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8. 이스라엘 자손의 고역 15. 왕의 남아(男兒) 살해 명령

구속선

구속사의 새로운 단계를 보여주는 출애굽기에는 바로 통치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믿음의 계보를 이었지만, 아직 그들이 정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는 않았기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통해서 인류의 실상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로마서가 1장에서 전인류의 죄악 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 다. 한편,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뒤에는 믿음의 후손의 계보를 끊으려는 뱀의 계략이 있다는 사실을 간파해야 함
나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산파들의 태도는 악한 세상 통치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후손을 이어가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2장 모세의 탄생과 도망

1. 모세의 출생 5. 애굽 공주의 아들로 양육 11. 미디안 도피 21. 십보라와 결혼

구속선

여자의 후손 언약은 죄악 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중보자를 통한 구원임을 알려줍니다. 성경은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중보자의 탄생과 성장, 고난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세의 인생 역정은 본인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자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보여주는 예증이 됩니다. 여기서는 물에서 건짐 받은 것과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세례와 시험을 예표로써 보여줍니다.
3장 그리스도를 만난 모세

1. 불꽃 중에 현현 7. 소명받은 모세 11. 용기를 주심(여름계시) 15. 출애굽을 명령

구속선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삼위일체의 증거를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모세는 광야시 험의 막바지에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나 중보자의 사명을 위임 받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릴 수 있었습니라(히11:26).
4장 모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증거


구속선

그리스도를 만난 모세에게 주어진 지팡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는 증표로써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23절에서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모세가 죽음의 고비에 처한 이유는, 할례언약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은 것은 언약에 대한 불신임입니다. 27절을 통해서 모세의 아내 심보라가 할례를 반대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심보라가 자신의 고집을 꺾
고 할례를 주었을 때에야 모세는 살게 됩니다.
5장 애굽에 찾아온 중보자 모세

1. 모세와 아론의 해방요구와 바로의 거절
6. 더 큰 고역
10. 벽돌용 짐을 얻지 못함
15.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
22. 하나님께 호소하는 모세

+ 구속선

중보자로서 모세는 극심한 고난을 체험합니다. 바로의 통치를 받는 애굽에서 모세가 겪는 어려움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겪으셨던 고난과 유사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6장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의 두령들


구속선

중보자는 한편으로는 세상 통치자 바로와 대결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달리 모세는 중보자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느끼며 고통 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중보자 그리스도의 사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7장-12장 두 번째 모세와 바로의 만남과 열 재앙의 시작(7:14-25)

1. 모세의 대언자 아론 3. 바로에 대한 계획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어 보내심 8. 지팡이가 뱀으로 14. 물이 피가 되는 첫째 재앙 22. 재앙의 결과

각 재앙은 당시의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1) 피의 재앙(7:14-25) 나일강의 신 하피 (Hapi)에 대해

(2) 개구리 재앙(8:1-15) 풍요와 부활의 신 헤큐트(Heqt)에 대하여

(3) 이의 재앙(8:16-19) 땅의 신 셰브(Seb)에 대해
(4) 파리의 재앙 (8:20-32) 파리의 신 맹시파리 (Ichneumon fly)에 대해

(5) 악질 (9:1-7) 암소의 수호신 하도르 (Hathor)에 대해

(6) 독종 (9:8-12) 의술의 신 임호텝 (Imhotep)에 대하여

(7) 우박 재앙 (9:13-35) 하늘의 여신 오시스 어머니 누트 (Nut)에 대해

(8) 메뚜기 재앙 (10:1-20) 곡물 수호신 호루스 대적자 세드 (에 대해

(9) 흑암 재앙 (10:21-29) 태양의 신 라/태양의 여신 세케트 (Sekmet)에 대해

(10) 장자 살인 (11-12장) 다산의 신 오시리스 (Osiris), 생명의 신 이시스 (Isis)
구속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분입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은 거짓신들을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2장 유월절


구속선

유월절 규례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모든 죄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속한 죄인들에게는 그 심판이 피해간다는 의미입니다.
13장 무교절과 하나님의 임재

1. 다섯째 재앙=악질 8. 여섯째 재앙=독종 13. 일곱째 재앙=우박 27. 바로의 호소 바로의 변심

구속선

무교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기에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추구하는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14장 바로의 추적과 하나님의 구원


구속선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세례를 예표합니 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을 체 험한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 하는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출애굽의 감격은 종말 이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기쁨을 보여줍니다.
15장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

1. 모세의 감사 찬양  
19. 미리암과 여인들의 춤과 찬양  
22. 마라의 쓸물  
27. 엘림에 도착하다

구속선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은 믿음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6장 광야의 양식

1. 신 광야 도착 2. 굶주린 백성들의 불평 4. 하나님의 은총 13. 만나와 메추라기 21. 안식 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으심 31. 후손을 위해 만나 한 호멜을 간수

구속선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으로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의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려는 의도입니다.
반석의 물 또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구도자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중보자의 기도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8장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만남

1.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을 동반하여 찾아옴
7. 모세와 이드로의 재회 13. 행정 제도 조언
24.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을 시행 27. 이드로의 귀향

구속선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모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모임에도 조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참고. 엡 4:11).
19장 시내산의 모세(시내산 언약 19-24장)

1. 시내 광야 도착 3.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포 7. 백성들의 응답 16.3일후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말씀 20. 백성들의 준수 사항 강조 = 입산 금지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제안 하십니다. 언약은 인격적인 존재들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듯이 (히6:7)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려 하십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익 관계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 결혼처럼 인격적인 신뢰를 위한 것이며 알아야 합니다.
20장 십계명

1.십계명을 주심 18.여호와의 영광을 두려워 하는 백성들 22.여호와를 섬기는 규례(22- 우상금지, 24.제단에 대한 규례)

구속선

에덴동산에서 아담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선악과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이 있었는데, 그 요약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산상수훈의 필복과 비슷하게 율법의 원리와 정신을 보여줍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만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 동시에 주어지는데, 그 이유는 아담은 악을 이길 충분한 능력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은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과 성막’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1:33-22:17 생명법 33-34절 / 짐승 배상법, 35-36절 / 짐승과 짐승

22:1-4 / 절도, 5-6절 / 손해배상, 7-13절 / 보관물, 14-15절 / 차용물, 16-17절 / 혼인빙자


21:27절 / 고아, 과부, 28-31절 / 종교의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은 ‘율법과 성막’이었는데, 그 중에 율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성막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과 성막’을 하나로 완성시키십니다.
24장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

1.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심
3. 언약서 낭독과 백성들의 순종 서약
9. 모세와 동행자들이 하나님을 봐 12. 시내산에 40일간 먹는 모세

구속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을 봐고 먹고 마셔도 죽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만난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아니라 성자 예수님인 것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그 분을 하나님으로 알았기 때문에(출3:2) 하나님을 소개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5-30장 예물, 성막, 제사장에 대한 규례
(설계도)

예배를 위한 지시 성막에 대하여(25-27장), 제사장(28-28장), 분향단(30장).


26:1-14 성막 26:15-30 골조 26:31-35 휘장 26:36-37 휘장


28장 - 제사장 규례, 29장 - 제사요령, 30:1-10 분향단 30:11-38 기타규례

이와 같이 모든 성막 기구들은 십자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막은 종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세밀하게 설명해 주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알려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신자들도 성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 31장 일꾼(1-11), 안식일에 대해(12-18).

1. 성막 제작 일꾼으로 부름받은 브살렐과 오홀리압 12. 안식일 규례 18.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수여하심

구속선

성막 건설을 하는 도중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 못지 않게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에(마12:8;막2:28;눅6:5)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32장 금송아지 숭배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1.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7. 하나님의 진노 11. 모세의 중보기도 15. 돌판을 깨뜨림 21. 아론을 문책 25. 레위 자손이 심판을 대행 30. 모세의 중보기도와 응답

+ 구속선

33장 모세의 중보(1-16)와 하나님의 영광 (17-23)

1.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 4.백성들의 단장품을 제하라 7.모세가 진 밖에 회막 설치 9.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만나 말씀하심 12.모세의 기도와 이스라엘과 동행함을 응답하심 18.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보고자 함과 하나님의 응답

구속선

모세의 중보기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결코 없었던 것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랑뿐만 아니라 공의도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중보는 성공했으나 임시방편일 뿐 영구적인

389
성공은 참된 중보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수하셔야만 했습니다.
34장 두 번째 십계명(1-28).

1. 두 돌판을 준비한 모세 5. 모세에게 하나님 이 이름을 반포하심 10. 하나님의 약속과 금 지사항(우상숭배) 18. 지켜야 할 절기들과 기 록을 명령 28. 두번째 십계명 돌판 29. 모세 얼굴의 광채

구속선

인간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는 예표이고, 모세 얼굴의 광채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35-40장 성막 건설

35장 - 준비 작업,

36장 - 성막 건설 시작,

37장 - 범궤, 그룹, 상, 속죄소, 등대, 문향단.

38장 - 번제단, 물두멍, 돌

39장 - 제사장의 성의, 예복, 흉패

40장 - 성막 완성(1-33), 하나님의 영광 임재(34-38)

구속선

성막은 하나님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나다. 성막 봉헌 시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순종하고 갔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영광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4. 구속사의 수요일 : 사무엘상

•하

[한줄 요약] 다윗이 그리스도 언약의 왕국을 건설한다

[핵심 질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다윗 왕국
✓ 사무엘상·하 구속사 도표

<table>
<thead>
<tr>
<th>BC. 1000년</th>
<th>사무엘상·하</th>
<th>다윗</th>
<th>이스라엘 왕국</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이스라엘 백성 + 믿음 가진 이방인(라합, 롯 등)</td>
<td>다윗 언약(삼하 7:5~16)</td>
<td>미음(율법과 성막)</td>
</tr>
<tr>
<td></td>
<td>성막 → 솔로몬 성전</td>
<td>이스라엘 왕국</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이스라엘 백성 + 믿음 가진 이방인(라합, 롯 등)
사무엘상 장별 약도

수요일 (사무엘상)
사무엘서는 BC. 1000년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왕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정체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 없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 공동체였으나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대리 통치자 역할을 하는 왕국으로 체제가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서를 요약하는 단어는 왕국입니다. 왕국은 공동체가 발전해서 강력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을 가리킵니다. 왕국은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사무엘서는 구속사에 일차적인 예언 성취의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복을 받으며 자손이 번성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곳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설계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예언들도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증거가 바로 사무엘서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배우고 믿음의 후손들이 왕국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무찌르고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시됩니다.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의 제자인 신자들도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도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지만, 왕 직분이 추가되면서 제사장, 선지자 직분도 역할 분담을 하면서 뚜렷하게 사명이 부각 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왕이라는 직분은 다른 직분보다 강력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전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무엘서 이후로는 왕권의 계승이 족보만큼이나 중요한 구속사의 관심 사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

399
께서 기뻐하시는 왕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을 이곳에서 반드시 길러야 할 것입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사무엘상: 하 구속사 맥잡기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
다윗을 통한 왕국 건설은 하나님의 나라 비유의 절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왕국은 믿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강력하고도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다윗 왕국의 모습은 믿음 공동체의 목표이자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과정을 서술한 성서가 사무엘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사무엘서의 초점이 다윗의 통치보다는 다윗의 훈련 과정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난을 극복하고 훈련된 왕이 된다는 영웅담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에 대한 다윗의 태도와 시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
백을 통해서 다윗이 받은 훈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받은 훈련은 ‘대리통치자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실패한 아담 대신 성공한 대리통치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대리통치자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구약시대에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과 즉위

유다 지파 다윗이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는 과정은 신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살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신자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신자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믿음을 확정하도록 인도하시고자 하는 의도 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믿음과 불신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을 기다리는 일과 아말렉을 진명하는 일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사울은 불신의 길을 갔고 다윗은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자기 마음의 중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 선택을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았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길을 선택함으로써 믿음을 확증했습니다. 확증된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대리통치자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받은 시험

사울과 다윗이 받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생각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림받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해서 쓰임 받았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이해는 구속사의 맥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사울이 받은 시험은 제사와 아말레트 전멸이 었습니다. 이 모두 중보자 그리스도와 관련 된 시험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사의 발전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국으로 전환되면서 모세가 행했던 3중직도 분화하게 됩니다. 모세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겸했지만, 모세 이후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분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3중 직임을 선명하게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

405
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사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중보자 제시를 소홀히 여기는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아말렉은 출애굽기에서 언약 백성을 공격하여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울 것을 명하신 뱀의 후손을 예표합니다.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진멸을 소홀히 한 것은 ‘여자의 후손 언약’을 믿지 않은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불신의 표
현이었기 때문에 사울의 행동은 믿음을 거부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소지품과 옷 자락을 자른 것마저도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이해하고 있겠다는 것이며, 왕은 왕 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를 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구속사의 전개와 그리스도 언약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구속사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 ‘여자사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사람에게 알려주실만큼 친절한 분이시고, 한편으로는 사탄의 방해를 넉넉하게 물리치실 만큼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여러 하수인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로막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우리 는 앞으로 전개될 구속사의 진행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성전은 하나님 나라 전진의 큰 이정표가 됩니다. 성전의 설계도는 성막 만큼 자세하지 않은데 성전이 성막의 확장된 모습이며 본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의 수요일에 성전은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성전이 있는 남쪽 유다와 사이비 성전을 지은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으로 인해서 정통 왕국과 사이비 왕국으로 구분됩니다.

구속사의 5선 중에서 언약, 성전, 기업, 계명 등은 모두 은혜의 방편인데, 이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순종하다보면 하나님이서 합당한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은혜의 방편’마저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사이비 언약 왕국으로 어긋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많은 지파가 참가하여 세력이 강하고 한때는 큰 번영을 누리기도 했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는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하나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 : 유다와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은 가나안 땅의 지배권을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때로는 사이비 언약 공동체인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가기도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남유다 왕국에 있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들은 자취를 감추었지만, 남유다의 포로들은 귀환하여 다시 새로운 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신자의 믿음은 반드시 기업을 차지하게 되어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결코 기업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남유다의 포로귀환 사건을 통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교훈해 주십니다.
계명 : 알곡과 가라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은 표면적으로는 믿음의 왕국으로 보이는 공동체가 영적으로는 진리를 따르는 무리와 거짓을 따르는 무리로 나뉘어질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셨고, 세상 끝날에 가서야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은 세상 끝날까지 신자의 공동체에 가라지를 심어서 불신의 계보를 만들어 갈 것임을 알아야 하며 신자는 무엇이 믿음의 계보에 속하는 것인지 잘 분별해서 믿음의 왕국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앗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앗수르의 혼합정책으로 인해서 혼혈도시가 되고 말니다.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 속에서 그 혼적을 잃어버리게 되며 남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멸망의 전조로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1차 BC. 606년, 2차 BC. 697년, 3차 586년). 귀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포로가 끌려간 70년 후인 BC. 536년부터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북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땅이 토해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다림을 사용합니다. 언약 공동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하나님 계명을 어길 때에는 퇴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국에게는 남은자를 통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남은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받게 됩니다.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1장 한나의 서원 기도

1. 엘가나의 족보와 그의 아내들 3. 한나의 고통과 엘가나의 위로 9. 한나의 기도와 서원
19. 사무엘의 출생 21. 사무엘의 헌신

구속선

왕의 도래를 서술하는 사무엘서는 왕의 길을 예비한 사무엘의 탄생 기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신약시대 세례 요한과 비슷한데, 탄생 기사와 나실인으로 드려지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실인이 된 사무엘은 불신의 길을 간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해서 제사장직을 맡고 믿음의 계승자가 됩니다.
2장 한나의 찬양과 엘리가문의 멸망, 사무엘의 성장

1.한나의 노래 12.엘리의 불량한 두 아들 
18.사무엘의 유년기 22.엘리의 두 아들의 죄 악 27.엘리 가문의 멸망 예고

구속선

한나의 찬양은 왕의 승리를 노래하는데, 이 것은 다윗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한편, 엘리 제사장 가문의 타락은 인간의 죄악 된 본성을 드러내고, 인간 제사장의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참된 대제사장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3장 사무엘의 소명

1. 하나님의 네 번째이나 사무엘을 부르심
10. 엘리 가문의 멸망에 대한 계시 15. 엘리에게 전한 계시와 엘리의 순복 19. 선지자로 세움입은 사무엘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엘리 가문의 타락을 보시고 나실인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장 직임이 계승되도록 섭리하십니다. 최후의 사사이기도 한 사무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가지 직분을 모두 물려받았다가 세 가지 역할을 각 소명에 맞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히 왕의 직분은 다윗에게 계승해 줍니다.
4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

1. 블레셋과의 전투 패배 3. 법궤를 앞세우고 전장에 나감 5.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전사 12. 비보를 잡한 엘리의 죽음 19. 엘리 머느리의 죽음

구속선

엘리 가문은 형식적인 섬김으로 참된 믿음을 계승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는데 비느하스의 아내를 통해서 그것이 진술됩니다.
5장 블레셋 족속의 심판

1. 법궤와 무력한 다곤 6. 아스돗에 내린 독종 재앙 8. 가드에 내린 독종 재앙 10. 법궤의 에그론 이동과 반환 움직임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방신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고 참신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과 방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장 벤세메스로 가는 수레

1. 법궤 반환 결정과 반환 방식을 의논하는 블레셋
10. 벤세메스에 도착한 법궤
17. 블레셋이 바친 속건 재물금독종
19. 법궤를 들여다 본 벤세메스인의 환란

주석

블레셋의 법궤 귀환은 애굽의 바로의 항복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한편, 벤세메스 사람들마저도 법궤를 섬기는 율법을 몰라 재앙을 당하는 것에서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무지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7장 미스바에서의 대 개혁

1. 기략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법궤 3.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킴 5. 미스바의 대 회개 10. 블레셋의 침략과 하나님의 구원 12.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관리

구속선

기략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김으로써 이스라엘에 신앙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미스바 부흥을 위한 불씨가 됩니다. 법궤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8장 왕에 대한 요청

1. 사무엘의 아들들의 악정 4. 백성들의 왕정 요구
6.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10. 왕정 제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19.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

구속선

왕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예비하신 것이지만(신 17:14~20),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잘못된 때’에 요구한 것이기에 악한 요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은 다윗처럼 고난의 시험을 통과해야 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화려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9장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

1. 사울의 가문과 인품 3.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아 나선 사울 5. 사환의 조언으로 선지자 를 찾아가는 사울 15.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사울의 방문과 왕위 지명을 지시 22.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구속선

백성들의 요청에 맞는 인간적인 미덕을 지닌 왕 사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10장 사무엘의 지시와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과 왕으로 즉위

1.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고 세가지 징조를 예언 9.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예언하는 사울 14.귀로에 사울이 그 숙부를 만나 17.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힘

* 구속선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뒤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11장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사울

1. 암몬의 침략과 길르앗 야베스의 곤경 4.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의 구원을 위해 총회를 소집 9. 사울의 승리 12. 사울의 자비 14. 사울이 왕위에 오름

구속선

사울은 하나님에의 은혜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신이 승리의 영광을 받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예배했던 것처럼 사울도 대리통치자로서 자신의 중심을 입증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장 사무엘의 고별설교

1. 사무엘의 양심 선언  6. 왕이신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도 왕을 구하는 백성을 꾸짖음  14. 왕정제도의 장래를 추수기의 우뢰로 경고  20. 하나님 경외의 권고

구속선

사무엘은 통치자 직분을 왕이 된 사울에게 넘겨주는 고별 설교에서 하나님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준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왕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왕 직분은 중보적 대리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한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사울의 즉위와 실수

1. 사울의 군사 3. 블레셋에 대항하여 싸울 군사를 길갈에 소집 5. 블레셋의 군대 앞에 두려워하는 백성들 8. 사울의 실책(사무엘 대신 번째 드림) 11. 사무엘 꾸짖음 15. 믹마스의 전투 태세 19. 허술한 사울 군대의 무장

구속선

사무엘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반면, 사울은 왕의 직분만을 물려받았습니다. 직분의 구분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서 그 분의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이 중보자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의 잘못은 단순히 불순종한 죄
가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한 일이었기에 중대한 것입니다.
14장 요나단의 실수와 전쟁의 승리

1. 요나단의 용맹 16.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

님의 구원 24. 사울의 어리석은 서원과 요나단의 실수 31. 백성의 죄와 사울이 쌓은 제

단 36. 요나단의 단죄와 백성들의 변호 47. 사

울의 업적과 가족사랑

구속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투는 믿음의 싸움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에 의한 용기

기는 다윗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었기에 그들은 믿음 안에서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

었지만, 사울의 행동은 믿음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기에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어리

석은 명령을 내리고 맡습니다.
●15장 아말렉 진멸과 사울의 불순종

1. 사울이 아말렉을 치라는 명령을 받음  4. 백성의 소집과 아말렘이 격파  9. 사울의 불순 종  10. 하나님의 탄식과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임 추궁  24. 사울의 고백과 사무엘의 예언  32. 아랫의 처형  34. 버림받은 사울과 이별하는 사무엘

+ 구속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사형집행인으로서 보냄 받았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에 자신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원 잘못 을 되풀이하여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있 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아말렉 진멸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이며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
니다. 이와 같이 사울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서 왕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험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가?”입니다.
16장 다윗의 기름부음과 사울의 번뇌

1. 이새의 아들로 왕을 택하신 하나님 4. 말씀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사무엘 11. 다윗을 택하여 기름부음 14. 악신 덮인 사울이 수금타는 다윗을 부름

구속선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 이후 다윗에게 기름을 뿌었습니다.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가게 된 것은 다윗을 훈련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17장 다윗과 골리앗

1. 블레셋의 침략과 대진 4. 골리앗의 도전
12. 형을 방문한 다윗의 분개 31. 사울과 대화한 다윗의 출전 41. 다윗의 승리 55. 다윗의 가문을 묻는 사울

구속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기에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하게 되지만 다윗 또한 그 중심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통과해 야만 했습니다.
18장 다윗의 요나단과의 관계와 미갈과의 결혼

1.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5. 다윗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울 10.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진 사울 17. 사울이 올무로 다윗에게 딸 미갈을 줌 28. 다윗을 대적삼은 사울

+ 구속선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계자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으로 내몰고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상황은 다윗에 대한 시험인가도 했지만,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인도이기도 했습니다.
19장 다윗이 라마 나옷으로 도망

1. 사울이 다윗 암살 음모, 요나단의 우정 4. 요나단이 화해 권유 8.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창을 떨어 던짐, 미갈의 협조 18.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신 22. 다윗을 찾아 나선 사울이 예언을 하다

구속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다 실패하고, 잡으러 갔다가 예전에 체험했던 성령 충만을 다시 체험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울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섭리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성령을 거역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데 처음에는 왕위 계승권을 박탈당하고, 다음으로는 왕으로서 범죄받으며, 마지막으로는 신자로서 실패하고 말니다
요나단의 다윗 보호

1. 다윗의 안전을 위해 요나단이 협조 12.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24. 사울에게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 30. 다윗을 놓친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 함 35. 다윗과 요나단의 작별

구속선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 다윗에게 협조하고 그의 도주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은 요나단의 모습은 왕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21장 농에서 가드까지 도망

1. 농으로 피신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음 7. 농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줌 10. 가드로 피신한 다윗이 미치광이 행세를 함

구속선

가나안 땅을 벗어나 블레셋으로 피신한 행동은 명백한 불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됩니다. 머리 둥 곳조차 없었던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다윗은 언제나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을 볼니다. 사울과는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22장 다윗의 피난과 제사장들의 피살

1. 아둘람 굴로 피신한 다윗 3.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피신 6. 신하를 책임하는 사울 9. 도엑이 아히멜렉을 고발 11. 사울이 제사장들의 성읍 농을 전멸시킴 20. 아히 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죽음을 면해 다윗에게 피신

구속선

사울의 포악함과 다윗의 거짓말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높 제사장들에게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데 사탄은 죄를 통해 비극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마저도 위기의 순간에 실수를 저지르지만, 다윗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췄습니다.
23장 그일라의 구원, 요나단 만남, 셸라 하마느곳

1.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를 구원함
6. 사울의 추격과 그일라 사람의 배반
15. 다윗이 십 광야로 피신, 위로하는 요나단
19. 십 사람의 밀고와 사울의 탐지 명령
24. 블레셋의 침략으로 다윗에 대한 추격이 중단

구속선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가나안을 벗어 나지 않은 것은 믿음이 승리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시편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24장 다윗의 믿음 - 사울을 죽이지 않음

1. 사울은 다윗이 숨은 동굴로 들어감 4.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벗 8.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의 진실을 호소 16. 사울의 일시적인 뒤 우침

구속선

사울은 정식으로 기름부음 받은 왕이었기에 그의 인격과는 관계없이 그가 가진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면 그것은 중보자에 대한 반역의 행동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과 달리 구속사의 진리를 알았기에 사울을 죽이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 하게 됩니다.
25장 나발의 어리석음과 아비가일의 지혜

1.사무엘의 죽음과 장사 2.다윗이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 9.나발의 모욕에 격분한 다윗
14.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호소 32.아비가일의 호소를 받아들인 다윗 36.나발의 죽음 39.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은 다윗 43.다윗의 아내들

게속선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울을 공경한 것처럼 다윗도 기름부음을 받았기에 공경 받아 마땅했지만, 나발은 다윗과 같은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나발의 죽음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에게서 벗어난 기름부음을 받은 자의 아내가 된 것은 신자의 신분 변화에 대한 예표입니다(롬 7:1-3).
26장 다윗의 믿음- 사울을 죽이지 않음

1.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여 하길라에 진침 6. 다윗이 사울의 진중에 잠입하였으나 사울의 목숨을 살려줌 13. 아브넬의 불충을 책망하는 다윗 17. 사울의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다윗 21. 사울의 뇌우침과 사죄

+ 구속선

d다윗이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음으로써 또다시 시험을 통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인격과는 별도로 기름부음 받은 왕의 직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27장 블레셋에 거주

1.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피신함으로 사울이 추격을 중단 5. 다윗이 아기스로 부터 시글 락 성읍을 얻음 8. 다윗이 아기스를 속여 신 임을 받음

구속선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한 것은 불신의 행동 입니다. 비록 다윗이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신을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블레셋에 거주한 다윗은 거짓말과 기만을 행함으로 위기를 자초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28장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감

1.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다윗에 대한 아기스의 출전 명령 3. 사울의 기도와 하나님 무응답 7.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림 15. 사무엘이 패전을 예언 20. 두려워 실신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기력 을 회복

구속선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사무엘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 영의 속임수입니다(눅16:26). 거짓 사무엘의 영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심판을 재언급했을 뿐이며 사울에게 어떠한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29장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서 빠짐

1. 블레셋 군대와 함께 출전한 다윗 3. 다윗을 불신하는 블레셋 방백들 6. 다윗 블레셋으로 철수

구속선

블레셋으로 망명한 다윗의 죄악이 동족을 배반하고 학살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언제나 죄악은 비극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0장 시글라크의 침노, 아말렉의 보복

1. 아말렉이 시글라크을 약탈 3. 아말렉의 만행과 다윗의 비통 7.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 16. 다윗의 승리로 가족과 재물을 되찾음 21. 전리품을 공정히 분배

구속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 한 이유는 블레셋에 망명하고 동족을 배반하려 했던 다윗의 불신에 대한 실망이 겹쳤기 때문이나, 절망의 순간에 믿음을 붙든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저버리지 않으시고 모든 피해를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에봇으로 상징된 중보자는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31장 블레셋에게 패배-사울과 아들들의 죽음

1.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군대와 아들을 잃은 사울이 자결함
7. 블레셋 족속이 사울의 시체를 모독함
11.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 사울을 장사함

구속선

다윗에 대한 시험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이 서는 악역을 맡았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며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의 직분을 가진 자를 죽인 블레셋에 대한 심판도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사무엘하 구속사 장별 개관
1.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戰死) 소식을 전함 15. 사울을 죽였다는 아말렉인을 죽인 다윗 17. 사울과 요나단을 애도하는 다윗의 노래

구속선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갖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아말렉 소년의 죽음은 자신의 거짓말로 인한 것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2장 유다(다윗)와 이스라엘(이스보셋)의 전투

1.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다윗 5. 다윗이 사울을 장사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축복
8.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 12. 아브넬과 요압의 대결 18.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임 24. 아브넬의 도주와 전쟁 중지

구속선

유다와 이스라엘의 내전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고 다윗을 거부하였지만, 하나님의 기름부음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 3장 아브넬이 다윗에게 망명, 요압에게 암살

1. 다윗의 번영과 헤브론에서 난 여섯 아들들 6.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불화 12. 다윗에게 전향한 아브넬 22.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음 31. 아브넬을 위한 다윗의 애도

✚ 구속선

인간은 언제나 자신들의 죄악 된 동기로 행동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비극의 씨앗을 뿌리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을 정결하게 지킵니다.
4장 이스보셋의 암살, 레갑과 바아나의 처형

1.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죽음에 놀람 4.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 5. 레갑과 바아나가 이스보셋을 암살 9. 암살자를 처형한 다윗

구속선

다윗은 스스로 피를 묻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비로소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된 다윗의 인내로 이스라엘은 내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통일됩니다. 다윗은 평강의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5장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고 번성

1. 열 두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 6. 여부스 족속으로 부터 빼앗은 시온, 곧 다윗성
11. 다윗의 번영 - 히람의 원조 13. 다윗의 열한 아들들 17. 블레셋 격퇴

구속선

예루살렘 성의 함락은 다윗의 믿음이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서 오래 전에 예정하신 ‘한 장소’를 이제 점령하여 하나님이라는 절정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블레셋의 침략은 하나님의 나라의 안정을 해하려는 사탄의 계략이었으나 곧 무찌릅니다. 믿음으로 단합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외적의 침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6장 법궤가 다윗 성으로 옮

1. 법궤를 바알레유다에서 새 수레로 싣고 옮 6,7. 나곤의 타작 마당에서 옷사가 급사 10. 오벨에돔에 머문 법궤 12.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 들임 17. 다윗이 제물 을 드리고 백성을 축복 20. 다윗과 미갈의 불화 (서로 책망)

구속선

다윗이 왕이된 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임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으나 다윗은 법궤를 율법에 따라 운반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망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원인을 알고 다시 법궤를 운반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미갈 같은 자들은 언약
백성으로 믿음을 소유하는데 실패하고 맴니다.
7장 다윗 언약

1-3. 다윗의 성전 건축에 동의하는 나단 선지자 4~16. 나단을 통해 성전건축을 허락 않으심과 다윗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전달 18. 다윗의 감사 기도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도래와 사역을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계시하신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 → ‘아브라함의 후손’ →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구속사의 점진적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장 다윗의 승리와 번성


구속선

다윗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부분적으로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이 신자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구로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9장 다윗이 사울 가를 돌봄

1. 다윗이 사울의 유족을 찾음 5.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민비보셋과 한 식탁에서 먹음 9. 민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

구속선

다윗이 사울 가문의 남은 자를 찾은 것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삼상 20:15-16). 다윗 자신이 언약에 신실하였기에 그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었으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0장 이스라엘과 암몬 연합군과의 전투

1. 하늘을 조문하는 다윗의 사자들이 모욕당함 6.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입 9. 요압이 암몬과 아람 연합군을 패주시킴 15. 재 집결한 아람 군대를 패주시킴

구속선

본 장은 다윗 통치의 정점을 이루는 장인데 지금까지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1-5장), 영적인 승리(6-7장), 군사적인 승리(8-10장)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후, 안타깝게도 다윗은 성공의 정점에서 밧세바와 간음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인생에 환난이 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통해 더욱더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십시오.
11장 다윗의 범죄

1. 요압이 암몬의 랍바성 포위 2. 다윗과 밴세바의 간통 6. 정부의 남편인 우리아 소환 14. 다윗이 우리아를 일선에서 전사하게 함 26. 밴세바를 아내로 취함

구속선

다윗의 행동은 부패한 인간이 어떻게 죄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영적 문둥병에 걸려 죄에 무감각해진 다윗은 간음 이후에 점점 심한 죄를 짓게 되지만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12장 나단의 질책을 통한 다윗의 회개


구속선

나단은 마치 로마서 2:1의 말씀처럼 준엄하게 다윗에게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선고 받은 다윗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다윗의 회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편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암논의 범죄와 압살롬에게 암살 당함

1.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연모(戀慕) 7. 암논이 다말을 강간 15. 암논이 다말을 버림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 30. 다윗의 통곡 37. 압살롬이 달매에게로 도주

구속선

죄로 인한 다윗 왕가의 환난이 기록됩니다. 비록 다윗의 죄가 용서되었지만, 죄로 인한 비극과 비참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14장 요압은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책략을 낼


구속선

요압이 압살롬을 도운 것은 인간적인 측면 만을 고려한 실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동한 원인은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형체를 고의로 죽이기도 화개하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것은 공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피 제사의 의미를 망각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의 없는 사랑이 다윗 왕가를 또다시 비극으로 몰아간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15장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망


구속선

다윗의 정치적인 역량이 빗세바와의 관음사 건 이후로 약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반역이었기에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 보여주었던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후손의 자리에서 이탈하였습니다. 또한,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무지로 인해 불신의 계보를 따르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
이 언약궤를 가져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16장 조롱당하는 다윗

1.중상 모략으로 뮬비보셋의 재산을 삼키는 시바 5.시므이가 다윗을 저주 9.저주를 감내 하는 다윗 15.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과 후 새의 속임수 20.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

구속선

다윗의 피난길은 죄로 인한 심판이었지만, 그는 기름부음 받은 자였기에 백성에게 버 림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다윗 을 향한 다양한 태도는 기름부음 받은 자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17장 아히도벨 모략의 실패와 자살

1. 아히도벨의 모략 5. 후새의 모략 15. 후새가 다윗에게 밀사 파견 21. 위험을 모면한 다윗
23. 아히도벨의 자살 24. 압살롬의 다윗 추격
27. 다윗을 후대하는 암몬 사람들

구속선

시편 1, 2편의 말씀처럼 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는 자는 망하고 맡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한 것은 하님의 섭리였습니다.
18장 압살롬의 죽음과 다윗의 승리


구속선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를 해하려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해하려는 모략을 꾸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들을 어리석게 만드십니다.
1. 다윗의 애도와 요압의 간청 9. 민심의 수습과 다윗의 복위 16. 시므이의 사죄 요청과 용서 24. 무비보셋의 영접과 다윗의 처사 31. 바르실레와 작별을 나누는 다윗 40. 왕에 대한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

귀환한 다윗은 왕국을 무너뜨리려는 악인들을 징벌하고 왕국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일하지만 대적의 세력은 끝까지 왕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20장 반역자 세바의 죽음과 요압에게 암살당한 아마사


구속선

세바는 왕국의 혼란을 틈타 일어난 거짓된 무리로 압살롬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 기름부름 받은 자를 대적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아마사를 등용하는 실수를 거듭하여 아마사가 암살당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아마사를 암살한 요압의 행동은 다윗을 거역한 것으로 요압이 심판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21장 삼년간의 기근 해결

1. 삼 년 동안의 기근과 사울의 일곱 자손 처형으로 기브온의 피값을 치름 10.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의 묘에 이장(열장)함 15. 아비새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을 구출 18. 다윗 용사들의 업적

구속선

21-24장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있었던 사건들을 간추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본 장도 20장의 연속이라기 보다는 독립적인 사건이며 시대적으로 다윗이 브비보셋을 찾은 후 (삼하 9장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거민을 죽인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었기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근이 온 것은 당연한
심판의 결과였고 다윗은 중보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22장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1. 다윗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8.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위 17. 정의의 하나님 찬양 26.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29.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승리 47. 결론적 찬양

구속선

시편 18편과 출처가 같은 다윗의 노래로써, 삼하 7장 다윗 언약 이후 지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편 144편도 유사합니다.
23장 다윗의 마지막 노래(1-7), 군장들의 공적과 명단(8-39)

1.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 8. 다윗의 세 용사와 그들의 공적 13. 세 용사의 희생적 충성 18. 아비새와 브나야의 공적 24. 30용사의 명단

구속선

다윗에게 있어 인생 최고의 감격은 하나님의 언약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한 용사들의 이름이 제시된 이유는 기름부음 받은 자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의 용사들 이름이 나오는 히브리서 11장과 유사합니다.
24장 다윗의 인구 조사(1-9):

1. 다윗의 인구조사 10. 다윗의 회개와 선지자 갓에 의해 제시된 하나님의 형벌 15.3일간의 은역과 다윗의 회개 18.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서 드린 다윗의 제사

구속선

사무엘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본 장의 내용은, 외형적인 성공을 과시하려고 실시한 인구조사로 인해서 왕국이 심판 받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범죄의 해결책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화목이라는 사실은 현대 교회에도 큰 시사점을 줍니다.
5. 구속사의 목요일 : 에스라

[한줄 요약] 에스라가 남은자와 함께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한다

[핵심 질문] 누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가? 남은자의 예
<table>
<thead>
<tr>
<th>BC. 500년</th>
<th>에스라</th>
<th>에스라</th>
<th>바벨론-이스라엘</th>
</tr>
</thead>
<tbody>
<tr>
<td></td>
<td>이스라엘 백성 → 포로귀환자</td>
<td></td>
<td></td>
</tr>
<tr>
<td></td>
<td>예레미야 언약(렘31:31~34)</td>
<td></td>
<td></td>
</tr>
<tr>
<td></td>
<td>스룹바벨 성전</td>
<td></td>
<td></td>
</tr>
<tr>
<td></td>
<td>이스라엘 왕국</td>
<td></td>
<td></td>
</tr>
<tr>
<td></td>
<td>믿음(율법과 성막)</td>
<td></td>
<td></td>
</tr>
</tbody>
</table>
✅ 에스라 장별 약도
에스라서는 BC. 500년경 바벨론과 가나안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BC. 586년 남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귀환 허용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에스라서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남은자’입니다. 이들은 포로 귀환 허가를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을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에스라서는 종말 이후 고난을 견디 참된 믿음의 후손들이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갈 것을 예표합니다.
에스라서의 시대에 이르러 구약 성경의 역사를 통한 교훈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에스라서를 해석할 때 사사기처럼 죄와 심판의 순환구조의 일부로 보아서는 안되고,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교훈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포로귀환 이후에 구속사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변화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권은 회복되지 않고, 예레미야는 ‘새언약’을 예언하며, 성전의 언약궤는 사라집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에스더), 선지자들은 이미 마음에 계명이 새겨질 것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포로귀환기는 그 이전의 단계와 비교할 수 없는 혁명적인 변화의 시기인데, 그리스도의 도래가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구약시대를 통해 가르쳤던 모든 상징과
비유는 점차 사라지고 오직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는 구속사의 연결선을 통해 일제히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도록 변화를 두신 것입니다. 이러한 포로귀환 기의 역할은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어지면서 그리스도께 연결됩니다. 우리는 에스라사를 통해서 이러한 포로귀환 기의 왕의 길을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 에스라 구속사 맥잡기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
후손 : 믿음의 후손, 남은자

에스라와 귀환자는 참된 믿음을 지킨 믿음의 후손들로서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까지 이어지는 남은자들의 사명입니다.

심판을 통한 보존

언약 공동체는 표면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믿음과 불신의 계보가 계속 나누어지는데 사탄이 계속 가라지를 심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계보가 다수가 되면, 오히려 신자는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언약 공동체를 불신의 계보가 점령하면 하나님께서는 표면적 언약 공동체를 심판하시고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의 남은자들 지키고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위한 특단의 조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믿음의 후손인 노아 가문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 개입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께서는 타락한 언약 공동체를 심판하시는는데, 남은자를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언약 공동체가 다수의 불신자들에 의해서 타락해 갈 때 하나님의께서는 남은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특별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 공동체의 멸망이 믿음의 후손의 멸망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께서는 거짓된 언약 공동체는 심판하고 참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의 멸망을 허용하였습니다.

다윗 왕권의 몰락

포로 귀환 이후 다윗 가문의 왕권은 회복되지 않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께서 다윗과 언약하신 내용과 어긋나는 것입니다(삼하 7:16).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속적인 왕권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되고,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해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포로 귀환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래를 준비하는 과도기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그리스도를 예표하였던 그림자들은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권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과 언약궤가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언약 : 선지자들을 통한 위로와 격려

하나님께서 남, 북 왕국의 멸망할 즈음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 언약을 상기시켜서 언약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응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심판 가운데서도 언약의 후손은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심판을 이기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가시적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불가시적 교회, 즉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심판을 통과해서 굳건하게 유지될 것을 알려줍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언약의 실현과 그 이후 언약의 후
손이 들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새나라에 대한 계시를 알게주셨습니다. 즉, 돌이 아닌 마음에 계명이 새겨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남은자들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겉보기에는 무너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지만,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특징은 언약궤가 없다는 점입니다. 성전의 핵심이자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의 파괴 이후 다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Лени 3:16]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가 사라진 이유는 앞으로 성전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전은 그 역할을 마무리하고 사라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구속사가 진행될수록 그리스도가 선명해지고 나머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들은 희미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업 : 다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제사장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끌고 귀환하게 하심으로써 열방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귀환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우상숭배를 극복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세상의 열왕마저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는 강대국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었으나, 열국들의 흉망성쇠와 열왕들의 권세마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고는 생각이 바뀌게 되며,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님에 대한 체험을 민족 공동체의 정신 속에 잊지 않고 유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이 결코 포기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가나안 땅이 언약 공동체의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가나안 땅 만이 아니라 열방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메시지입니다. 즉, 디아스포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포로 귀환기 이후에는 가나안 땅의 중보적 기능

494
도 약화되고 영적인 기업의 의미가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계명 : 계속되는 개혁의 필요성

포로 귀환자들은 계속되는 타락의 유혹 앞에 개혁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믿음이 소유물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계속되는 개혁은 우리 마음을 매일 새롭게 개혁하시는 성령님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에스라서의 개혁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외적인 개혁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와 근본적인 개혁즉, 믿음으로 인한 새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외적인 율법과 성전의 제사라는 계명만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근본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계명을 마음에 새
겨주셔야만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1장 고레스 칙령과 귀환

1.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 5.귀환 하는 유대인들과 주변인의 협조 7.고레스가 성전 기명들을 돌려 줍

구속선

고레스 조서는 단순히 귀환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백성의 귀환이 단순히고향으로 돌아가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성전 건축을 이루도록 명령된 사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장 귀환자들의 명단

1. 1차로 귀환한 지도자와 일반 백성들 36. 제사장과 레위인들 43.느디님인들 55.솔로몬의 신복 자손들 59.혈통 불명의 백성과 제사장들 64.귀환자 총계 68.성전 재건을 위해 드린 예물을

+ 구속선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시킨 것은 믿음은 반드시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편, 우밍과 둘 밉은 가진 제사장이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포로귀환이 이스라엘이 포로 전상황으로 복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3장 성전 예배의 회복과 성전 지대의 기공식

1.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절기를 지킴 7.성전 재건 공사 준비와 감독자 10.성전 재건 착수와 백성들의 환희

구속선

스룹바벨 성전은 과도기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영광을 제한하십니다. 겉모습만 보고 슬퍼한 사람도, 기뻐한 사람도 그리스도 그림자로서 성전의 역할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4장 성전 건축의 방해

1. 사마리아인의 성전 재건 방해 7.방해를 위해 아달사스다에게 올린 고소문 17.아달사스다가 공사 중지를 명령 24.성전 재건 공사의 중단

게속선

성전 공사의 중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기 위한 일일수록 대적들의 방해가 극심하다는 사실을 보게됩니다.
5장 성전건축과 다리오왕에게 보낸 허락 청원 조서

1. 선지자들의 격려로 성전 건축 재개 3.이 방 총독들이 성전 재건을 심문 6.다리오에 게 보낸 총독들의 보고

구속선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니다.
6장 다리오 왕의 허락과 완성

1. 다리오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조서 13. 새 성전의 완공 16.성전 봉헌식 19.유월절 준수

구속선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식이 거행되니. 성전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오히려 그 의미는 커졌는데, 그 이유는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어 야 했기 때문입니다.
7장 에스라 귀환의 허락

1.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귀환 11.에스라에게 준 아닥사스다 왕의 귀환 허락 조서(아람어) 27.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함

구속선

아닥사스다가 에스라의 귀환을 허락한 이유 또한 이스라엘 땅에서 율법을 가르치려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서 바벨론에 보존되어 있던 구약 계시의 계승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 보존되었던 믿음을 가지고 귀환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8장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

1.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들 15.아하와 강변에서 성전 봉사자 선택 21.아하와 강변에서 안전을 위한 금식 기도 24.헌납 제물을 제사장에게 위탁 31.예루살렘에 무사귀환 35.귀환자들이 드린 번제와 조서 전달

+ 구속선

에스라는 믿음의 족보에 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번제를 드림으로써 믿음의 계승자임을 보여줍니다.
9장 에스라의 기도

1.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이방 잡혼 3. 에스라의 탄식과 회개 기도

구속선

귀환자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여 믿음의 순수성을 보존하지 못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이때, 백성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에스라의 기도는 중보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10장 이방인과 결혼에서 개혁 촉구

1. 에스라와 백성들의 통회 자복 및 개혁을 제안 받음 5.총회 결의 16.개혁을 위한 조사 착수 18.이방과 잡혼했던 자들의 명단

구속선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율법에 의한 개혁운동을 진행하는데, 이것은 죄를 질책하고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율법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포로귀환기가 과도기적인 시대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언약 자손의 계보가 지켜져야 만 했기에 이러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 다.
알파벳으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애

Angel (천사): 천사가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 (마 1:18-25, 눅 1:5-28)

Birth (탄생):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마 2:1-12, 눅 2:1-20)

Carpenter (목수):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하신 (마 2:19-23, 눅 2:29-52)

Dove (비둘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옴 (마 3:11-1, 눅 3:15-23)


Followers (제자들): 열 두 제자들을 부르심 (요 1:19-51)

Guest (손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심 (요 2:1-11)

Housecleaning (성전정화): 성전을 정결케 하심 (요
Interview(면담) :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심 (요 3:1-21)

Jacob's well(야곱의우물) :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 (요 4:5-42)

Kin(친척) :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함 (눅 4:16-31)

Location(장소) : 가버나움으로 사역지를 옮기셔서 공생애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냄 (마 4:13-22)

Message(메세지) : 산상수훈 (마 5-7)

Nature(자연) : 자연을 압도하는 신성을 소وع하고 있음을 나타내심 (눅 7:1-35)

Opposition(반대) :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반대 (마 12:22-50)

Parables(비유) :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심 (마 13:1-
53, 막 4:1-34

Question(질문) : 베드로의 신앙고백 (막 16:13-28,눅 9:22-36)

Revelation(계시) :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줌 (막 17:1-13)

유월절 3

Stoning(돌질) :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을 돌로 치려함 (요 10:22-39)

Tomb(무덤) : 나사로의 무덤 (요 11:1-54)

Upset(뒤적음) :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옆음 (막 21-23)

Vision(미래에 나타날 일들) :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설명 (막 24-25)

Washing(씻김) :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 (요 13)

Execution(사형) : 십자가에서 돌아가십 (막 26:30-27:56)

유월절 4
Yes(예): 그렇다.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마 28, 뉴 24:1-49)

Zion(시온): 시온산에서 승천 하실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다 (뉴스 24:50-53, 행 1:1-12)

- 테리 홀, 성경 파노라마, 규장. 184
6. 구속사의 금요일 : 4복음서

[한줄 요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언약의 실체가 되신다

[핵심 질문]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오셨는가? 언약의 실체, 십자가 대속을 위해 오심
<table>
<thead>
<tr>
<th>AD. 30년</th>
<th>4복음서</th>
<th>예수 그리스도</th>
<th>이스라엘</th>
</tr>
</thead>
<tbody>
<tr>
<td></td>
<td>제자들</td>
<td></td>
<td></td>
</tr>
<tr>
<td></td>
<td>새언약(눅22:19~20), 보혜사(요14:16) 언약</td>
<td></td>
<td></td>
</tr>
<tr>
<td></td>
<td>예수 그리스도의 몸</td>
<td></td>
<td></td>
</tr>
<tr>
<td></td>
<td>잃은 자</td>
<td></td>
<td></td>
</tr>
<tr>
<td></td>
<td>믿음(예수 그리스도)</td>
<td></td>
<td></td>
</tr>
</tbody>
</table>
✅ 마가복음 장별 약도

금요일 (마가복음)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에돔

515
4복음서는 AD. 30년의 이스라엘 땅을 배경으로 합니다. 주로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권은 비슷한 내용이 많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기 때문에 ‘공관복음(동시에 보았다는 뜻)’이라고 이름 지어서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보다 한참 뒤에 공관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창세기 3:15에서 하나님의께서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어 이 땅에 실제로 도래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약 성경에 제시된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최종적으로 구속 사역을 마무리하셨는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면, 4복음서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가 참으로 감격스러운 사건으로 깨달아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을 교회를 통해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숨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4복음서를 통해 구속사 5선이 가리키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알고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마가복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삶을 행동 중심으로 묘사해 놓았기에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 4복음서 구속사 맥잡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 5선의 실제자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에 이르러 구속사의 흐름은 한 곳에 모이고, 교회로 이어지게 됩니다.
후손 :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 : 언약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15에서 시작된 하나님 언약을 모두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봅니다.
성전 : 참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에 비유하여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신자의 마음 속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자의 몸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기업 :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 믿음의 후손의 기업은 그리스도 자신이 되셨으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명 : 마음에 새겨진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후손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는데, 이 계명은 그리스도의 영에게 순종함으로 지킬 수 있고, 모든 계명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자인 마가가 썼으며, 복음서 중에 가장 먼 저, 로마 교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전 해집니다. 마가복음은 가장 분량이 적고 실 용적이며 예수님의 행적을 영화처럼 빠르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의 별명은 ‘종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종 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빠른 시간 안에 살펴보고 싶다면 마 가복음은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마가복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막8:29)는 예수님의 질문을 분기점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질문 앞 부분의 주제는 “ 예수님은 누구신가?”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베푸셔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후반부의 주제는 “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이고 이 부분에서는 기적이 현저하게 줄어 들고 고난 예고, 제자의 자세와 인격, 재림 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섬김과 대속물

마가복음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요절은 10장45절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하신 구절입니다. ‘섬김’과 ‘대속물’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섬김’과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는 대신 하여 섬기리 오신 예수님을 보게
되며, 섬김이라는 말은 마태복음의 ‘왕’이라는 단어와는 정반대로 ‘종’의 모습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특히 가르치시는 말씀 사역보다는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치료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행해야 했던 그 모습을 모여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통치자’ 즉 ‘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섬겨야 할 ‘종’이기도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으로 의로운 삶,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의무를 부여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를 대신하시며 ‘섬기는 종’으로서의 본을 보이십니다. 예수님
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의로운 삶을묵묵하게 인류를 대신해서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섬김’과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러한 섬김의 절정으로써 즉흥적이거나 우연적인 일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된 사건입니다.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1장 세례/전파

1. 세례요한의 전도 9. 예수님의 수세와 시험
35. 예수님의 기도와 활동 40. 문둥병자를 고치심

구속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시고, 시험을 통과하셨으며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복음은 전파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2장 중풍병자, 의사 예수님, 안식일

1. 중풍병자를 고치심 13.레위 마태를 부르심 15.세리들과 먹으심 18.금식 문제 23.안식일의 주인

구속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치료를 통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3장 안식일 논쟁, 열두 제자 선출

1. 안식일에 손마른자 고침 7.무리들의 반응 13.12제자 선택 20.성령 훼방 죄 31.영적 새가족

구속선

안식을 등 구약의 절기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후손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성령 훼방 죄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4장 좋은 땅, 겨자씨 비유, 풍랑을 잔잔케 하심

1. 씨 뿌리는 비유 10.해석 21.등불 비유 26. 자라는 씨 비유 30.겨자씨 비유 33.예수와 비유 사용 35.풍랑을 잔잔케 하심

구속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가 필요함을 가르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사 인간이 아닌 창조주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5장 거라사 광인,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아
이

1.군대 귀신 축출 18.귀신들렸던 자의 증거
21.야이로의 간청 25.혈루증 여인의 믿음
35.야이로의 딸을 살림

구속선

계속되는 치료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메시아심을 증거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6장 열두 제자 파송, 오병이어

1.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 당함 7.12 제자 전도 파송 14. 세례요한의 죽음 30. 오천명 먹이심 45. 물위를 걸음 56. 제네사렛서 병자 고침

구속선

열 두 제자를 파송하여 실습 교육을 시키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만나임을 나타내십니다.
7장 부정한 손 논쟁

1. 바리새인의 장로유전(제자의 손 씻음 문제)
9. 계명 어김을 꾸짖음(고르반) 14.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24. 수로보니게 여인 31. 귀먹고 어눌한 자 고치심

구속선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율법을 왜곡하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장로들의 유전은 인간적인 규약일 뿐이기에 영적 생명이 없습니다.
8장 칠병이여, 베드로 고백

1. 사천 명을 먹이심 11.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함 14. 바리새인들의 누룩 경 제와 제자들의 무지 22. 벼간다사 침발라 소경을 고침 27. 베드로의 신앙고백 31. 첫 수난예고 34. 십자가의 길 (9:1)

구속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 지며수난을 예고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 9장 변화산 사건

2. 변화산 사건 9. 엘리야에 관한 질문 14. 간 질병의 아이 고침 30. 두번째 수난 예고 33. 큰자의 다툼과 겸손의 교훈 38.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를 금치 말라 42. 소자를 실 족케 하는 것 43. 범죄를 경계

구속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왜 오셨는가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십시오.
10장 이혼 계명, 부자 청년

1. 이혼에 대해 13.어린 아이를 축복 17.부자청년 23.부(富)의 위험 32.세번째 수난에 고 35.세베대의 아들들과 섬김의 교훈 46.소경 바디매오를 고치심

+ 구속선

기적에 대한 기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세와 인격, 고난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됩니다.
11장 예루사렘 입성, 무화과 저주

1. 예루살렘 입성 12. 무화과나무 저주 15. 성전 정화 20. 무화과나무의 마음과 믿음의 위력 27. 유대 지도자들과 충돌(무슨 권세로~)

구속선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대속의 제물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라 열매 맛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경고하십시오.
12장 포도원 농부, 칠형제 질문

1. 포도원 농부 비유 13. 세금문제 18. 사두개인/부활에 대해 28. 가장 큰 계명 35. 다윗 자손에 대한 질문 37. 서기관을 조심하라 41. 과부의 연보

구속선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않은 백성의 심판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13장 재림 징조


구속선

재림에 대해 가르치심으로 제자 교육을 마무리 하시고, 성전의 파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단계를 예고하십니다.
14장 성찬, 체포

1.체포 음모 3.마리아의 기름부음 10.유다의 예수님 매매 약속 12.유월절 식사준비 17.최후의 만찬 26.베드로의 부인(否認) 예고 32.겟세마네 기도 43.체포 53.대 제사장 앞에서 66.베드로의 부인(否認)

+ 구속선

마리아가 기름부은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경고하시 좌절에서 일어설 것을 당부하시고 겷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15장 십자가

1. 빌라도의 재판 6. 예수냐, 바라바냐 16. 병정들의 조롱 20. 십자가를 지심(구 레네 시몬) 24. 십자가 처형 33. 예수님의 죽음 42. 장사지념

+ 구속선

십자가에 달리사 인류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자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 지혜, 능력이 어우러진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16장 부활, 나타나심

1. 여인들의 무덤 방문, 부활, 청년(천사) 9.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심 12~14. 두자제와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심, 믿음 강화 19.승천

구속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승천하시며 천상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7. 구속사의 토요일 : 사도행전

[한줄 요약] 바울이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교회를 확장한다

[핵심 질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리스도의 영
**사도행전 구속사 도표**

<table>
<thead>
<tr>
<th>AD. 30년</th>
<th>사도행전</th>
<th>바울</th>
<th>지중해 연안</th>
</tr>
</thead>
<tbody>
<tr>
<td></td>
<td>제자들 → 교회</td>
<td></td>
<td></td>
</tr>
<tr>
<td></td>
<td>재림언약(행1:11)</td>
<td></td>
<td></td>
</tr>
<tr>
<td></td>
<td>신자</td>
<td></td>
<td></td>
</tr>
<tr>
<td></td>
<td>땅끝(은세상)</td>
<td></td>
<td></td>
</tr>
<tr>
<td></td>
<td>믿음( 그리스도의 영)</td>
<td></td>
<td></td>
</tr>
</tbody>
</table>
사도행전은 AD. 60년경 지중해 연안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내용이고 활동무대도 예루살렘과 유대지방인 반면, 13~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활동무대도 지중해 위쪽의 로마영토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교회’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대성 되었다가 교회로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속사의 마지막 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은 하나님의 도
구로서 종말 이후 회복될 천국과 영적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믿음의 후손들’이 사탄의 왕국에 교회를 건설하여 확장하고 전파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연상하며 교회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직면한 위험과 피해야 할 유혹,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누가복음은 서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
아를 기다리다가(눅2:25, 36; 3:15) 메시아 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를 믿고 기다리다가 약속하신 성령님을 만난 120명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두에 예수님께서 “ 저희에게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사도행전을 해석하는 열쇠가 되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은 책 제목 때문에 사도들에 게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사도행전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지만, 스스로를 낳추셔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역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구속사 맥잡기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
후손, 언약, 기업, 계명 :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엡3:9)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대성된 구속의 5선이 집약되는 구속사의 유업을 이을 단체입니다. 주의할 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약되었던 구속사의 모든 계시가 교회로 온전히 상속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계시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구속사의 경륜에서 유대인 교회보다 이방인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알려주시고 이방인 교회가 믿음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믿음 위해 교회를
세우도록 독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택된 이유는 그가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생생한 체험을 겪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서 개척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후손뿐만 아니라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이 모두 교회로 상속되며, 교회에 관한 계시로 집약됩니다.
구속사 장별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1장 예수님 승천과 맛디아 선출

1. 부활 후 사역과 성령강림의 약속  6.최후 명령과 승천 12.다락방의 합심기도  15.사도 직 보궐=맛디아 세움

구속선

성령 강림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언약을 믿 고 기다린 사람들이 믿음의 계승자가 된 것 을 보게 되며, 맛디아를 뽑아 12사도의 숫자를 채운 것은 구약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2장 성령의 강림, 사람들 반응

1. 오순절 성령 강림 *베드로 설교 [14.베드로의 설교 22.예수의 부활에 대해] 37.베드로의 설교 결과(3,000명이 회개) 42.초대교회 공동체 특징

구속선

교회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계서 그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교회는 믿음의 계승자로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한편,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준 완벽한 모범 설교입니다.
3장 앉은뱅이 치료, 베드로 설교

1. 은과 금 내게 없어도(미문의 앉은뱅이)
12. 베드로의 두번째 설교(회개하고 그리스도 믿으라)

구속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교회도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베풀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와 ‘그리스도는 왜 오셨는가?’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과 설교는 이 두 질문에 대한 답변이면서 예수님의 길을 찾는 행동입니다.
4장 공회의 베드로, 요한 위협

1. 베드로와 요한의 갓힘 5.제사장 앞의 베드로 13.베드로와 요한이 공회로부터 풀려남 23.성도들의 성령에 찬 기도 32.성도들의 공동생활(유무상통)

구속선

박해 가운데서도 왕성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적으로는 가라지와 같은 거짓신자를 통해서 입니다.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1. 아나니아와 삽비라
12.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
17. 사도들의 잡힘, 천사
21. 성전에서 전파
27. 공회 앞의 제자들
33. 가말리엘의 변호
41. 풀려난 제자들

군속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믿음의 계승자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은 초창기교회 신자들에게 생생한 실제로서 인식되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믿음의 계승자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한 데 있습니다.
6장 일곱 집사 선출

1. 일곱 집사들 선택 8.스데반의 체포와 심문

구속선

일곱 집사 선출은 교회 조직이 세워지는 것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윗 왕국으로 전환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성장하고 발전한 것을 보여줍니다.
7장 스데반의 설교와 순교

* 스데반의 설교[1.아브라함에서 11.야곱  18.요셉  20.모세 망명  30.모세의 소명과 사역  44.장막과 성전(여호수아,다윗,솔로몬)]  54.첫 순교자 스데반

구속선

스데반의 순교는 초창기 교회 신자들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구속사적인 성경 이해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통해 그들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8장 교회 핵박과 빌립 전도

1. 사울의 핵박, 성도의 흩어짐 4.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9.마술사 시몬의 회심 14.베드로와 요한-사마리아 성령세례 18.권능을 사려는 시몬 26.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구속선

빌립과 베드로, 요한 등을 통해서 교회의 왕성한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사마리아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중해 주신 것입니다(엡1:13).
9장 사울의 회심

1. 다메섹 도상의 체험
10.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
19. 사울의 다메섹 전도
23. 예루살렘으로 도피 *베드로의 두가지 이적[32. 애니아 치유
36. 다비다(도르가)살림]

구속선

사울의 회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일어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심하게 됩니다.
10장 고넬료 회심

1. 고넬료가 본 환상 9. 베드로가 본 환상 17. 고넬료의 베드로 방문 23. 베드로의 고넬료 방문 34. 베드로의 설교 44. 이방인에게 내린 성령

구속선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요엘에게 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교회의 확장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영께서 임하시어서 이루어집니다.
11장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설명, 안디옥 교회

1. 베드로를 힐난하는 할례자들과 베드로의 변론 19.안디옥 교회의 탄생 27.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

구속선
이방인에게까지 교회가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로 시선을 돌립니다.
12장 베드로의 옥중 구출 사건


구속선

믿음의 후손을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 는 더욱 흥양하게 됩니다.
13장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사울 파송

1. 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로 파송

+ 구속선

바울의 1차선교여행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믿음의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13-14장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13장 - 1.바울과 바나바 선교사로 파송 4.구브로(박수 엘루마) 13.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의 설교) 44.유대인들의 반대와 많은 이방인이 믿음

14장 - 1.이고니온 전도-돌로 치려함 8.루스드라 전도-앉은뱅이 치유-쓰스와 허메 19.돌에 맞음-선교 종합 보고-안디옥 귀환

구속선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은 지중해 북쪽 갈라디아 지방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는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것은 에스더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아스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5장 예루살렘 공회

1. 예루살렘 회의 동기 6. 베드로의 발언 12. 야고보의 결정 22. 예루살렘 회의서 이방선교 결정(바울, 바나바, 유다, 실라) 36. 바울과(실라)-바나바(마가) 이별

구속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완성되었음을 선언하고, 몇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다하고 언약의 실제이자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15:36-18:22)

16장 - 1.디모데를 만남(할례) 6.드로아서 환상 11.빌립보에서 루디아 전도 16.점하는 여종에게 귀신 축출 19.빌립보 옥에 갇힌 바울 25.감옥을 흔든 치킨과 빌립보 옥의 간수가 믿음 35.바울의 풀려남

17장 - 1.데살로니가 전도(야손의 집) 10.베뢰아 전도(더 신사적) 16.아덴에서 전도(아레오바고에서)=사변적 쟁론

18장 - 1.고린도에서 아쿨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만남 4.1년6개월 전도사역 12.유대인의 송사와 갈리오 총독의 재판 거부 18.2차 전도 여행 마감(겐그레아서 색발)–안디옥 귀환 23.3차 전도여행 시작 24.에베소에 있는 아볼로

572
구속선

바울의 2차 선교여행입니다. 바울의 선교여행으로 세워진 교회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바울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믿음의 전쟁을 계속합니다.
●계속 바울의 3차 선교 여행(18:23-21:16)

19장 - 1.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세례 8.두란노 서원서 강론(2년) 11.바울의 이적 13.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는 마술사들 21.바울의 선교계획 23.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소동

20장 - 1.마게도냐와 헬라 전도 6.드로아서사역(유두고 살림) 13.밀레도에 이르는 여정 17.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별을고하는 바울

21장 - * 예루살렘행을 막는 제자들 [1.두로서 작별 7.가이사랴 빌림의 집-아가보] 17.예루살렘을 방문한 바울 27.바울이 체포당함 37.바울의 변론
구속선

바울의 3차 선교여행에서는 1,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강하게 하고, 목회자를 보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자라나도록 도왔습니다.
예루살렘 여행 (21:17-26:32)

22장 - 1. 천부장 앞에서 변론 6. 다메섹 경험 간중 17. 이방인의 사도 사명을 간중 22. 로마 시민권으로 위기 모면 30. 공회에 넘겨진 바울

23장 - 1. 공회 앞에 선 바울의 변론 7. 바리 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 11. 주님의 환상 - 로마로의 사역 12.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23. 가이사랴(벨릭스)로 호송

구속선

예루살렘에서 붙들린 바울은 분노한 유대인 들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 하고 지혜롭게 죽음의 위험을 피해나갑니다.
24장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

1.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는 더둘로
10. 바울의 변호 22. 벨릭스가 판결을 연기
24. 판결 연기 - 종합보고 =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 구속선
바울은 로마 총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벨릭스는 믿음의 후손이 되지 못합니다.
25장 베스도, 아그립바 앞에서

1. 대제사장과 높은 자들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 6. 베스도에게 변호-가이사에게 호소 13. 베스도가 아그립바에게 바울 일을 의논 23. 아그립바에게 심문을 요청하는 베스도

구속선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 또한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합니다.
26장 바울의 증언

1. 아그립바에게 다메섹 체험을 중심한 변론(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24. 바울을 미쳤다 하는 베스도 26. 아그립바에게 믿을 것을 권유 30.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는 아그립바

구속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통해 자신의 복음을 들려주지만 아그립바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27장 로마에로의 여행(27:1-28:31)-가이 사라에서 멜리데(1-44)


구속선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행은 바울 전도 여행의 절정을 이룹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계승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28장 멜리데에서 로마(1-16);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는 바울(17-31)

1. 멜리데 섬의 환대 3. 독사에게 물린 바울 7. 많은 병자를 고침과 후대 1.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압비오삼관) 16. 유대인을 청하여 토론 23.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 30. 바울의 로마생활

구속선

바울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8. 구속사의 일요일B : 요한계시록

[한줄 요약] 요한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안식을 되찾은 그리스도의 새나라를 본다

[핵심 질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새나라
요한계시록 구속사 도표

<table>
<thead>
<tr>
<th>AD. 90년</th>
<th>요한계시록</th>
<th>요한</th>
<th>빗모섬</th>
</tr>
</thead>
<tbody>
<tr>
<td>교회 → 교회(이기는 자)</td>
<td></td>
<td></td>
<td></td>
</tr>
<tr>
<td>모든 언약의 성취(계21:6, 이루었도다)</td>
<td></td>
<td></td>
<td></td>
</tr>
<tr>
<td>새예루살렘 성</td>
<td></td>
<td></td>
<td></td>
</tr>
<tr>
<td>새하늘과 새땅</td>
<td></td>
<td></td>
<td></td>
</tr>
<tr>
<td>믿음(삼위일체 하나님)</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요한계시록 약도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 밋모섬에서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로마의 박해 가운데 놓인 교회들을 위로하면서, 장차 교회가 들어가게 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혹독한 박해를 받는 교회들에게 구속사를 영적인 차원에서 정리하여 보여주고, 믿음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시록 첫 번째 부분은 1~20장까지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구속사가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두번째 부분은
21~22장으로 안식을 회복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내용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사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깨어진 안식이 계시록 20~22장에서 회복되는 모습은 주의를 기울이고 보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성취를 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3번의 ‘이루심’으로 되어있는데 3번의 ‘이루심’ 중에서 마지막 이루심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첫번째는 창세기 2:1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는 첫 창조를 가리킵니다. 두번째는 요한복음 19:30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습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구속을 위한 대속이 완성된 것을 가리킵니다. 세번째는 요한계시록 21:6에서 “이루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선언으로 재창조가 완성되어 하나님이나가 안식을 되찾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사역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구속사역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귀중한 책임입니다.

중심 주제 : 보좌에 앉으신 어린왕
요한계시록은 난해한 책이라는 선입견이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틈타서 이단과 불량한 사람들이 자
의적으로 해석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을 기른 사람은 세부적인 난해 구절을 제외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맥락이 자연스럽게 해석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에는 많은 상징들과 묵시들이 있어서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지엽적인 문제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격려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계1:1)로 시작합니다. 이는 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그(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계1:1)라고 하여서 계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계시록의 주제가 ‘인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과 같은 재앙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계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증언하였기 계시 록에서도 ‘어린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앞 장의 내용을 암기해서 A4용지에 적어보세요.
요한계시록 구속사 맥잡기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
후손 : 이기는 자, 교회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밋모섬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총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신자와 사탄의 싸움을 묘사하고 안식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믿음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별인 전쟁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실상은 전쟁과 같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기는 자가 믿음의 후손임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드디어 알곡과 가리지를 나누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마지막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후손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된 교회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기는 자’라는 단수로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관한 언약 중에서 유일하게 성취되지 않은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요한계시록을 통해 미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22에 나타난 하늘에서 내려온 새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전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에는 창세기 1~2장의 에덴동산처럼 자체가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의 새예루살렘 성은 에덴동산보다 더 월등한데, 새예루살렘에 거하는 신자들의 영혼에는 임마누엘 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22장의 새예루살렘 성은 단순히 에덴동산에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덴동산을 뛰어넘는 감격과 감사가 있는 천국입니다. 여기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갖는 분명한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구속사적 성경 해석은 최초 에덴동산을 완전한 천국이 아닌 천국의 모형으로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21~22장에 나타난 천국을 온전한 천국의 완성으로 여깁니다. 하나님님의 나라는 구속사를 통해 온전해 지며,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이 울려 퍼지는 진정한 천국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기업 : 새예루살렘

영적인 기업 만을 소유했던 교회는 이제 실제적인 기업인 '새예루살렘'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새예루살렘 보다 뛰어난 기업은 바로 신자의 마음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새예루살렘은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계명 : 이마에 있는 이름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 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계명이 되어주십니다. 이제는 돌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계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어길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표현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제시된 결혼 계명이 요 한계시록에 이르러 완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 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듯 신자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함 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
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에 나타난 핵심 개념인 것입니다.
구속사 장벌 개관에서는 구속사의 5선 후손, 언약, 성전, 기업, 계명을 고려하여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읽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유기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하는 관점을 기르는데 포인트를 두시기 바랍니다.
1장 계시의 근원자 예수님 그리스도

서론 4.일곱 교회에 문안 9.집필 분부를 받음 12.예수 그리스도의 환상

구속선
요한계시록에서 계시의 주체는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런 모습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어주십니다.
2-3장 7교회에 대한 편지

7교회에 편지하여 칭찬과 또한 책망과 권면, 또한 약속의 말씀을 각각 주셨습니다.

<table>
<thead>
<tr>
<th>교회</th>
<th>칭 찬</th>
<th>책망 및 권 면</th>
<th>약 속</th>
</tr>
</thead>
<tbody>
<tr>
<td>에베소교회</td>
<td>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냄(2-3)</td>
<td>처음사랑을 버림(4) 회개하여 처음행위를 가짐(5-6)</td>
<td>일곱별을 불잡고 일곱금 촛대 사 이를 다니시는 분이(1)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함(7)</td>
</tr>
<tr>
<td>(2:1~7)</td>
<td></td>
<td></td>
<td></td>
</tr>
<tr>
<td>서머나교회</td>
<td>한난과 궁핍(9)을 받았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임</td>
<td>책망은 없음. 한난 속에서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신(10)</td>
<td>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습니라 살아나신 이(8)가 생명의 면류관(10)을 주심</td>
</tr>
<tr>
<td>(2:8-11)</td>
<td></td>
<td></td>
<td></td>
</tr>
<tr>
<td>버가모교</td>
<td>내 이름을 발람과 니콜</td>
<td>좌우에 남선</td>
<td></td>
</tr>
</tbody>
</table>

602
<table>
<thead>
<tr>
<th>회</th>
<th>(2:12-17)</th>
<th>두아더리교회</th>
<th>(2:18-29)</th>
<th>사데교회</th>
<th>(3:1-6)</th>
<th>빌라델피아교회</th>
<th>(3:7-13)</th>
</tr>
</thead>
<tbody>
<tr>
<td>회</td>
<td>굳게 잡고 죽임을 당하여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음(13)</td>
<td>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더 많아짐(19)</td>
<td>이세벨을 용납, 행음 (20-24).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25)</td>
<td>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있음 (4)</td>
<td>살았다 하나 죽은 자(2). 굳게하라, 회개하라(3-4)</td>
<td>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음(8)</td>
<td></td>
</tr>
<tr>
<td>라당의 교훈을 지킴(14-15). 회개하라(16)</td>
<td>이세벨을 용납, 행음 (20-24).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25)</td>
<td>살았다 하나 죽은 자(2). 굳게하라, 회개하라(3-4)</td>
<td>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음(8)</td>
<td>살았다 하나 죽은 자(2). 굳게하라, 회개하라(3-4)</td>
<td>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음(8)</td>
<td>적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치 않음(8)</td>
<td></td>
</tr>
<tr>
<td>검을 가지신 이(12)가 감추었던 만이나 흰 돌(17)을 주심</td>
<td>눈이 불꽃, 발이 주석 같은 이(18)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td>
<td>눈이 불꽃, 발이 주석 같은 이(18)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td>
<td>눈이 불꽃, 발이 주석 같은 이(18)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td>
<td>눈이 불꽃, 발이 주석 같은 이(18)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td>
<td>눈이 불꽃, 발이 주석 같은 이(18)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td>
<td>눈이 불꽃, 발이 주석 같은 이(18)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철장, 새벽별</td>
<td></td>
</tr>
</tbody>
</table>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7) 성전의 기둥 (12)이 되게 하심.
<table>
<thead>
<tr>
<th>(10-11)</th>
</tr>
</thead>
<tbody>
<tr>
<td>라오디게 아교회 (3:14-22)</td>
</tr>
<tr>
<td>칭찬은 없음 (미지근함 (15-16)과 영적 자만 (착각)과 자 랑 (18). 열심을 내라, 회 개하라 (19) 아멘, 충성되 고 참된 중 인, 창조의 근본이신 이 (14)가 보좌 에 함께 앉 게 하십 (21).</td>
</tr>
</tbody>
</table>

구속선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책망과 권면의 말씀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지네 4장 하늘의 보좌 광경

1.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목격 4. 보좌에 둘러 앉은 24장로 5. 보좌 앞의 하 나님의 일곱 영 6. 보좌 주위의 네 생물이 하나님의 경배 10. 24장로들이 하 나님을 찬양

구속선

요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늘 나라 회의에 참석합니다(사 6장). 그곳에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5장 일곱인으로 봉한 책을 떼시는 예수님

1.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 발견 2. 인을 떼 자가 없음 7.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취함 8. 네 생물과 24장 로들이 어린 양을 찬양 11.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 13. 만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

구속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table>
<thead>
<tr>
<th>일곱 인</th>
<th>나타난 현상</th>
<th>의미</th>
</tr>
</thead>
<tbody>
<tr>
<td>첫째 인 (1~2)</td>
<td>흰 말이 있고,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려 함</td>
<td>예수 그리스도의 승리</td>
</tr>
<tr>
<td>둘째 인 (3~4)</td>
<td>붉은 말이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고, 죽이게 하고 큰 깃을 받습니다</td>
<td>전쟁의 시작 (마24:7; 단 7:21)</td>
</tr>
<tr>
<td>셋째 인 (5~6)</td>
<td>검은 말이 있고, 탄 자가 저울을 가졌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오, 보리 섭 되로다”</td>
<td>기근의 시작 (렘 5:10, *레 26:14-39)</td>
</tr>
<tr>
<td>넷째 인 (7~8)</td>
<td>청황색의 말과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따른다. 땅 사분의 일을 검, 흉년, 사망으로 죽인다</td>
<td>질병, 은역의 시작 (눅 21:10)</td>
</tr>
<tr>
<td>다섯째 인 (9~11)</td>
<td>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신원을 간구하며, 흰 두루마기로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게 합니다.</td>
<td>잔승이 주는 환난 시작과 성도들의 인내</td>
</tr>
<tr>
<td>여섯째</td>
<td>큰 지진.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td>
<td>주의 날의 심판 (마24:29-30)</td>
</tr>
</tbody>
</table>

607
| 인 (12~17) | 떨어지고, 산과 섬이 옮기우고, 땅의 임금들은 숨고 어린양의 진노에 숨을 수 없다 합니다. | 이 일 후에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7장) |
| 일곱째 인 (8:1) |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나팔 재앙이 준비됩니다. | 나팔 재앙 준비 |

**구속선**

구속사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과 같이 최후 심판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 을 갖기 위해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7장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 감

1. 땅을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
2.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성도들을 올 인치기 위해 등장
4. 인침을 받은 성도 수=14만 4천
9. 흰 옷 입은 무리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
11.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
4천
9. 흰 옷 입은 무리들의 정체
15.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

구속선

예정된 믿음의 후손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심판이 미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는 믿음의 후손들의 구원 여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8:2-11:19 7가지의 나팔들

1. 일곱째 인을 데다  2.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음  3. 하나님께 상달되는 금 향로의 향기=성도의 기도  6.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

<table>
<thead>
<tr>
<th>일곱 나팔</th>
<th>나타난 현상</th>
</tr>
</thead>
<tbody>
<tr>
<td>첫째 나팔 (8:6-7)</td>
<td>피 섞인 우박, 불이 땅에 쏟아짐, 땅의 3분의 1이 타고 수목의 3분의 1도 탄다</td>
</tr>
<tr>
<td>둘째 나팔 (8:8-9)</td>
<td>가진 3분의 1이 깨어짐.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됨. 바다에 생명 가진 3분의 1이 깨어짐</td>
</tr>
<tr>
<td>셋째 나팔 (8:10-11)</td>
<td>큰 별이 하늘에서 3분의 1이 떨어짐. 물들의 3분의 1이 쏟아 되고 사람이 죽음</td>
</tr>
<tr>
<td>넷째 나팔</td>
<td>해, 달, 별 각각 3분의 1이 어두워짐. 날</td>
</tr>
<tr>
<td></td>
<td></td>
</tr>
<tr>
<td>--------</td>
<td>-------</td>
</tr>
<tr>
<td>폐</td>
<td>(8:12-13)</td>
</tr>
<tr>
<td></td>
<td>의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함</td>
</tr>
<tr>
<td>다섯째 나팔</td>
<td>(9:1-11)</td>
</tr>
<tr>
<td></td>
<td>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가짐(1) 무저갱을 여리 연기가 올라오고(2) 황충이 나옴(3) 인착지 않은 사람만 해하고(4) 다섯달 동안 괴롭게 하심(5) 황충은 말갈고, 금면류관 비슷한 것 쓰고, 얼굴은 사람, 머리는 여자 털, 이는 사자, 천홍갑, 날개는 병거와 많은 말소리, 꼬리는 쓰는 샘이 있음(7-10). 임금은 아바돈, 아볼루온입니다(11). 첫째 화는 지닙니다 (12).</td>
</tr>
<tr>
<td>여섯째 나팔</td>
<td>(9:13-21)</td>
</tr>
<tr>
<td></td>
<td>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고,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13-14).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15). 마병수는 2억입니다(16). 홍갑이 있고(17), 입에서 불, 연기, 유황이 나와 사람 3분의 1이 죽음(18). 이 재앙으로 죽지 않는 사람은 회개치 않거나 우상숭배합니다(20-21)</td>
</tr>
<tr>
<td>일곱째 나팔</td>
<td></td>
</tr>
<tr>
<td></td>
<td>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며(15), 24장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의 진노로 멸망시킬 때입니다(17-18). 하늘의 성전이 열림</td>
</tr>
</tbody>
</table>
구속선

인에서 나팔로 전환되면서 재앙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자연과 인간 사회에 종말에 대한 경고가 더욱 강하게 전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10장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의 사건

1. 힘 센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크게 부르짖어 일곱 우뢰가 소리를 발함  4. 일곱 우뢰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지 말라  5. 천사가 하나님을 가리켜 일곱 째 재앙이 속히 이루어 질 것을 맹세  8. 요한이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쓴 작은 책을 받아 먹음  11. 천사가 요한에게 세상을 향해 예언하라고 명령

구속선

 작은 책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언하고 그 예언을 성취하였습니다.
11장 두 증인

1. 성전과 성도들을 척량 3.1260일 동안 예언하는 권세를 받은 두 증인의 활동 동안 7. 무서겁게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을 죽여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버려둠 10. 땅에 속한 자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함 11. 두 증인 이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올 때, 땅에 일어난 지진 15. 일곱째 나팔= 그리스도의 나라 (천사와 24장로가 하나님을 찬양)

구속선

두 증인은 다음 장의 내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신약과 구약의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인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1.요한이 태양을 입은 여자를 봄 3.붉은 용의 등장 5.여자가 아들을 낳음 7.용과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 10.마귀가 하늘로 부터 쫓겨남 13.용이 여자 를 핍박(교회의 핍박) 14.여자가 용을 피해 보호받음 17.여자의 후손과 용의 싸움

구속선

교회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공격과 이것을 막고 교회를 세우려는 천사들의 전쟁이 그려집니다. 교회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계승하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13장 두 짐승들(=적 그리스도의 비밀)


+ 구속선

성령님의 인침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짐승의 인침인 666도 보이지 않는 표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불신의 후손들은 그 이마에 가인의 표를 받게 됩니다.
14장 곡식의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구속선

144,000명은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 믿음 믿음의 후손들은 최후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지상의 신자들을 응원합니다.
15장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의 금 대접.

1. 일곱 가지 재앙 2. 구속받은 성도들이 주를 경배하는 찬양을 드림 3. 일곱 천사의 등장 4. 구속선 5. 일곱 천사의 등장 6.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담긴 일곱 금대접을 받음

구속선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며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가 예고됩니다. 하늘의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1. 하나님께서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명하심

<table>
<thead>
<tr>
<th>일곱 대접</th>
<th>나타난 현상</th>
</tr>
</thead>
<tbody>
<tr>
<td>첫째 대접 (16:2)</td>
<td>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난다.</td>
</tr>
<tr>
<td>둘째 대접 (16:3)</td>
<td>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td>
</tr>
<tr>
<td>셋째 대접 (16:4-7)</td>
<td>강과 물 근원이 피가 되고(4) 천사가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함이 합당하다”(5-6). 심판하시는 이는 “참되고 의로우시도다”(7).</td>
</tr>
<tr>
<td>넷째 대접 (16:8-9)</td>
<td>해에 쏟으니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며 회개하여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이입니다(8-9)</td>
</tr>
<tr>
<td>다섯째 대접 (16:10-11)</td>
<td>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 자기 혀를 깨물고 종기로 인해 하나님을 훼방하고 회개치 않습니다 (10-11).</td>
</tr>
<tr>
<td>일곱째 대접</td>
<td>&quot;큰 음성이 나고 지진이 난다(17-18). 큰성이 세갈래로 나뉘고 무너져 큰성바벨론은 없어지고 사람들은 박제를 인하여 하나님을 훼방합니다.</td>
</tr>
</tbody>
</table>

**구속선**

더욱 심한 재앙이 내려지고 이제 세상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후손들은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비방합니다.
1.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 3. 음녀와 짐승의 참람된 모습 5. 음녀의 이름 6. 음녀가 성도들을 펼박하고 죽임 7. 천사가 음녀와 짐승의 비밀을 요한에게 가르쳐 줌 13. 어린 양과 악의 싸움 15.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해침 17. 하나님이 짐승에게 얼마나동안 권세를 줌 18. 음녀의 정체=큰 성

구속선

이제 세상 지배자 사탄의 몰락이 시작됩니 다. 여러 가지 재앙들로 인해서 불신의 계보 에 속한 자들이 몰락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면서 불신의 계보는 쇠퇴하게 되지만, 그들은 끝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습니다.
18장 큰 성 바벨론의 멸망

1.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 4.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죄악에 빠지지 말라 하심 7.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9. 바벨론 멸망으로 인한 애을(왕, 상인, 바다 에서 일하는 자) 20. 하나님 심판에 대한 성 도들의 찬양 21. 힘센 천사가 바벨론의 완전 한 멸망 선언

구속선

이제가지 사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사탄에 대한 심 판을 시작하십니다. 죄의 복구시에 악과 땅을 치던 죽음의 천사가 바벨론에 속한 불신의 후손들을 강한 능력으로 심판합니다.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

1.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는 하늘의 합창 
6. 어린 양의 혼인 잔치 
9. 혼인 잔치에 청함 받은 성도들의 축복 
11. 어린 양이 백말을 타고 등장 
14. 하늘 군대가 백마를 따름 
17.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멸망

구속선

하나님의 심판은 믿음의 후손을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최후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고 멸망이 아니라 기쁨의 결혼식이 됩니다.
20장 사탄 멸망

1. 사단의 결박과 천년 왕국 5. 성도의 첫 부활과 왕노릇 7. 사단의 석방과 곡과 마귀의 싸움 11. 하늘의 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등장 12. 최후의 힘 보좌 심판

구속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은 뱀이 무서쟁에 던져지면서 끝납니다. 창세기 3장과 대응되는 본 장은 구속사의 대단원에 마무리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불신의 제보가 심판 받은 이후 한때 불신의 제보가 일어나 복음을 대적하지만, 그 미혹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21장 새 예루살렘


구속선

새 예루살렘이 에덴동산과 대응되는 곳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에덴동산보다 월등한데 그 이유는 해와 달이 아니라 하나님의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22장 생명수 강


구속선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이 성취되고, 성전이 사라지며, 그리스도께서서 기업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명이 되시는 감격과 기쁨의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됩니다. 이제 다시 안식이 시작됩니다.
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는 에덴동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더 나은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는 어린양에 대한 깊고 큰 감격이 그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4부. 울타리 치기
1. 맥잡기통독 : 창출삼라 막행

계

구속사의 흐름에서 중요한 시대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빠른 시간 동안 살펴볼 수 있는 통독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통독 계획표 (28일)

<table>
<thead>
<tr>
<th>1일</th>
<th>2</th>
<th>3</th>
<th>4</th>
<th>5</th>
<th>6</th>
<th>7</th>
<th>8</th>
</tr>
</thead>
<tbody>
<tr>
<td>2일</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r>
<tr>
<td>3일</td>
<td>17</td>
<td>18</td>
<td>19</td>
<td>20</td>
<td>21</td>
<td>22</td>
<td>23</td>
</tr>
<tr>
<td>4일</td>
<td>25</td>
<td>26</td>
<td>27</td>
<td>28</td>
<td>29</td>
<td>30</td>
<td>31</td>
</tr>
<tr>
<td>5일</td>
<td>33</td>
<td>34</td>
<td>35</td>
<td>36</td>
<td>37</td>
<td>38</td>
<td>39</td>
</tr>
<tr>
<td>6일</td>
<td>41</td>
<td>42</td>
<td>43</td>
<td>44</td>
<td>45</td>
<td>46</td>
<td>47</td>
</tr>
<tr>
<td>7일</td>
<td>49</td>
<td>50</td>
<td>출</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r>
<td>8일</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r>
<tr>
<td>9일</td>
<td>15</td>
<td>16</td>
<td>17</td>
<td>18</td>
<td>19</td>
<td>20</td>
<td>21</td>
</tr>
<tr>
<td>10일</td>
<td>23</td>
<td>24</td>
<td>25</td>
<td>26</td>
<td>27</td>
<td>28</td>
<td>29</td>
</tr>
<tr>
<td>11일</td>
<td>31</td>
<td>32</td>
<td>33</td>
<td>34</td>
<td>35</td>
<td>36</td>
<td>37</td>
</tr>
<tr>
<td>12일</td>
<td>39</td>
<td>40</td>
<td>삼상</td>
<td>2</td>
<td>3</td>
<td>4</td>
<td>5</td>
</tr>
<tr>
<td>13일</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r>
<tr>
<td>14일</td>
<td>15</td>
<td>16</td>
<td>17</td>
<td>18</td>
<td>19</td>
<td>20</td>
<td>21</td>
</tr>
<tr>
<td>15일</td>
<td>23</td>
<td>24</td>
<td>25</td>
<td>26</td>
<td>27</td>
<td>28</td>
<td>29</td>
</tr>
<tr>
<td>16일</td>
<td>31</td>
<td>삼하</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r>
<tr>
<td>17일</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r>
<tr>
<td>18일</td>
<td>16</td>
<td>17</td>
<td>18</td>
<td>19</td>
<td>20</td>
<td>21</td>
<td>22</td>
</tr>
<tr>
<td>19일</td>
<td>24</td>
<td>라</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r>
<tr>
<td>20일</td>
<td>8</td>
<td>9</td>
<td>10</td>
<td>박</td>
<td>2</td>
<td>3</td>
<td>4</td>
</tr>
<tr>
<td>21일</td>
<td>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r>
<tr>
<td>22일</td>
<td>14</td>
<td>15</td>
<td>16</td>
<td>행</td>
<td>2</td>
<td>3</td>
<td>4</td>
</tr>
<tr>
<td>23일</td>
<td>6</td>
<td>7</td>
<td>8</td>
<td>9</td>
<td>10</td>
<td>11</td>
<td>12</td>
</tr>
<tr>
<td>24일</td>
<td>14</td>
<td>15</td>
<td>16</td>
<td>17</td>
<td>18</td>
<td>19</td>
<td>20</td>
</tr>
<tr>
<td>25일</td>
<td>22</td>
<td>23</td>
<td>24</td>
<td>25</td>
<td>26</td>
<td>27</td>
<td>28</td>
</tr>
<tr>
<td>26일</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d>8</td>
</tr>
<tr>
<td>27일</td>
<td>10</td>
<td>11</td>
<td>12</td>
<td>13</td>
<td>14</td>
<td>15</td>
<td>16</td>
</tr>
<tr>
<td>28일</td>
<td>18</td>
<td>19</td>
<td>20</td>
<td>21</td>
<td>22</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성경 1189장 중 221장(약19%)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창세기 1~2장 에덴동산의 모습과 요한계시록 21~22장의 모습을 대조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하나님 나라가 훨씬 감동적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3~요한계시록 20’의 구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믿음의 계승 과정에 주의해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후손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창 1</td>
<td>1</td>
<td>천지 창조</td>
<td></td>
</tr>
<tr>
<td>창 2</td>
<td>17</td>
<td>인간 사명</td>
<td></td>
</tr>
<tr>
<td>창 3</td>
<td>15</td>
<td>여자 후손</td>
<td></td>
</tr>
<tr>
<td>창 4</td>
<td>4</td>
<td>아벨 믿음</td>
<td></td>
</tr>
<tr>
<td>창 5</td>
<td>3</td>
<td>아담/셋족보</td>
<td></td>
</tr>
<tr>
<td>창 6</td>
<td>14</td>
<td>방주 준비</td>
<td></td>
</tr>
<tr>
<td>창 7</td>
<td>21</td>
<td>홍수 심판</td>
<td></td>
</tr>
<tr>
<td>창 8</td>
<td>20</td>
<td>홍수 끝/제사</td>
<td></td>
</tr>
<tr>
<td>창 9</td>
<td>11</td>
<td>보존 언약</td>
<td></td>
</tr>
<tr>
<td>창 10</td>
<td>1</td>
<td>노아 족보</td>
<td></td>
</tr>
<tr>
<td>창 11</td>
<td>9,10</td>
<td>셔족보/바</td>
<td></td>
</tr>
<tr>
<td>창 12</td>
<td>1</td>
<td>아브람 소/실</td>
<td></td>
</tr>
<tr>
<td>창 13</td>
<td>11</td>
<td>롯 분가</td>
<td></td>
</tr>
<tr>
<td>창 14</td>
<td>16</td>
<td>롯 구출</td>
<td></td>
</tr>
<tr>
<td>창 15</td>
<td>17</td>
<td>햇불 언약</td>
<td></td>
</tr>
<tr>
<td>창 16</td>
<td>16</td>
<td>이스마엘 출생</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아담 → 아벨/셋 → 에노스 → 노아 → 셔 → 데라 → 아브람</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행위언약 → 여자의 후손/가죽옷 → 노아(방주 ▶ 무지개) → 아브람(ועדב▶할례)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에덴동산 → 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벨/셋 피의 제사 → 노아 제사 → 개인 제단</td>
</tr>
<tr>
<td>기업</td>
<td>에덴동산 → 가나안</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각각 다른 방법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 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이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만 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에 주목할 때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이해가 가게 됩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창17</td>
<td>10</td>
<td>할례 언약</td>
<td></td>
</tr>
<tr>
<td>창18</td>
<td>23</td>
<td>중보 기도</td>
<td></td>
</tr>
<tr>
<td>창19</td>
<td>24</td>
<td>소/고 별망</td>
<td></td>
</tr>
<tr>
<td>창20</td>
<td>1</td>
<td>아브라함그랄</td>
<td></td>
</tr>
<tr>
<td>창21</td>
<td>3</td>
<td>이삭 탄생</td>
<td></td>
</tr>
<tr>
<td>창22</td>
<td>13</td>
<td>이삭 번제</td>
<td></td>
</tr>
<tr>
<td>창23</td>
<td>19</td>
<td>사라 죽음</td>
<td></td>
</tr>
<tr>
<td>창24</td>
<td>67</td>
<td>이삭 결혼</td>
<td></td>
</tr>
<tr>
<td>창25</td>
<td>23</td>
<td>에/아 출생</td>
<td></td>
</tr>
<tr>
<td>창26</td>
<td>6</td>
<td>이삭 그랄</td>
<td></td>
</tr>
<tr>
<td>창27</td>
<td>29</td>
<td>이삭 축복</td>
<td></td>
</tr>
<tr>
<td>창28</td>
<td>12</td>
<td>사담다리언약</td>
<td></td>
</tr>
<tr>
<td>창29</td>
<td>11</td>
<td>야곱 하란</td>
<td></td>
</tr>
<tr>
<td>창30</td>
<td>43</td>
<td>야곱 부자</td>
<td></td>
</tr>
<tr>
<td>창31</td>
<td>3</td>
<td>야곱 귀향</td>
<td></td>
</tr>
<tr>
<td>창32</td>
<td>24</td>
<td>압복강 씨름</td>
<td></td>
</tr>
<tr>
<td>후손</td>
<td>아담 → 아벨/셋 → 노아→ 셉 → 아브라함/이삭/야곱</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td>
<td></td>
<td></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td>
<td></td>
<td></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td>
<td></td>
<td></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야곱은 특히 많은 시련을 겪는데, 그 이유는 그가 실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사람과 매우 비슷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총정리하는 인물로서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몸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요셉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기도합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창33</td>
<td>4</td>
<td>형제 화해</td>
<td></td>
</tr>
<tr>
<td>창34</td>
<td>2</td>
<td>디나 사건</td>
<td></td>
</tr>
<tr>
<td>창35</td>
<td>15</td>
<td>벰엘 언약</td>
<td></td>
</tr>
<tr>
<td>창36</td>
<td>1</td>
<td>에서 족보</td>
<td></td>
</tr>
<tr>
<td>창37</td>
<td>36</td>
<td>요셉 노예</td>
<td></td>
</tr>
<tr>
<td>창38</td>
<td>29</td>
<td>유/다 사건</td>
<td></td>
</tr>
<tr>
<td>창39</td>
<td>20</td>
<td>요셉 무고</td>
<td></td>
</tr>
<tr>
<td>창40</td>
<td>5</td>
<td>관원장 꿈</td>
<td></td>
</tr>
<tr>
<td>창41</td>
<td>1</td>
<td>바로 꿈</td>
<td></td>
</tr>
<tr>
<td>창42</td>
<td>6</td>
<td>1차 방문</td>
<td></td>
</tr>
<tr>
<td>창43</td>
<td>15</td>
<td>2차 방문</td>
<td></td>
</tr>
<tr>
<td>창44</td>
<td>12</td>
<td>은잔 시험</td>
<td></td>
</tr>
<tr>
<td>창45</td>
<td>1</td>
<td>요셉 간증</td>
<td></td>
</tr>
<tr>
<td>창46</td>
<td>6</td>
<td>가족 이민</td>
<td></td>
</tr>
<tr>
<td>창47</td>
<td>27</td>
<td>애굽 정착</td>
<td></td>
</tr>
<tr>
<td>창48</td>
<td>20</td>
<td>두손자 축복</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아담 → 아벨/셋 → 노아 → 셉 → 아브라함/이삭/야곱 + 믿음 가진 이방인(다말)</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출애굽기가 애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모세가 구원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으며 호렙산 멸기나무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소명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신자가 가야할 믿음이 길을 무엇인지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중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창49</td>
<td>4</td>
<td>12아들 축복</td>
<td></td>
</tr>
<tr>
<td>창50</td>
<td>2</td>
<td>부자 별세</td>
<td></td>
</tr>
<tr>
<td>출1</td>
<td>15</td>
<td>민족 고난</td>
<td></td>
</tr>
<tr>
<td>출2</td>
<td>1</td>
<td>광야 훈련</td>
<td></td>
</tr>
<tr>
<td>출3</td>
<td>36</td>
<td>모세 소명</td>
<td></td>
</tr>
<tr>
<td>출4</td>
<td>29</td>
<td>모세 귀환</td>
<td></td>
</tr>
<tr>
<td>출5</td>
<td>20</td>
<td>모/바 만남</td>
<td></td>
</tr>
<tr>
<td>출6</td>
<td>5</td>
<td>위로/족보</td>
<td></td>
</tr>
<tr>
<td>출7</td>
<td>1</td>
<td>피 재앙</td>
<td></td>
</tr>
<tr>
<td>출8</td>
<td>6</td>
<td>개/이/파</td>
<td></td>
</tr>
<tr>
<td>출9</td>
<td>15</td>
<td>돌/종/우</td>
<td></td>
</tr>
<tr>
<td>출10</td>
<td>12</td>
<td>메/흑</td>
<td></td>
</tr>
<tr>
<td>출11</td>
<td>1</td>
<td>재앙 경고</td>
<td></td>
</tr>
<tr>
<td>출12</td>
<td>6</td>
<td>유월절</td>
<td></td>
</tr>
<tr>
<td>출13</td>
<td>27</td>
<td>출 애프</td>
<td></td>
</tr>
<tr>
<td>출14</td>
<td>20</td>
<td>홍해 도하</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아담 → 아벨/셋 → 노아 → 셈 → 아브라함/이삭/야곱 + 믿은 이방인(다말)</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새로운 계시의 단계로 접어드는데 그것은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막은 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며 모두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합니 다.
## 장별 정리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15</td>
<td>1</td>
<td>모세 노래</td>
<td></td>
</tr>
<tr>
<td>출16</td>
<td>31</td>
<td>첫 만나</td>
<td></td>
</tr>
<tr>
<td>출17</td>
<td>8</td>
<td>아말렉 전쟁</td>
<td></td>
</tr>
<tr>
<td>출18</td>
<td>5</td>
<td>이드로 방문</td>
<td></td>
</tr>
<tr>
<td>출19</td>
<td>3</td>
<td>모세 등정</td>
<td></td>
</tr>
<tr>
<td>출20</td>
<td>3</td>
<td>십계명1</td>
<td></td>
</tr>
<tr>
<td>출21</td>
<td>1,12</td>
<td>종/생명</td>
<td></td>
</tr>
<tr>
<td>출22</td>
<td>1,16</td>
<td>재산/도덕</td>
<td></td>
</tr>
<tr>
<td>출23</td>
<td>12,14</td>
<td>안/절기</td>
<td></td>
</tr>
<tr>
<td>출24</td>
<td>8</td>
<td>언약 체결</td>
<td></td>
</tr>
<tr>
<td>출25</td>
<td>10,23,31</td>
<td>언/떡/금</td>
<td></td>
</tr>
<tr>
<td>출26</td>
<td>1</td>
<td>휘장</td>
<td></td>
</tr>
<tr>
<td>출27</td>
<td>1</td>
<td>번제단</td>
<td></td>
</tr>
<tr>
<td>출28</td>
<td>3</td>
<td>제사장 옷</td>
<td></td>
</tr>
<tr>
<td>출29</td>
<td>1</td>
<td>제사장 위임 식</td>
<td></td>
</tr>
<tr>
<td>출30</td>
<td>1,18</td>
<td>문/물</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모세▷여호수아) + 믿은 이방인(다말)</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 → 성막</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성막에 대한 상세한 설계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가르침을 성막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서는 ‘언약 공동체’가 ‘언약 왕국’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그 상징은 ‘성막’이 ‘성전’으로 대치되는 데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장별 정리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31</td>
<td>2,6,14</td>
<td>기술자/안</td>
<td></td>
</tr>
<tr>
<td>출32</td>
<td>19</td>
<td>돌판 파괴</td>
<td></td>
</tr>
<tr>
<td>출33</td>
<td>13</td>
<td>중보 기도</td>
<td></td>
</tr>
<tr>
<td>출34</td>
<td>29</td>
<td>십계명2</td>
<td></td>
</tr>
<tr>
<td>출35</td>
<td>21</td>
<td>예물 봉헌</td>
<td></td>
</tr>
<tr>
<td>출36</td>
<td>1</td>
<td>성막 건축</td>
<td></td>
</tr>
<tr>
<td>출37</td>
<td>1,10,17,25</td>
<td>연/떡/금/분</td>
<td></td>
</tr>
<tr>
<td>출38</td>
<td>1,8</td>
<td>번/물</td>
<td></td>
</tr>
<tr>
<td>출39</td>
<td>1,43</td>
<td>제사장옷/완성</td>
<td></td>
</tr>
<tr>
<td>출40</td>
<td>33-36</td>
<td>봉헌/영광</td>
<td></td>
</tr>
<tr>
<td>삼상1</td>
<td>10</td>
<td>한나 기도</td>
<td></td>
</tr>
<tr>
<td>삼상2</td>
<td>1</td>
<td>한나 감사</td>
<td></td>
</tr>
<tr>
<td>삼상3</td>
<td>10</td>
<td>사무엘 소명</td>
<td></td>
</tr>
<tr>
<td>삼상4</td>
<td>11</td>
<td>범해 상실</td>
<td></td>
</tr>
<tr>
<td>삼상5</td>
<td>6</td>
<td>범해 재양</td>
<td></td>
</tr>
<tr>
<td>삼상6</td>
<td>12</td>
<td>범해 귀환</td>
<td></td>
</tr>
</tbody>
</table>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모세▷여호수아▷사사▷사무엘) + 믿은 이방인(다말)</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무압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 → 성막</td>
</tr>
<tr>
<td>기업</td>
<td>아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사사)</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와 써 보세요)

사무엘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데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이 전 계시의 계승자로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사울과 다윗은 인본주의적인 왕과 하나님 중심적인 왕의 모습을 대표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이곳에서 철저하게 익혀야 합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삼상7</td>
<td>5</td>
<td>미스바기도</td>
<td></td>
</tr>
<tr>
<td>삼상8</td>
<td>5</td>
<td>왕 요구</td>
<td></td>
</tr>
<tr>
<td>삼상9</td>
<td>17</td>
<td>사울 선택</td>
<td></td>
</tr>
<tr>
<td>삼상10</td>
<td>1</td>
<td>사울 기름</td>
<td></td>
</tr>
<tr>
<td>삼상11</td>
<td>11</td>
<td>사울 승리</td>
<td></td>
</tr>
<tr>
<td>삼상12</td>
<td>1</td>
<td>사무엘 은퇴</td>
<td></td>
</tr>
<tr>
<td>삼상13</td>
<td>9</td>
<td>사울 월권</td>
<td></td>
</tr>
<tr>
<td>삼상14</td>
<td>6</td>
<td>요나단용맹</td>
<td></td>
</tr>
<tr>
<td>삼상15</td>
<td>9</td>
<td>사울 불순종</td>
<td></td>
</tr>
<tr>
<td>삼상16</td>
<td>13</td>
<td>다윗 기름</td>
<td></td>
</tr>
<tr>
<td>삼상17</td>
<td>51</td>
<td>콜리앗</td>
<td></td>
</tr>
<tr>
<td>삼상18</td>
<td>7</td>
<td>천천만만</td>
<td></td>
</tr>
<tr>
<td>삼상19</td>
<td>18</td>
<td>다윗 피신</td>
<td></td>
</tr>
<tr>
<td>삼상20</td>
<td>42</td>
<td>들판 우정</td>
<td></td>
</tr>
<tr>
<td>삼상21</td>
<td>1,10</td>
<td>눈, 가드</td>
<td></td>
</tr>
<tr>
<td>삼상22</td>
<td>1</td>
<td>아둘람 굴</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모세▷여호수아▷사사▷사무엘▷다윗) + 믿은 이방인(다말,라합,롯)</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 → 성막</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사사들 정복▷다윗 성취)</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율법+성막)</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다윗마저도 위기의 순간에 믿음과 불신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험을 통과하는데 그 이유는 ‘기름부음 받은 자’ 사울을 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해치지 않은 것은 단순히 권위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기름부음안에 보여지는 그리스도께 순복하느라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삼상23</td>
<td>5</td>
<td>그일라 구원</td>
<td></td>
</tr>
<tr>
<td>삼상24</td>
<td>4</td>
<td>옷자락 절단</td>
<td></td>
</tr>
<tr>
<td>삼상25</td>
<td>42-43</td>
<td>다윗 아내들</td>
<td></td>
</tr>
<tr>
<td>삼상26</td>
<td>12</td>
<td>창/물병 탈취</td>
<td></td>
</tr>
<tr>
<td>삼상27</td>
<td>2</td>
<td>가드 망명</td>
<td></td>
</tr>
<tr>
<td>삼상28</td>
<td>7</td>
<td>�إمكان 무당</td>
<td></td>
</tr>
<tr>
<td>삼상29</td>
<td>4</td>
<td>다윗 절제</td>
<td></td>
</tr>
<tr>
<td>삼상30</td>
<td>18</td>
<td>아말렉 보복</td>
<td></td>
</tr>
<tr>
<td>삼상31</td>
<td>2</td>
<td>4부자 전사</td>
<td></td>
</tr>
<tr>
<td>삼하1</td>
<td>17</td>
<td>다윗 조가</td>
<td></td>
</tr>
<tr>
<td>삼하2</td>
<td>4</td>
<td>유다 왕</td>
<td></td>
</tr>
<tr>
<td>삼하3</td>
<td>27</td>
<td>아브벨 피살</td>
<td></td>
</tr>
<tr>
<td>삼하4</td>
<td>8</td>
<td>이스보셋 피살</td>
<td></td>
</tr>
<tr>
<td>삼하5</td>
<td>3</td>
<td>통일 왕</td>
<td></td>
</tr>
<tr>
<td>삼하6</td>
<td>15</td>
<td>법궤 입성</td>
<td></td>
</tr>
<tr>
<td>삼하7</td>
<td>13</td>
<td>다윗 언약</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모세▷여호수아▷사사▷사무엘▷다윗▷다윗 가문) + 믿은 이방인(다말,라합,룻)</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다윗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 → 성막</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사사들 정복▷다윗 성취)</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율법+성막)</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사무엘하 8장에서 절정을 이룬 다윗을 통한 계시는 다윗의 간음 사건을 계기로 전환됩니다. 다윗의 간음 사건은 비극적인 일이지만, 죄의 각성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데로 나아간 점은 신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노년 모습은 죄의 노예로서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은혜에 의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 장별 정리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삼하8</td>
<td>8</td>
<td>다윗 정복</td>
<td></td>
</tr>
<tr>
<td>삼하9</td>
<td>11</td>
<td>뉘비보셋 복권</td>
<td></td>
</tr>
<tr>
<td>삼하10</td>
<td>7</td>
<td>암문 전쟁</td>
<td></td>
</tr>
<tr>
<td>삼하11</td>
<td>4</td>
<td>다/밭 갓음</td>
<td></td>
</tr>
<tr>
<td>삼하12</td>
<td>7</td>
<td>나단 책망</td>
<td></td>
</tr>
<tr>
<td>삼하13</td>
<td>28</td>
<td>압살롬 복수</td>
<td></td>
</tr>
<tr>
<td>삼하14</td>
<td>23</td>
<td>압살롬 귀환</td>
<td></td>
</tr>
<tr>
<td>삼하15</td>
<td>12</td>
<td>압살롬 반역</td>
<td></td>
</tr>
<tr>
<td>삼하16</td>
<td>13</td>
<td>다윗 피난</td>
<td></td>
</tr>
<tr>
<td>삼하17</td>
<td>14</td>
<td>두 전략</td>
<td></td>
</tr>
<tr>
<td>삼하18</td>
<td>14</td>
<td>압살롬 죽음</td>
<td></td>
</tr>
<tr>
<td>삼하19</td>
<td>15</td>
<td>다윗 귀환</td>
<td></td>
</tr>
<tr>
<td>삼하20</td>
<td>2</td>
<td>세바 반란</td>
<td></td>
</tr>
<tr>
<td>삼하21</td>
<td>9</td>
<td>기브온 신원</td>
<td></td>
</tr>
<tr>
<td>삼하22</td>
<td>1</td>
<td>다윗 노래</td>
<td></td>
</tr>
<tr>
<td>삼하23</td>
<td>1</td>
<td>다윗 유언</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모세▷여호수아▷사사▷사무엘▷다윗▷다윗 가문) + 믿은 이방인(다말,라합,룻)</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다윗 언약</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제단 → 성막</td>
</tr>
<tr>
<td>기업</td>
<td>에덴 동산 → 가나안(헤브론▷사사들 정복▷다윗 성취)</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율법+성막)</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 (빈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에스라서의 포로 귀환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종말 후에 믿음의 후손들이 들어갈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가음에서는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도래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은 모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고 이제는 그림자가 실제로 대치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삼하24</td>
<td>1</td>
<td>인구 조사</td>
<td></td>
</tr>
<tr>
<td>라1</td>
<td>2</td>
<td>고레스 조서</td>
<td></td>
</tr>
<tr>
<td>라2</td>
<td>1</td>
<td>1차 귀환명단</td>
<td></td>
</tr>
<tr>
<td>라3</td>
<td>8</td>
<td>성전 건축</td>
<td></td>
</tr>
<tr>
<td>라4</td>
<td>4</td>
<td>건축 방해</td>
<td></td>
</tr>
<tr>
<td>라5</td>
<td>2</td>
<td>다시 건축</td>
<td></td>
</tr>
<tr>
<td>라6</td>
<td>17</td>
<td>완공 봉헌</td>
<td></td>
</tr>
<tr>
<td>라7</td>
<td>2</td>
<td>아달사스다 조서</td>
<td></td>
</tr>
<tr>
<td>라8</td>
<td>1</td>
<td>2차 귀환명단</td>
<td></td>
</tr>
<tr>
<td>라9</td>
<td>5</td>
<td>에스라 회개</td>
<td></td>
</tr>
<tr>
<td>라10</td>
<td>10-11</td>
<td>개혁 운동</td>
<td></td>
</tr>
<tr>
<td>막1</td>
<td>9,15</td>
<td>세례/전파</td>
<td></td>
</tr>
<tr>
<td>막2</td>
<td>3,17,28</td>
<td>중풍/의사/안</td>
<td></td>
</tr>
<tr>
<td>막3</td>
<td>4,14</td>
<td>안/제자</td>
<td></td>
</tr>
<tr>
<td>막4</td>
<td>20,31,39</td>
<td>땅/거자/풍량</td>
<td></td>
</tr>
<tr>
<td>막5</td>
<td>2,25,41</td>
<td>광인/여인/아이</td>
<td></td>
</tr>
<tr>
<td>구속사 5선</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strong>후손</strong></td>
<td>이스라엘 → 남은 자(포로귀환 + 디아스포라) → 그리스도 → 신자(12제자)</td>
<td></td>
<td></td>
</tr>
<tr>
<td><strong>언약</strong></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달윗 언약</td>
<td></td>
<td></td>
</tr>
<tr>
<td><strong>성전</strong></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성막 → 성전 → 예수님의 몸</td>
<td></td>
<td></td>
</tr>
<tr>
<td><strong>기업</strong></td>
<td>에덴동산 → 가나안 + 디아스포라 → 예수님 그리스도의 나라</td>
<td></td>
<td></td>
</tr>
<tr>
<td><strong>제명</strong></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 + 믿음의 후손) 율법 + 성막) → 예수님 그리스도 믿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베드로의 고백(마16:16)을 분기점으로 예수님의 행적은 나누어지는데, 고백 전에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치셨고, 고백 이후에는 십자가 고난과 제자의 자세 등을 통해서 자신이 왜 왔는 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장별 정리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막6</td>
<td>7,41</td>
<td>파송/오병이어</td>
<td></td>
</tr>
<tr>
<td>막7</td>
<td>5</td>
<td>부정한 손 논쟁</td>
<td></td>
</tr>
<tr>
<td>막8</td>
<td>6,29</td>
<td>칠병이어/고백</td>
<td></td>
</tr>
<tr>
<td>막9</td>
<td>2</td>
<td>변화산</td>
<td></td>
</tr>
<tr>
<td>막10</td>
<td>9,24</td>
<td>이혼/부자</td>
<td></td>
</tr>
<tr>
<td>막11</td>
<td>9,14</td>
<td>입성/무화과</td>
<td></td>
</tr>
<tr>
<td>막12</td>
<td>1,19</td>
<td>포도원/형제</td>
<td></td>
</tr>
<tr>
<td>막13</td>
<td>4</td>
<td>재림 징조</td>
<td></td>
</tr>
<tr>
<td>막14</td>
<td>22,46</td>
<td>성찬/체포</td>
<td></td>
</tr>
<tr>
<td>막15</td>
<td>25</td>
<td>십자가</td>
<td></td>
</tr>
<tr>
<td>막16</td>
<td>14</td>
<td>부활</td>
<td></td>
</tr>
<tr>
<td>행1</td>
<td>9</td>
<td>승천</td>
<td></td>
</tr>
<tr>
<td>행2</td>
<td>4</td>
<td>성령강림</td>
<td></td>
</tr>
<tr>
<td>행3</td>
<td>12</td>
<td>기적/설교</td>
<td></td>
</tr>
<tr>
<td>행4</td>
<td>17</td>
<td>공회 위협</td>
<td></td>
</tr>
<tr>
<td>행5</td>
<td>5,10</td>
<td>아/삼 죽음</td>
<td></td>
</tr>
<tr>
<td>구속사 5선</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후손</td>
<td>이스라엘 → 남은 자(포로귀환+디아스포라) → 그리스도 → 신자(12제자) → 교회</td>
<td></td>
<td></td>
</tr>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다윗 → 그리스도</td>
<td></td>
<td></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성막 → 성전 → 예수님의 몸 → 교회</td>
<td></td>
<td></td>
</tr>
<tr>
<td>기업</td>
<td>에덴동산 → 가나안+디아스포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 교회</td>
<td></td>
<td></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 → 예수 그리스도 믿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 써 보세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의 시작인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신자는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역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행6</td>
<td>5</td>
<td>집사 임명</td>
<td></td>
</tr>
<tr>
<td>행7</td>
<td>60</td>
<td>스데반 순교</td>
<td></td>
</tr>
<tr>
<td>행8</td>
<td>5</td>
<td>빌립 전도</td>
<td></td>
</tr>
<tr>
<td>행9</td>
<td>20</td>
<td>사울 회심</td>
<td></td>
</tr>
<tr>
<td>행10</td>
<td>44</td>
<td>고넬로 회심</td>
<td></td>
</tr>
<tr>
<td>행11</td>
<td>17</td>
<td>베드로 보고</td>
<td></td>
</tr>
<tr>
<td>행12</td>
<td>7</td>
<td>베드로 탈옥</td>
<td></td>
</tr>
<tr>
<td>행13</td>
<td>4</td>
<td>바울 1차선교</td>
<td></td>
</tr>
<tr>
<td>행14</td>
<td>27</td>
<td>바울 1차귀환</td>
<td></td>
</tr>
<tr>
<td>행15</td>
<td>2</td>
<td>예루살렘 공회</td>
<td></td>
</tr>
<tr>
<td>행16</td>
<td>1,</td>
<td>바울 2차선교</td>
<td>1</td>
</tr>
<tr>
<td>행17</td>
<td>1,10,16</td>
<td>1개/베/아 사역</td>
<td></td>
</tr>
<tr>
<td>행18</td>
<td>1</td>
<td>고린도 사역</td>
<td></td>
</tr>
<tr>
<td>행19</td>
<td>1</td>
<td>바울 3차선교</td>
<td></td>
</tr>
<tr>
<td>행20</td>
<td>22</td>
<td>3차 귀환여정</td>
<td></td>
</tr>
<tr>
<td>행21</td>
<td>33</td>
<td>바울 체포</td>
<td></td>
</tr>
<tr>
<td>구속사 5선</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후손</td>
<td>이스라엘 → 남은 자 → 그리스도 → 신자(12 제자) → 교회</td>
<td></td>
<td></td>
</tr>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다윗 → 그리스도</td>
<td></td>
<td></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성막 → 성전 → 예수님의 몸 → 교회</td>
<td></td>
<td></td>
</tr>
<tr>
<td>기업</td>
<td>에덴동산 → 가나안+디아스포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 교회</td>
<td></td>
<td></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 → 예수 그리스도 믿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총정리해서 보여주시는 요약적 가르침이기 때문 에 이전 계서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유적 상징적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와 선지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행22</td>
<td>1</td>
<td>바울 간증 1</td>
<td></td>
</tr>
<tr>
<td>행23</td>
<td>1</td>
<td>공회 변론</td>
<td></td>
</tr>
<tr>
<td>행24</td>
<td>3</td>
<td>벨릭스 전도</td>
<td></td>
</tr>
<tr>
<td>행25</td>
<td>12</td>
<td>베스도 상소</td>
<td></td>
</tr>
<tr>
<td>행26</td>
<td>2</td>
<td>바울 간증 2</td>
<td></td>
</tr>
<tr>
<td>행27</td>
<td>1</td>
<td>로마 출발</td>
<td></td>
</tr>
<tr>
<td>행28</td>
<td>16</td>
<td>로마 도착</td>
<td></td>
</tr>
<tr>
<td>계1</td>
<td>1</td>
<td>요한 환상</td>
<td></td>
</tr>
<tr>
<td>계2</td>
<td>1,8,12,18</td>
<td>에/서/버/두</td>
<td></td>
</tr>
<tr>
<td>계3</td>
<td>1,7,14</td>
<td>사/별/라</td>
<td></td>
</tr>
<tr>
<td>계4</td>
<td>2</td>
<td>천상 회의</td>
<td></td>
</tr>
<tr>
<td>계5</td>
<td>1</td>
<td>어린양, 두루마리</td>
<td></td>
</tr>
<tr>
<td>계6</td>
<td>1</td>
<td>6인 재앙</td>
<td></td>
</tr>
<tr>
<td>계7</td>
<td>14</td>
<td>흰 옷 무리</td>
<td></td>
</tr>
<tr>
<td>계8</td>
<td>1-2</td>
<td>7인/나팔 4</td>
<td></td>
</tr>
<tr>
<td>계9</td>
<td>1,13</td>
<td>나팔재앙 5,6</td>
<td></td>
</tr>
<tr>
<td>후손</td>
<td>이스라엘 → 남은 자 → 그리스도 → 신자(12 제자) → 교회</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다윗 → 그리스도</td>
<td></td>
<td></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성막 → 성전 → 예수님의 몸 → 교회</td>
<td></td>
<td></td>
</tr>
<tr>
<td>기업</td>
<td>케렌동산 → 가나안+디아스포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 교회</td>
<td></td>
<td></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 → 예수 그리스도 믿음</td>
<td></td>
<td></td>
</tr>
</tbody>
</table>
내용 개관(빈 칸에 줄거리를 써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고난이나 환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승리와 지금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사탄과 그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요한계시록을 기쁨과 감격,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table>
<thead>
<tr>
<th>장</th>
<th>요절</th>
<th>장 제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계10</td>
<td>9</td>
<td>두루마리 예언</td>
<td></td>
</tr>
<tr>
<td>계11</td>
<td>1,3</td>
<td>갈대/두증인</td>
<td></td>
</tr>
<tr>
<td>계12</td>
<td>1,9</td>
<td>여자/용환상</td>
<td></td>
</tr>
<tr>
<td>계13</td>
<td>1,18</td>
<td>집승/666</td>
<td></td>
</tr>
<tr>
<td>계14</td>
<td>1</td>
<td>어린양/144</td>
<td></td>
</tr>
<tr>
<td>계15</td>
<td>3,7</td>
<td>찬양/심판준비</td>
<td></td>
</tr>
<tr>
<td>계16</td>
<td>1</td>
<td>대접재앙7</td>
<td></td>
</tr>
<tr>
<td>계17</td>
<td>1</td>
<td>음녀 심판</td>
<td></td>
</tr>
<tr>
<td>계18</td>
<td>2</td>
<td>바벨론 심판</td>
<td></td>
</tr>
<tr>
<td>계19</td>
<td>11</td>
<td>백마탄 자</td>
<td></td>
</tr>
<tr>
<td>계20</td>
<td>10</td>
<td>마귀 불못</td>
<td></td>
</tr>
<tr>
<td>계21</td>
<td>1</td>
<td>새하늘새땅</td>
<td></td>
</tr>
<tr>
<td>계22</td>
<td>5</td>
<td>성도 통치</td>
<td></td>
</tr>
</tbody>
</table>
## 구속사 5선

<table>
<thead>
<tr>
<th>후손</th>
<th>이스라엘 → 남은 자 → 그리스도 → 신자(12 제자) → 교회(이기는 자)</th>
</tr>
</thead>
<tbody>
<tr>
<td>언약</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아브라함/이삭/야곱 → 시내산/모압 → 다윗 → 그리스도</td>
</tr>
<tr>
<td>성전</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 피의 제사 → 성막 → 성전 → 예수님의 몸 → 교회(새예루살렘)</td>
</tr>
<tr>
<td>기업</td>
<td>에덴동산 → 가나안+디아스포라 →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 교회(새예루살렘)</td>
</tr>
<tr>
<td>계명</td>
<td>여자의 후손/가죽옷 믿음(결혼+믿음의 후손→ 율법+성막) → 예수 그리스도 믿음</td>
</tr>
</tbody>
</table>
성경을 통독할 때는 무작정 처음부터 읽기 보다는 역사서를 여러 번 읽어서 성경의 줄 거리를 충분히 파악한 후에 역사서에 대응 하는 시가/예언/서신서를 읽는 것이 좋습니 다.

다음에 소개할 후속 통독 방법은 이런 순서 를 조금 더 세분화한 방법입니다.
뿌리보기 통독 : 창출민수 삿삼왕 대라느 마행계

성경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통독 방법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끊기지 않고 이 어지는 통독방법입니다.

가장 빠른 시간에 성경 전체의 줄거리를 이 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줄기보기 통독 : 역사서, 4복행계

성경의 뼈대가 되는 구약과 신약의 역사서를 중심으로 통독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체계를 세울 수 있는 통독방법으로써 성경의 1/2을 통독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지보기 통독 : 시가/예언서

구약 성경의 시가/예언서를 통독하는 것으로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감정의 분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무보기 통독은 지금까지 공부한 맥잡기와 뿌리, 줄기, 가지보기를 합하여 전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활용해서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 역사서에 대응하는 시가/서신/예언서를 동시에 읽는 방법입니다.
5부 구속사 설교
1. 꿈 꾸지 않은 요셉

창세기 37:1~36

인생에서 예상치 못했던 환란이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큰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못 이해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비전의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 꿈과 비전을 갖고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약간의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성경이 주는 참된 감동에는 결코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시다.

꿈 꾸지 않은 요셉

성경 본문을 신중하게 읽어보면 요셉은 흔히 말하는 ‘꿈꾸는 사람’, 다른 말로는 ‘비전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요셉은 꿈 혹은 비전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변에서 걱정스런 눈으로 보게 되는 철없는 청소년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하는 청소년이었습니다. 고자질이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셉이 하는 고
자질은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특별히 빌하와 실바의 자식들인 잘못을 고자질 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요셉이 배려심이 없었고 지혜롭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고 자란 환경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의 원인이었다는 것도 이어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어리석음은 꿈 사건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요셉의 꿈은 요셉이 능동적으로 꿈 꿈이 아닐 뿐만 아니라, 꿈 이야기를 전달하면서도 자신을 질시하는 형제들의 태도를 눈치채지 못하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어리석은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의 야곱 가족

본문의 전반부에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으로서 요셉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상처받는 야곱의 자녀들과 요셉의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인해서 분노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에서 구속사의 계승자인 야곱의 가족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벽랑 끝에 서있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형제 간의 갈등이 점차 깊어져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 가족의 상황은 형제 간의 불화와 분노가 도를 넘어서 형제를 살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커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에 대한 편애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요셉의 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꿈의 의미는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라는 영웅담의 근거가 아니라 야곱 가문의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개입 사건이고, 언약의 후손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요셉의 꿈은 이후의 사건 전개와 연결해서 다른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요셉이 앞으로 겪어야 할 쓰리 쓰 쓰 배신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고난을 잘 견띵 수 있도록 소망으로 주신 꿈으로 말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데, 그것은 야곱 가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 간의 분쟁의 원인이 야곱의 요셉에 대한 편애와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떠나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요셉은 야곱의 과양보호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 형제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죽여서라도 없애버리고자 하는 충동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야곱 가문은 야곱과 요셉, 그리고 형제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비극과 파멸을 향해 나아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된 것은 뜻치지 않은 환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야곱 가문을 구
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은 앞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믿음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고 정직하게 성장해 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철부지가 상급자를 지혜롭게 섬기고 죄수들을 배려하며 겸손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자로 변신한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존귀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 가문의 구원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야곱 가문은 아름답게 우애가 회복됩니다. 요셉은 인간의 죄성을 어리석음, 질시로 인한 비극을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
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비하와 승귀를 통해서 불화를 끝내고 화해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비전의 사람’이라고 포장하여 영웅담 혹은 성공담으로 가르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낱 인생 성공비결로 바꾸는 잘못된 해석이 될 것입니다.

환난을 대하는 신자의 자세

인생의 환란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 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죄악 된 성향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돌아보면 인생의 많은 비극은 우리 자신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신자라면 더욱 그령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비극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불화를 화해로 바꾸는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비전을 가지고 꿈을 이룬 위인의 이야기나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영웅담으로 격하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의 지혜로 대치하려는 유치한 시도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환난과 고통, 미움과 사랑, 희생과 회개의 다양한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나의 죄악됨을 돌아보게 됩니다.

요셉은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셨습니다. 비극을 향해 달려가는 가족이 회복될 꿈을 말입니다.

환난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꿈 꿓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십니다. 참된 안식이 회복되고 슬픔과 눈물과 애통과 죽음이 없는 나라를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의 꿈을 따라 갑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라는 아름다운 꿈을 함께 꾸는 사람이 됩니다.
2. 압복강 씨름의 의미

창세기 32:22~32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은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영적 체험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된 영적 체험은 다양한 가운데서도 공통적인 요소를 갖게 마련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공통적인 요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압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야곱의 씨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왜 이 시점에서 야곱이 씨름하게 되었는가? 둘째,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전통적인 견해는 야곱이 압록강 나루를 건너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열심히 기도를 한 것이 천사와 씨름하게 된 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두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보았을 때, 그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했다면 그것은 이질적인 행동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대체로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 그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의 유형 중에서 예를 들자면, 자신을 믿는 사람에 속합니다. 불확실한 무엇인가를
믿고 기다리기 보다는 스스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려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앞선 구절에서도 야곱의 이러한 현실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는데,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예물을 나누어 보내고 일행에게 할 말을 주도 면밀하게 일러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략을 마련하는데 분주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자신을 의지해서 살던 야곱이 갑자기 기도를 열심히 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도 평소 습관이 되어있지 않은 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이 상황에서 천사(그리스도)가 찾아왔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야곱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우 간절히 기도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필연
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써 명쾌한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두 번째 질문, 즉 왜 천사(그리스도)는 반칙을 했는 가에 대한 답변은 더욱 필연적이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마다. 그냥 간절히 기도하자는 결론으로 나아가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구속사적으로 이 상황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왜 이 시점에서 야곱이 씨름하게 되었는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야곱이 압복강 나루에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된 이유는 압복강 나
루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였기 때문입니다. 압록강은 가나안 땅과 외부 지역을 나누는 경계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지시하신 땅’으로서 하나님 언약 백성에게는 중보적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즉, 가나안 땅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땅이었으며,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장소였습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이 갖는 영적 중요성을 알려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앞을 막아서고 씨름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즉,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씨름은 야곱의 승리로 끝나지만,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위골 되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상처뿐인 영광이라는 말도 적합하지 않은 상황인 것이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반칙을 하신 것인지 그리 고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등 입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질 때에야 합당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의 기본적인 부분부터 확인하면서 나아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 가나안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 하고, 그 ‘믿음’은 오직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뿐입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야곱을 막아 서고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으로 야곱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 썼다가 물러설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야곱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드러내는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안타깝게도 야곱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씨름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야곱은 초조함과 절박함에 휩싸입니다. 하나님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이 순간입니다. 야곱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께서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써 변듯이는 힌트를 주신 것입니다.

허벅지와 할례언약

허벅지 관절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셸을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라고 보낼 때와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도록 다짐받을 때 허벅지에 손을 넣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창 24:2; 47:29).

[창 24: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창 47: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은 중보자 언약을 기억하도록 유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약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보면 오히려 비약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언약적 의미가 더욱 명확해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사실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이 완곡어법이라고 말합니다. 완복어법은 표현을 바꾸어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죽는 것’을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고 하거나 ‘용변 보는 것’을 ‘발을 가리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벅지도 완곡어법으로써 남성

아브라함 가족에게는 할례 언약이 있었습니 다. 할례 언약은 여자의 후손 언약이 구체화 된 것으로써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 도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야곱에게 할례 언약을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을 갖지 못했던 야곱에게 할례 언약을 상기시키기 심으로써 믿음을 주신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결국, 허벅지를 친 것은 반칙이 아니라 힌트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할례언약을 상기시키기 심으로써 믿음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이 힌트를 받고 여자의 후손 언약을 기억함으로써 씨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습니 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써 야곱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 받은 것을 뜻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자신의 설교에서 이 사건을 야곱의 회심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거룩한 상처

그리고, 야곱이 허벅지에 입은 상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께서 남기신 거룩한 상처입니다. 영적 체험은 결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흔연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은 우리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강렬한 흔적을 남기고 맡습니다. 참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은 결코 그 전과 같아질 수 없는 데, 그 이유는 영적 흔적이 우리 심령에 지워지지 않는 거룩한 흔적을 남기어 우리 내면에서 영원히 흔려지지 않는 빛을 발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방편

우리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 공부와 기도 생활, 예배 참석에 힘쓰면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이 우리의 공로나 업적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은혜에 의한 선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영적 체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마음 속에서 보석처럼 퇴색되지 않는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인생에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한 단계 높은 영적 체험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3.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눅 23:34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자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 제비 뻗을새

한줄요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요약

사랑과 용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능력 없는 사람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는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매우 위대하고 용기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힘들고 용서하기 힘든 상황에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만큼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용서에 왜 능력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던 시절에 지중해 주변 나라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로마의 평화(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도 로마라는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평화롭게 지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로마가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살도록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데, 그 평화의 바탕에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는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무조건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않고 힘으로 평화조약을 맺을 나라를 굴복시킨 이후에야 평화조약 맺었습니다. 로마는 평화조약을 체결하더라도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평화조약이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의 프랑스 지방인 갈리아 지방이 로마 안에서 평화롭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는 많은 전쟁을 통해서 갈리아 지방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활동, 즉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을 유지하는데도 많은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치 능력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한다는 것은 싸우지 않는 소극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섬겨주고 잘해주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그렇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활동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 필요할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신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가치 능력과 인격 능력입니다.

먼저 가치 능력이란, 능력의 질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무기를 예로 들자면 총과 대포와 미사일이 각각 질적으로 다른 능력을 가지 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귀
한 가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능력의 질적 수준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호로온 인류의 죄를 대신 받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이것은 호로전 인류의 죄를 감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죄 값으로 죽었던 것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만한 가치를 조금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 값은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보다 더한 가치를 지닌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가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격 능력

그리고 능력에는 능력의 운용에 관련된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또한 능력인데 이것을 인격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격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독재자처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자기 만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박은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 명령에 의해서 악행을 행하는 군인들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가진 능력이 매우 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무능력의 결과라고 주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를 완벽하게 격파하는 본문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인격 능력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단 지도자들이 결코 황내조차 낼 수 없는 인격 능력의 표현입니다. 이단 지도자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그들이 따르는 이단 지도자의 인격 능력이 얼마나 형편 없는지를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극한의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인격 능력을 지닌 사람은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속의 기도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곧 구약 시대 성전에서 대속의 제물이 드러지고 죄인이 속죄함을 받는 것과 동일한 성격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죄인들의 사함을 요청 드리는 제물과 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온전한 제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동물 희생 제사는 온전한 속죄를 가져오지 못했던 반면에 예수님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가져오는 온전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년에 걸친 속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그 한 없는 사랑뿐만 아니라 희생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심으로 절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께 매료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치와 인격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 줍니다. 예수님의 가치와 인격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가치함과 무정함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공부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분의 공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실하심이 오묘하게 통합된 신적 지혜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따를 수 없는 십자가의 비밀

710
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인격을 덧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소개

장춘권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속한 평택남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이랜드 평택뉴코아 사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에 대해서 알기 원하시는 개인이나 교회는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학력

서울시립대학교(B.A)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M.Div)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equiv.)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Th.M)
연락처

CP. 010-2703-0498 / HP. 031-651-8556

이메일 seendo@hanmail.net

홈페이지 http://ptnambu.org

주소

(450-810)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53번지 까치동지상가 2층
새주소 : 경기도 평택시 무지개공원 3길 15번 2층

후원계좌

농협 205011-56-148746 장춘권

Ver. RFK140109